현대불교

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마음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도가 높을수록
뜻을 더욱 겸손하라 하지 않았는가

-아운스님, 자경문-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9월 27일 수요일(주간) 제287호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석실불상의 모든 것
책임 성업에 의합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올 1월 '프리챌'에 개설한 사이버 동호회 '청년불교 우리사랑'. 서울시 신림9동에 있는 연화정사 청년회원들이 주축이 돼 개설했지만 이젠 전국적으로 1천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 모임도 활발해 부산지역은 벌써 서너번 모임을 가졌다.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연'은 사이버 불교 동호회 가운데 가장 많은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루에도 70여건의 글이 게시판에 오르고, 매일 글 올리는 스님도 있다.

사이버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늘고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뤄지던 우리 사회가 통신과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넷연(Net연)'으로 대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음이나 프리챌, 세이클럽 같이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종교관련 사이버 동호회는 줄잡아 2만여개. 각종 명목으로 이뤄진 이 동호회에 '넷-가족' 수백만명이 인연을 맺고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전국 대규모 모임
사이버 동호회의 힘

20일 현재 '다음'에 올라있는 종교 동호회는 모두 13,998개. 이 가운데 전체의 80%가 넘는 11,294개가 개신교 동호회다. 이에 비해 불교 동호회는 그 3분의 1이 조금 넘는 364개에 머물고 있다. 이나마 대부분 회원수가 30~40명 선이라 동호회라 부르기 민망한 곳이 많다. 회원수 1백명을 넘는 동호회는 20여개 정도, 1천명을 넘는 곳은 두 곳 뿐이다. 개신교의 경우 회원수 1천명이 넘는 동호회만 20여개다.

물론 회원수가 많다고 좋은 동호회는 아니다.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내어 주느냐가 중요하다"(다음 불교동호회 '인연'의 한 법우) 하지만 프리챌 불교 동호회 '청년불교 우리사랑' 이성학 부회장은 "동호회라면 적어도 회원수가 1백명은 돼야 꾸준한 활동이 보장돼고, 모임이 활성화되려면 5백명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부회장은 또 "현재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개설된 불교 동호회의 경우 특정 절의 신도모임이거나 학생회 모임이 대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통의 관심사를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캠페인 이번 호로 마칩니다.

"한국불교 해외포교 현지인 교화 나설때"

종단협 한국문화체험 국제포교사 60여명 참가

"해외에서 한국불교를 든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청소년, 현지인 포교가 시급하다. 교계차원의 어린이·청소년포교를 위한 훈련된 국제포교사 파견, 지역별 한국불교 사찰연합회 결성, 신도교육 및 포교자료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60여명의 국제포교사와 예비포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18일부터 21일까지 불국사 해인사 부석사 등에서 개최한 1회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제포교사들은 포교 체험사례 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종단과 해외사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해외포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제포교사들은 한국불교 해외전래 30년을 맞아 그 동안 한국교포 대상에서 현지인 포교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외국어 법회운영, 참선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신앙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키로 결의했다.

또 각국의 현지문화속에 성장한 2·3세 교포들이 민족의식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전통종교인 불교계가 중심이 돼 민족문화와 민족얼을 고양하고, 교육하는 간접포교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비주불교 현황'에 대해 발표한 김무신 국제포교사(LA포교사단)는 "한국불교 현지정착을 위해 미국 주류층 포교가 중요하다"며 "LA포교사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포교작업을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포교체험'과 관련해 김병곤 국제포교사는 "러시아의 조선족 교포들은 한국어와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 러시아 현지인들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정신세계의 빈곤함을 불교의 참선수행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해외포교사들의 포교체험사례의 내용을 정리하여 해외포교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내년 문화체험 행사에는 보다 많은 해외포교사를 초청하여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국립공원시민위 27일 발족

국가공원법 제정 등 추진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국립공원시민위) 준비소위원회는 21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4차 모임을 갖고 국립공원시민위 발족식을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는 국립공원시민위의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국가공원법 제정 △환경부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국립공원 관리정책 간담회 개최 △국정감사시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 문제점 부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시민위에는 조계종총무원을 비롯 불교환경교육원 재가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대한산악연맹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오페라로 '직지 환생'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시공을 뛰어넘어 오페라로 다시 태어났다. 22~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직지심체요절〉의 제작 동기와 시대적 상황을 한국적 오페라로 형상화한 창작 오페라 '직지'가 공연돼 호응을 받았다. 민족의 수난시대에 세계적 문화유산을 창작하는 과정을 한국적 정서와 회한이 담긴 아리아와 장엄하고 확려한 불교의식에 담았다. 11월 9~12일에는 청주에서 공연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출범'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법장스님 등 5인)는 19일 서울 종로5가 연강홀에서 종교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평화인의 만남'이란 주제로 공식 출범식을 갖고, 11월 16일로 예정된 달라이라마의 방한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상임공동집행위원장 박광서교수는 경과보고에서 "준비위 출범을 계기로 청와대 면담, 중국대사관 항의방문을 비롯 달라이라마 방한성사와 문화주권 수호를 위한 2천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혜암 조계종 종장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남북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라이 라마가 한국의 전통불교를 참고해 세계평화에 더욱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룡 목사는 축사를 통해 "중국정부가 달라이 라마 방한을 반대하는 것은 조선시대 종주국이었던 명나라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한국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을 세워 유일한 분단국가에 달라이 라마의 평화의 꽃비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 홈페이지=www.dalailama.or.kr

〈관련기사 3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달라이 라마 방한허용" 국회의원 8명 촉구

국회 의원연구모임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김원웅 한나라당의원)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19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다음 주부터 새 연재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달마'는 어떤 의미일까요? 1,500여년이라는 세월 저편의 인물이, 디지털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삶에 끼어들 여지가 있기나 한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에 앞서, 이른바 '달마 신드롬'이라 부를만한 일련의 현상들, 이를테면 집안에 달마도를 걸어두면 수맥이 차단된다고 믿는 현상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태도라고 타박할 일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마는 바로 희망의 상징입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희구하는 인간들의 근원적인 원(願)의 표상이 바로 달마인 것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도 그것이며, 오늘 우리가 달마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달마는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는 선불교의 초조라는 사실말고는 다분히 신비적이거나 전설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대불교'에서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달마와 비실존적 인물로서의 달마라는 양면에 걸쳐 달마의 생애와 가르침을 조명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달마 겉으로 이끌 필자 이규행 씨는 1935년에 충남 공주에서 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1960년 〈조선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거쳐 1981년~1991년까지 〈한국경제신문〉 사장, 1991년~1995년까지 〈문화일보〉 사장과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중앙일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현묘학회를 이끌며 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TrekSta

고마우신 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공용(225㎜~265㎜)

- 천연가죽 뉴벅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남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 자석 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수 있습니다

•본 사:051)309-7000 •서울영업본부:02)3200-600
•동서울지점:02)3200-620 •남서울지점:02)3200-780 •대전지점:042)582-1892
•호남지점:062)956-2131 •대구지점:053)964-5476 •영남지점:051)309-7110



Only One Number One
(주)트렉스타
본사/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88-1 TEL: 051-309-3663(代)
FAX: 051-309-3666 서울영업소/02-863-2566
http://www.trekstа.co.kr

조계종 임시종회 '파행'

동국학원 관련 안건상정놓고 마찰

정회-유회거듭 1건도 처리 못해

조계종 147회 임시종회가 안건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정회와 유회를 거듭하다 막을 내렸다.

18일 오전 10시 78명의 중앙종회 의원 가운데 66명이 참석해 개회한 종회는 동국학원 관련 안건 상정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문제의 안건은 '동국학원 탈종단화 및 부정·비리 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 안건은 개회 의식과 전회의록 낭독 이후 안건 조정을 위해 열린 총무분과위원과 의장단-각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안건 채택 여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11개 종립학교 가운데 동국학원만 다루는 것은 공정성을 잃는 것"이라며 "안건으로 상정할 의향이 없다"고 말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원행, 정념스님 등은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을 묵살하는 의장이 어디 있나. 의장이 안건을 되돌릴 권한이 있는가"라며 법등스님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한때 "(의사진행) 하기 싫으면 내려가라" "협박하는거냐"는 등의 말이 오가기도 했으며, 급기야 법등스님이 의장석을 뜨는 일까지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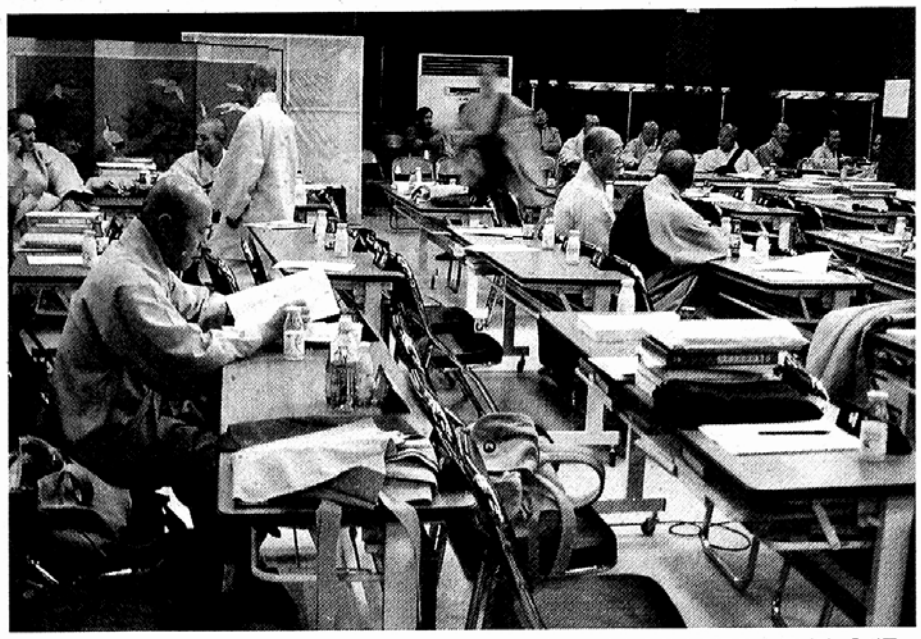
종회는 회기 이틀째인 19일 오전 10시 개의했으나, 이날도 동국학원 관련 안건 채택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다 휴회했다. 이로써 이번 147회 임시종회는 안건 상정도 하지 못하는 파행을 빚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종회 파행의 원인은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와 자기 의사만 관철시키려는 타협없는 풍토에 있다는 지적이다. 일차적으로 동국학원 관련 안건을 논의할 수 없다는 의장 법등스님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총무분과위원장 영담스님은 "총무분과위원들과 각 상임위원장이 조정해 채택한 안건을 거부하는 것은 횡포"라며 의장 법등스님에게 종회 파행의 책임을 돌렸다.

법등스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종도들께 미안할 따름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마치 동극대에 부정·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종도와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안건의 명칭을 '동국학원 운영실태 파악'으로 수정해 논의하자는 절충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종회의원들은 "이번 종회를 유회시켜 문제(조계사신협 공금 횡령 사건)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며 특정 계파를 꼬집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8일 개최한 조계종 147회 임시종회가 안건도 상정하지 못한채 정회와 휴회만 거듭하다 끝났다. 휴회중 한 종회의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사면·복권에 협조" 정대스님, 종회에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또 징계자 사면·복권 의지를 밝혔다.

정대스님은 18일 개회한 147회 임시중앙종회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화합종단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고 "종회의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원력으로 소납과 집행부의 종단화합 의지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정대스님은 또 "빠른 시일내에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 구체적인 화합 방향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종무행정 방향을 밝힌 인사말 첫 대목에서 거듭 사면·복권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대스님은 또 중앙승가대 이전, 불교회관 건립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재원 마련도 쉽지는 않지만, 의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안 착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북불교교류에 대해서는 "남북불교교류와 사찰 북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종단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조계종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일기금 조성에 종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조계사신협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전 종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고 "현재 조계사신협 이사장(지홍스님)께서 사태를 잘 마무리지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조속 사면복권"

불교인권위 성명서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지원·한상범)는 18일 조계종의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 우리 불교는 서로를 용서하는 대승보살의 육화(六和)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종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사면·복권 대상자 스님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는 "우리는 사회법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계종에서도 스님들에게 사형과 다름 없는 '치탈'이란 죄의 명칭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한마음으로 방한 추진을…

지리산댐 반대 종교지도협 창립

지리산댐 건설 반대를 위한 경남 함양군 종교지도자협의회가 21일 창립됐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이 지역 종교지도자 40여명은 이날 함양군 함양읍 천주교 성당에 모여 협의회를 창립하고 지리산댐 건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리산댐 건설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낙동강을 죽이는 생명파괴행위"라며 "정부는 댐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수경스님, 정용규 함양군수 등이 참석한 이날 창립회의에서는 성후스님, 김종혁 목사(상임공동대표), 김종민 신부, 강문성 교무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한편 진주, 남원, 산청 등 지리산 일대의 종교지도자들은 10월중순 '지리산 권역 종교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해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 일원과 사찰, 교회, 성당 등지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신도교육위 27일 발족

내년부터 체계적인 신도교육이 시행된다.

조계종 신도교육위원회(위원장 정련)가 27일 오후 4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

신도교육위는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준비모임과 7월2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찰중심의 참다운 불자 양성을 위한 신도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었다.

신도교육위는 출범과 함께 종단차원의 신도 기본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신앙적 내용중심의 불교입문, 불교교리등 불자교육교재 및 교안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취임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문화관광부 장관에 민주당 총재비서실장 김한길〈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좀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52년 일본에서 출생, 건국대 정외과를 졸업한 김 장관은 방송위원회 기획국장, 15, 16대 국회의원(전국구)을 역임했다. 종교는 없다. 소설가로 활동하다 92년 국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추경예산 12억 편성

남북교류기금 등

조계종 총무원은 12억원 규모의 불기 2544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무원은 18일부터 열린 14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종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다.

총무원은 종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북한문화재 복원을 비롯한 남북불교교류 사업,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 사찰환경 분쟁 해결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세입 12억원은 미수분담금 5억5천만원과 월간 〈법회와 설법〉 수익금 4천만원, 사찰토지처분금 1억5천만원, 예산 절감액 4억6천만원으로 마련한다.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남북불교교류 사업(1억5천8백만원),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9천6백만원), 사찰환경보존(1천6백만원), 종립학교관리위원회(3천1백만원), 중앙신도회 지원(2천6백만원), 직장직능단체 대법회(3천7백만원), 시설특별회계(6억원), 중앙승가대 이전(6억원) 부분이 증액됐다.

정성운 기자



◇태고보우국사 캐릭터.

태고종 캐릭터 70여종 홍보활용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종단 홍보와 어린이 및 신세대 포교를 위한 종단 상징캐릭터 70여 점을 개발했다.

부처님 좌상을 비롯 태고국사, 관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금강역사, 사천왕, 달마대사 등 기본 상징인물과 어린이들이 좋아할 동자승, 행자의 응용동작과 12지신 등을 활용한 이 캐릭터들은 전문디자인 회사 아이디검(대표 송용근)이 제작했다.

이 캐릭터의 특징은 외국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기존 스타일을 탈피하고 우리전통 불화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붓터치 기법으로 외곽라인을 형성, 면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기법을 활용한 것. 색상도 단청색의 지나치게 강렬한 색채를 중화시킴으로써 현대적 기법으로 재창조 친숙함을 갖게 했다.

태고종은 이 캐릭터들을 종단 행사와 부처님오신날 등 각종 불교행사와 종단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교구본사 사무장 교육

조계종 29·30일 유성서

조계종 교구본사 사무장 교육이 29~30일 유성 신협중앙회 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본사의 역할과 기능, 본사 종무행정체계 수립, 종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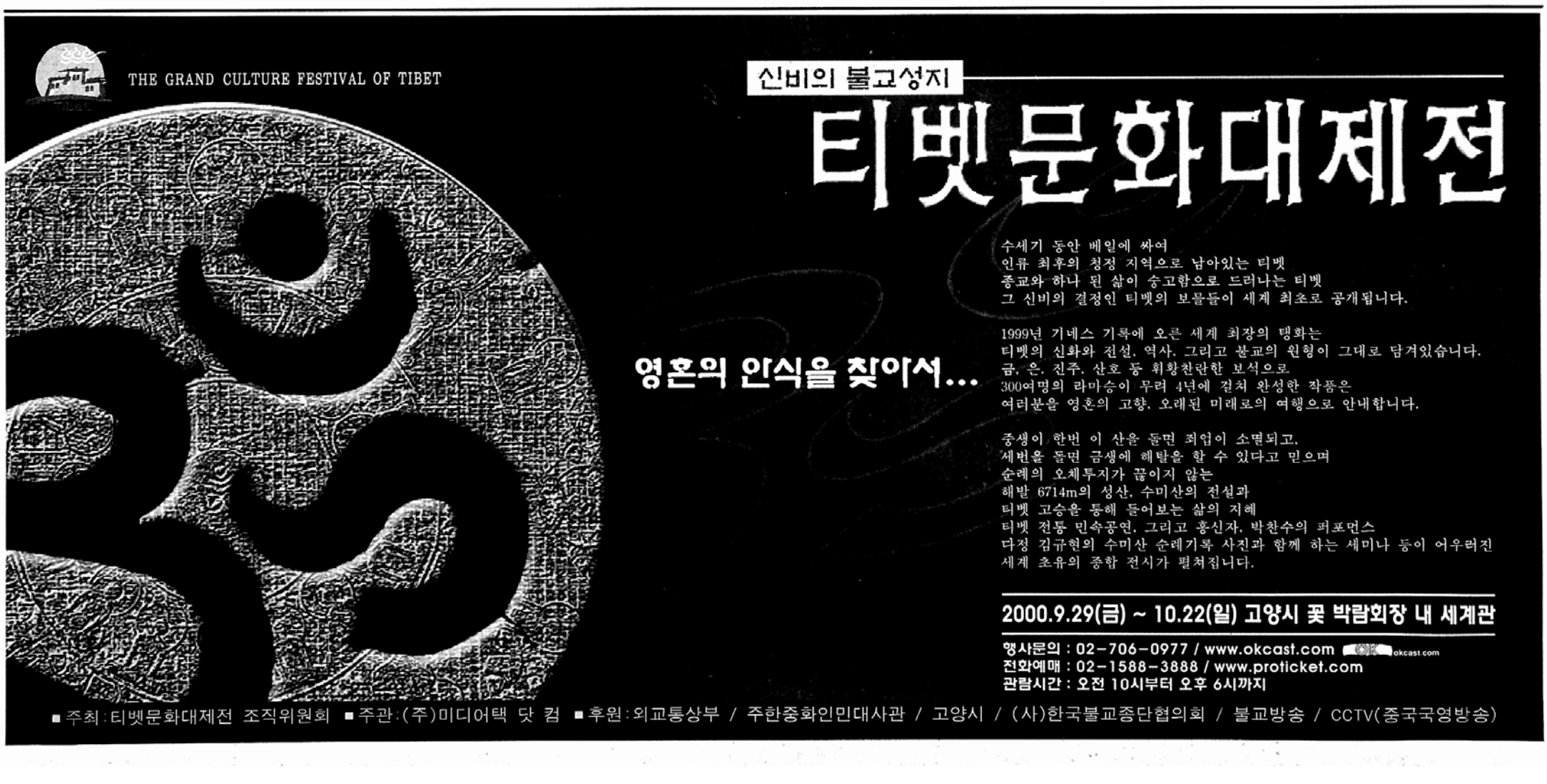
포교사 4백여명 연수

부산·경남 포교사단

부산·경남포교사단(단장 황소성)은 16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는 지종스님의 '포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 강의와 상담사례 발표, 신행담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부산=천미희 기자



목어

'션한 콩국수' 도 맘놓고…

구순한 필치의 이문구 단편소설 '장평리 찔레나무'(신간 소설집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중 한편)를 읽으면 오늘날의 도시와 시골 인심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농사짓는 시골 형은 그 동안 써왔던 제초제가 바로 고엽제 성분임을 알고나서 집에서 먹을 만큼의 고추만 농약도 비료도 안 주는 유기농으로 짓는다.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약삭빠른 동생부부가 이를 알고 "조금만 따 갈게요" 하고는 막 익기 시작하는 유기농 고추밭을 거덜내 버리고 만다. 형으로서야 그야말로 일년농사 헛것이다. 그 뿐 아니다. 동생은 형더러 콩농사 좀 많이 지어 나누어 달란다. 그 놈의 미국산 유전자 변형콩 때문에 '션한 콩국수' 도 '뜨끈한 되비지 찌개' 하나 맘놓고 못 먹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워치게 먹구, 달걀은 또 워치게 먹으며, 우유는 워치게 먹을겨. 사료라구 생긴 건 죄다 수입콩으로 만드는디…" 시골과 도시할 것 없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요즘의 형편을 보여주는 형제간 대화다.

요즘의 납 들어간 게나 복어, 머리 속에 돌넣은 조기도 따지고 보면 그랩수 높이자는 약은 꾀에서 나왔다. 황산이 든 식용유며 비료 넣어 키운 콩나물 등 요즘의 유해 불량식품은 차라리 독을 먹는 것이라 보아야 옳다.

'신토불이' 라는 오랜 구호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역사 이래 대접받고 있는 국산 농축수산물이지만 그것 또한 믿을 것이 못된다. 불신사회 가운데 먹을거리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가장 심각한 불신사회일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려 하기보다 '장평리…' 형제처럼 '나만은 안전한' 방법만을 찾으려 한다.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고 재벌을 굴복시키는 거대한 '새 힘', 시민운동도 그런 건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유해불량식품에 독하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삶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정부 주권수호 차원 달라이 라마 방한 비자발급 해야"

준비委 국민서명운동 계획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을 허용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연기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한 · 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밝히고 나선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이른바 '신사대외교' 라는 비판마저 낳고 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이미 예정돼 있는 외교일정을 중국의 반발을 이유로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라며,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기필코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방한준비위는 19일 서울 연강홀에서 발족식을 갖고 타종교 지도자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포괄하는 범국민 조직으로 개편, 정부가 방한을 불허할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정부는 그 동안 수차례 '방한허용'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불교신자는 물론 기독교 신자까지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원하고 있는 등 국민 다수의 희망을 저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 사무실을 방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은 "11월은 시기가 좋지 않다. 국익을 고려해 달라이라마 방한 시기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달라이라마 방한 예정일을 전후해 주룽지 총리가 방한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 · 중 · 일)'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는 등 중국과 굵직한 외교 일정이 줄지어 있어, 달라이라마의 11월 방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반발도 이전과는 달리 공세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방한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티옌 바우젠 부대사를 방한준비위에 보내 달라이 라마의 방한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중국이 유독 한국정부에 대해서만 외교관례를 무시한 강경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중국에 대해 취해 온 '저자세' 외교의 과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방한준비위는 '중국측의 발언이 주권을 침해하는 무례한 입장표명' 이라며 공개서한을 중국대사관에 전달(중국대사관의 거부로 실패)하려 한 데 이어, 18일 정부측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가 사대 · 굴욕 외교라는 비난과 국민의 신뢰를 무시하고 입장을 바꾸게 된 경위와 중국측의 압력의 형태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달라이 라마의 이번 한국 방문은 순수 민간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내한 일정도 강연 등 종교 · 학술 행사로만 짜여져 있다. 정부가 이런 '제한적인' 방문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대 · 굴욕 외교' 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11월 방한 허용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방한 날짜에 임박해 비자발급을 불허할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자명하다.

단순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막는 것은 '평화와 인권' 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마늘 파동과 '납 꽃게' 사건 등 잇따른 악재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입국을 연기하거나 끝내 불허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더욱 가속될 것임을 당국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19일 종로 연강홀에서 공식출범식을 갖고 11월 16일 달라이 라마 방한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주민황 씨 네띠앙 불교동호회서 강연

'티베트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달라이 라마 정치인 아닌 종교지도자"



네띠앙불교인동호회는 16일 티베트 인권 · 독립회의와 공동으로 동국대 주민황 강사를 초청하여 조계사 교육관 지하대강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티베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한 주씨는 "티베트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학자들의 주장은 잘못이며, 달라이라마는 정치적 인물이라기보다 종교적 인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다.

중국은 티베트가 원래부터 중국에 속했다고 하나 7세기 전반에 티베트와 당이 독립국으로서 전쟁한 결과로 맺은 평화조약의 조건으로 당나라의 공주가 티베트 왕에게 시집가기도 했다. 또 티베트가 몽고족의 원 제국과 정치적 관계를 맺은 것은 13세기의 일이다. 그러므로 티베트가 원래부터 중국에 속했다는 중국 측의 말은 억지에 불과하다.

현재 국가로서의 중국과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중국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만일 우리가 고려말 한 때 원나라에 조공을 바친 사실이 있다고 해서 현재도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가지, 아무리 역사를 따지고 세계법의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해도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독립을 원한다면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달라이 라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티베트 독립 티베트무장독립 단체 캄바 지도자에게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걸어온 교황에 버금가는 불교지도자이다. 또한 8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 지금은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어 종교 지도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한글세대 위한 한글 선시 제창한다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㉗선시 읽기(6)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
문학박사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지금 옛 선사들의 고도의 정신세계가 응축된 선시를 학습하는 것과 아울러 이제 한글 세대인 우리에게 새로운 형식의 선시를 추구해야 할 시점에 왔다.

선시가 역사적으로 한시와 만나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선시가 한시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불문율이다. 그러나 한글세대에게 선시의 창작이나 학습은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시는 한자의 나라인 중국에서조차도 일부 한학자들만의 전유물인 고문(古文)이 되어 일반 대중과는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 되었다.

"죽은 문자로는 결코 살아있는 사상이나 문학을 만들 수 없다" 는 중국 신문화운동의 선구자 호적(胡適: 1891~1962)선생의 선언처럼 우리가 선시의 전통적인 틀과 관념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 거기에 안주하다가는 우리의 자유스럽고 자연스런 감정과 느낌을 시적으로 묘사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창조적 세계를 시적으로 펼쳐보인 것이 선시이다. 어려운 문자인 한문의 한계성과 제약성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신선하고 활발한, 자유롭고 개성있는 상상의 세계를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한글세대에게 문자와 말이 일치하는 우리 글인 한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의 선시 창작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시의 형식과 격률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한시 형태의 선시는 문학 창작을 속박하는 굴레가 될 뿐이다.

한문을 타국지언(他國之言)으로 보고 국문가사예찬론을 제창했던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은 "우리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다면 이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설파하였다. 그는 불교사상에 심취하여 한글로 된 소설 〈구운몽〉에서 불교의 용어를 거침없이 구사하였다.

전거(典據)나 고사 따위들이 필요없어지고 어려운 시율이나 격식에서 해방되어 아무런 구속없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과 오매불망 추구해왔던 정신세계를 자유롭게 묘사하여 깨달음의 경지와 감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한글을 통해 창작된 깨달음의 노래인 선시가 빛을 발휘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는 붓다의 선언적 명제가 그렇듯이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문자가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 생통하는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선시의 표현 수단이 천년이 지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한시 형태의 선시는 이미 도서관의 고서목록 속에 장식된 골동품이 되었다.

우리는 용기를 갖고 과감히 구각을 벗어 던지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새로운 형태의 선시 즉, 한글로 쓰고 읽는 선시를 전개해야 한다. 이 길만이 한글세대에게 선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선사가 선시를 읊은 본래의 뜻을 알아서 되살리는 길임을 확신한다. 관념의 묵수성과 전통에 대한 맹목성은 자신의 병을 감추고 치료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시에 대한 그 동안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용기를 갖고 선탈(蟬脫)한 스님이 광덕(光德) 스님이다. 그 분의 파격적인 한글 열반송은 불자들은 물론 젊은 학생,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남기신 유지가 감응되고 게시된 바가 크지 않았던가. 광덕 큰스님의 열반송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위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겁전 봄소식이
겁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몰형상을 떨쳤으니
금정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사 신용협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조계사신용협동조합>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개월 여 지났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종단의 원로대덕스님들과 조합원 여러분에게 안내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 있으나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드려야 함이 도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건이 종단적인 사안이기에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자료를 배포한 상태이나 종회의 진행이 여의치 않아 전 종도와 조합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보고드림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사자들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본 사건의 당사자인 송석윤과 조택동은 신협 이사장에 의해 고소되어 검찰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 조사나 언론 등에서 100억원대의 횡령 규모라고 언급이 되고 있으나 이는 송석윤과 조택동 등에 의해서 임의로 입출금 되었던 전체 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로 현재까지 신협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약 48억원대 입니다.

현재 신협은 금융감독원의 경영 관리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24일부터 2001년 2월 23일까지 조합의 모든 채무 지급이 정지되며 조합 전 임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됩니다. 더불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이루어진 검찰의 조사 결과가 신협 이사진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 이상을 넘어서고 있지못한 듯 하여 매우 유감이며, 좀 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고 조사와 수습 과정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신협 이사장에 의해 적발되고 형사 고소되어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현재 신협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국가 기관에서 선임한 경영관리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매우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금자들의 예치금은 법에 의해서 보호될 것입니다.

금융 기관의 사고로 고객들의 예금지급이 정지되면 재산실사 및 조사후에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본 조합에서 2000년 9월 20일자로 금융감독원에 재산 실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지급에 대한 조사가 10월 20일경 마무리된 후, 늦어도 11월24일 전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조계사 신협 예금주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를 올바로 하지 못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기에, 지금은 비록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나 본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예금주들에 대한 조속한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합원 여러분과 모든 종도들께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기 2544년 9월 22일

조계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합장

"영산재·단청 北에 지원"

태고종 통일불교정책 상임위장 대운 스님



"지금 여러 종단에서 북한과의 교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태고종이 해야할 일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불교와는 같은 홍가사이고 통불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태고종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남북불교교류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태고종 통일불교정책 상임추진위원장에 선임된 대운스님(태고종 중앙종회 부의장)은 태고종이 남북불교 교류에서 할 일이 많아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토로했다.

대운스님은 대표적인 불교 전통문화로 꼽히는 '영산재'와 '단청'의 본산인 신촌 봉원사의 주지와 영산재보존회 회장을 역임했기에 "북한 조불련에 제안한 남북합동영산재 개최, 불화와 전통단청, 사찰건축 기술 지원 등에도 역점을 둬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북한불교와 하나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태고종 종회에서 결의한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1종도 1구좌 갖기'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느 누가 거액을 내기보다는 전 종도들이 통일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1구좌 갖기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화면으로 보니 북한스님들이 수하고 있는 홍가사가 전통규격에 맞춰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재봉틀로 만든 것이라 눈에 거슬린다"는 대운 스님은 "태고종 전국 사찰에서 가사 1벌씩 만들어 북한사찰에 보내는 일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대운스님은 여건이 되면 북한을 직접 방문해 무엇이 시급한지를 알아보겠다며 종도들이 통일불교정책 추진위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했다.

한편 통일불교정책추진위 상임고문에는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 고문에 만봉·해운 벽산·석주·등운·몽월·경산·금봉·춘명·벽암·월명·남호·용호 스님, 총재에 인곡 총무원장, 지도위원에 남파·연운·혜초 스님이 각각 추대됐으며 공동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집행위원, 분과위원,북한불교연구소장 등은 추후 선임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한국불교 우수성 알려야죠"

하버드대서 강연하는 능인선원 지광 스님



능인선원장 지광스님(동국대 겸임교수)이 숭산스님에 이어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두 번째로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 강단에 선다. 지광스님은 10월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강연은 하버드대 동양학부소속 불교연구커뮤니티(HBC)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지광스님은 "하버드 불교연구커뮤니티는 하버드대 학부와 대학원의 교수와 학생 등 400여명으로 구성된 미국의 대표적인 불교모임"이라고 밝히고 "이번 강연을 계기로 프린스턴, 예일, 컬럼비아대 등 미국 동부의 명문대 불교관계 지성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탁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재 미국에는 티베트나 일본, 중국불교는 있어도 한국불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로 한국불교 포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지성인 사회를 파고들어 한국불교에 관심있는 계층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해외포교의 거대한 거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대표할만한 사찰을 미국에 건립하고 한국불교 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경기도 화성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전문 포교사를 양성, 미국에 파견한다는 구상도 세워두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매년 하버드대생들을 능인선원에 초청해 한국불교를 체험케 함으로써 이들이 미국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는 포교사로서의 활용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진강사 관음불 봉안·원통보전 낙성

평창 진강사(주지 갈룡)는 18일 관음불상 봉안 및 법당인 원통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낙성식에는 전태종 종정 도용스님, 운덕 총무원장 등 종단 스님들과 권혁성 평창군수, 관내 기관단체장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대지 2천여평의 진강사 원통보전은 108평 단층건물로 관세음보살을 모셨으며 불단 양 옆으로 작은 감실을 만들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등 108불을 봉안했다.



법웅사 장병 합동 수계법회

1군사령부 군법당 법웅사(주지법사 김말환)는 17일 대성사 조실 도문스님을 계사로 장병 및 장교가족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군사령부 양재일 불자회장, 여신도회 오숙자 회장과 정연태, 박웅 법사 및 장병과 장교가족 400명이 참석한 이날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대성석가사 주지 법신스님의 환영행사도 함께 펼쳐졌다.



한나래 문화재단 1돌 기념법회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은 15일 롯데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산스님,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 김정도 부산불교거사림회장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한나래문화재단은 전국청소년 예술제를 주관한 것을 비롯 대보름 맞이 전통연 만들기, 화전놀이 및 들차 시음, 한일불교문화교류 등 다양한 문화 사업과 전통문화 개발에 앞장서 왔다.



한불연, 연수원 '유마정사' 기공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17일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에서 불교연수원인 '유마정사' 기공식을 가졌다. 연수원은 현대식 2층 건물로 내년 봄 완공예정이고, 법당과 부도터도 함께 건립된다. 연구원은 유마정사가 완공되면 故 이기영 박사와 서경수 교수의 법신을 모시고 이 박사의 부도비를 건립하는 한편 추모전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일주문

토종 치어 방생법회

법장 수덕사 주지는 충남 예산군과 함께 18일 예당저수지에서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종어류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치어 방생법회를 개최했다. 예산군은 지난 5월에도 2000만원을 투자해 참붕어등 토산어종 26만 마리를 방류했다.

고희 기념논문집 받아



명성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스님은 17일 운문사 만세루에서 '명성스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로부터 기념논문집을 봉정받았다.

경의선 연결 기공식 참석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스님은 남북교류사업의 서막으로 18일 임진각에서 열린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시공식에 건설교통부 장관 초청으로 참석했다.

남경의약대 한국분교장 재임



혜인 삼화불교대학 학장은 중국의 자매대학인 남경중의약대학분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임되어 앞으로 5년 한국분교장으로 활동한다.

동국대-서울경찰청 교류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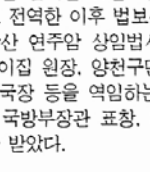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은 21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 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교환 △소속 교수 및 교관 교류 등 정보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티베트의 신비…' 출판기념회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은 10월1일 오전 10시 30분 안성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최근 발간한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031)676-8700

미당 시인 관련자료 수집



임기중 동국대 교수(한국문학연구소장)는 전북 고창군이 마련한 미당 서정주 선생 시문학관에 전시할 미당선생의 생애와 문학활동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동국대 법학도서관 개관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과대 학장은 26일 동국대 법학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도서관은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공부방으로 이용되어 왔던 '계산고시학사'를 확대·개편한 것.

'교계 신문' 주제 특별강연



김병규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중앙승가대 신문 창간 10주년을 맞아 28일 오후 3시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법회에서 '교계 신문과 신문 읽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서암효행 대상에 김혜인 양

3일 홍은사서 시상식



불교의 자비 효도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시상하고 효행사상을 널리 고취시킴으로써 불교의 발전과 증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서암문화장학회(이사장 손현수)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서암효행상 효행대상에 김혜인(20·사진)양이 선정됐다.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2학년에 재학중인 김혜인양은 10년간 B형 만성간염과 간경화로 투병생활을 해오던 부친 김유영(50)씨가 지난해 10월 병원으로부터 간이식 의에는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는 시한부선고를 받자 자신의 간을 제공, 아버지에게 새 삶을 찾아주었다.

서암문화장학회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가족간 이웃간의 사랑이 메말라 도덕성과 효사상이 실종된 오늘날에 커다란 귀감이 되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효행상에 강경자(48·경북 안동시 안기동)씨, 효행장려상에 이옥순(45·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씨, 경로상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소속 '청주 청원 영산회'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3일 오후 1시 경북 안동시 약산 홍은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2232-6948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불교원로 정재각 박사 별세



역사학자로 동국대 총장을 지낸 정재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가 17일 오전 2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경북 상주 출신인 고인은 경성제대 예과와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문과대학장, 대학원장을 거쳐 고전국역위원장, 정신문화연구원장, 숙명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동양사 연구에 몰두, 〈세계문화사〉〈역사의 여음〉 등 저서를 남겼다. 국민훈장 동백장과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일자 씨와 아들 욱진(62) 씨가 있다. (02)921-9299

권오성 상임법사 입적



한국불교대원회 권오성 상임법사(55)가 21일 오전 8시50분 순천향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23일 발인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권 법사는 89년 육군중령(군법사)으로 전역한 이후 법보신문 총무국장, 관악산 연주암 상임법사, 예비역 군법사회 회장, 배꽃어린이집 원장, 양천구민체육센터 기획실장, 능인선원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교계에서 일해 왔다. 또 85년 국방부장관 표창, 83년 85년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E-mail: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 B/D 503호 명상
TEL. 733-4277(代) FAX 733-4279

묘굿과 진오귀굿의 대가, 무속인 정정희의 新무당 이야기
내가 울어야 너희가 편하지
신국판/값 7,500원
저자와의 만남 031-921-5445



무속인 정정희는 누구인가?

명성 황후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그는 세간에 민비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얼마 전, 살아 생전 불심이 지극했던 명성 황후가 관세음보살로 해탈한 것을 선몽받기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접신이 이루어져 웬만해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묘굿과 진오귀굿에 특히 강하다. 무속인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그는 항상 남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삼아야 진정한 무당이라고 말한다. 무당이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할 때 당신은 평온하고 행복해진다고……

최근 정 회장(정주영 전 명예 회장)이 풍수대가들이 천하명당이라고 평가한 청운동 집을 떠나 가회동으로 이사한 것은 무속인 정정희 씨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서울」 2000. 7. 28

정정희 씨가 무녀로서 치유 능력이 각별한 것은 그의 기가 유별나게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혼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녀의 기가 강하다는 증거이다. 지난 5월에 대한 항공의 여자 승무원 세 사람이 무꾸리를 하러 왔다. 7월에 비행기 사고가 크게 일어날 것이니 직장을 그만 두고 시집가는 게 좋겠다는 점괘가 나왔다. 그 중 한 사람인 김 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 살았고 두 사람은 괌 비행기 사고로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서정범의 「무녀별곡」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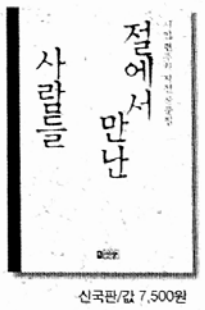
"산사에서 만난 스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
시인 현주하 자전 산문집
절에서 만난 사람들

성철, 고암, 일타, 법흥 큰 스님…….

명징한 깨달음과 강렬한 느낌을 줬던 법정 스님, 많은 이들을 품었다 미련도 없이 길을 내주는 심성을 일깨워준 구산 큰스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준 각문 스님…… 불가에서 널리 그 덕을 칭송받는 많은 스님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인간적이며 솔직한 이야기.

담백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소설가 허일지

소중한 스님들과의 인연들이 훈훈하게, 때로는 뭉클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소설가 임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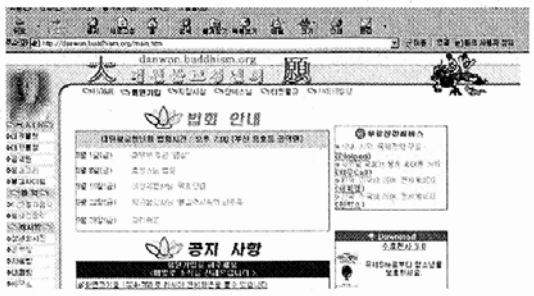


신국판/값 7,500원

kyba.or.kr kbuf.org sukrim.or.kr

청년불심 꽃피는 사이버 세계

토론문화 정착… '노인불교' 옛말
종교간 대화 · 동문모임도 활발



◇대원불교청년회의 홈페이지. 회원들은 수시로 대화방을 개설, 다양한 불교계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인터넷 사이트 검색엔진에 들어가 보면 불교 기관 단체 또는 동아리로 검색되는 수많은 사이트들 중에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청년회와 대학생 동아리들의 모임이다. 젊은 세대를 주 이용자층으로 두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에 맞게 불교계도 예외없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청년회 학생회 홈페이지다.

학생회까지는 탈없이 다니다가도 성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사찰의 신도회에 편입되어 버리기에 젊은 불자들은 노인과 보살들이 많이 나오는 절에 나가기를 꺼려하는게 대체적인 추세다. 사찰에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 이들이 보다 의욕적인 신행활동을 보이고 있는 곳이 사이버세상.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치마불교' '노인불교'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청년불자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단연 토론. 불교계에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토론문화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 바로 청년회 홈페이지다. 훼불, 교리, 수행, 타종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의 의견을 구하고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정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한불교청년회(http://www.kyba.or.kr)의 홈페이지는 각 지구 뿐 아니라 지역 불교청년회까지 흡수해 명실상부한 청년들의 대표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려운 법우 돕기, 훼불막기 등을 수록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이들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대학생불교연합회(http://www.kbuf.org)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대학 불교학생회와의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자체사정으로 중단했던 인터넷방송국도 빠른 시일 내에 재오픈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종교대학생 연대회의, 전국 가톨릭대학생 연합회, 원불교 전국대학생 연합회, 한국 기독학생회총연맹 등 타종교 학생회와의 교류를 통해 종교간의 화해에도 앞장서고 있다. 방명록에는 타종교 학생회와 서로 안부 주고 받기가 한창이다.

안양 군포불교청년회가 합쳐져 탄생한 마이트레야(http://prn.co.kr/user/maitreya)는 1년여의 활동이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지난달 개설한 지도법사 해찬스님(법연사 주지)이 안내하는 이번주 화두는 수행의 참맛을 알려준다.

대원불교청년회(http://daewon.buddhism.org/main.htm)에서는 티벳불교음악, 선불교음악 등을 들을 수 있다. 티벳불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기초교리도 쉽게 설명되어 있다. 사이버 법당을 개설해 언제든지 반야심경 봉독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동국대 학인들이 꾸며가는 동국대 석림회(http://www.sukrim.or.kr)는 석림회 소식 뿐만 아니라 석림회 출신 법사단, 석림 동문회 소식도 있으며 불교계 소식도 매주 업데이트된다.

사이버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청년불자들의 모임은 이런 홈페이지만이 아니다. 각 동호회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음 카페나 프리챌 커뮤니티 등에도 불교학생회 동기모임이나 기수모임 동문모임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사이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 컨텐츠 개발 등도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16일 창립된 춘천 정신병원 "참"나 불자회는 법회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무료진료 등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춘천 정신병원 불자회 출범

매주 경전공부…독거노인 무료진료

국립춘천정신병원 "참"나 불자회(회장 이경덕)는 16일 병원내 대강당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 신도국장 성민스님, 정혜사 회주 현문스님, 봉덕사 주지 혜욱스님 인제 장수사 주지 정범스님을 비롯해 강원도지사 부인 이분희, 강원도청 여성정책실장 한정숙,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 김주효, 부회장 양동선씨 등 사부대중 80여명이 참석했다.

"참"나 불자회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가 담긴 '자타카'와 '약사여래경'을 소의경전으로 매주 1회 경전공부모임을 열어 회원 상호간의 토론을 통해 불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원사 주지 만성스님을 지도법사로 한달에 한번 정기법회를 봉행해 신심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10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있을 전국병원연합회 의료봉사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우리 모임에선

금강메아리 연화사 순례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이진홍)는 17일 강원도 홍천군 연화사로 성지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성지순례에 참석한 50여명의 회원들은 연화사 동양 최대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주지 화담스님의 법문을 들은 뒤, 인근에 위치한 공작산을 등반했다.

석불회 임실석불 참배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24일 전북 임실일대 석불 친견답사를 다녀왔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지방유형문화재인 임실군 학정리 석불과 용암리 주기사석불을 비롯해 5개지역 석불을 친견했다.

산악인련 통일발원 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10월 3일 경북 안동 약산 홍은사에서 남북평화통일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대법회에서는 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전국의 산악인 불자들이 참석해 민족평화통일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다음날 인근 주왕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행자부 불심회 정기법회

행정자치부 불심회(회장 하재춘)는 23일 북한산 금산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은 '공직자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법했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나 승 렬
〈농림부 농지과장〉

96년 8월 미국으로 가서 어학연수를 한 다음 미국 농무성에서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다. 집안이 불교집안이라 군대가서도 법당에 다녔으며, 미국 가기 전에 대행스님을 친견하고 한마음선원에 가끔 다니긴 했지만 신심이 불붙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마음선원 워싱턴 지원에 다니면서 불법에 본격적으로 귀의하여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있던 3 년 동안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절에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대행스님의 법문을 비디오로 보고 들었다. 또한 한 달에 한두번씩 개최하는 청년회에 가서 체험담을 나누는 등 신심을 돈독히 했다. 외국에 파견 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골프는 배우지도 않았다. 일요일에 절에 가느냐, 골프를 배우느냐는 갈등이 있을 법도 했지만 거의 100%의 확신을 가지고 골프장에 가는 대신 절에서 참나를 찾고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다.



귀국하기 직전, 가족들과 함께 플로리다에 갔을때 참나가 불보살처럼 호위하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우주과학에 관심이 많아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50여마일 거리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 가던 길이었다. 기름이 충분한 줄 알고 출발했는데 가스게이지에 기름이 바닥났다는 사인이 나타났다. 도로변에서 만난 미국인이 주유소가 가까운 주위에는 없고 수십 마일밖에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기름이 떨어졌다는 말을 하니까 그는 자기 트럭 주유구에 호스를 넣어 입으로 기름을 빨아서 우리 차에 넣어 주었다.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실감케 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러한 경험이 나로 하여금 참나가 언제나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끔 만들었다.

99년 3월 귀국한 다음, 생명에 관한 위없는 가르침인 불법을 바탕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에 관한 업무를 할 때, 우리 농업과 농촌은 물론 국가가 보다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동료들과 불법을 함께 배우고 익히고자 금년 3월에 농림부 불자회를 만들었다. 창립 법회때는 과천청사에 있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부처의 불자들은 물론, 조계종단과 현대불교신문 등에서도 자신의 일처럼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 개인적으로 정말 부처님 믿는 보람을 느꼈다.

그 동안 불법에 대한 일반직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푸른 눈의 현각스님을 초청하여 과천청사 공직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참가하는 대중강연회를 가졌다. 또한 불법의 기초인 연기법과 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송광사 율원에 계시는 청월스님을 초청, 농림부에서는 처음으로 대중법회도 가졌다. 약 100명이 참가하여 평소에 품었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다. 이러한 스님들의 법문 등에 힘입어 농림부 불자회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불자회 창립을 위한 사전모임을 가졌을 때는 10여명만이 동참하였으나, 지금은 회원수만도 50여명이 넘고 다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 또한 더욱 힘이 나는 것 같다. 더불어 올 1월 농지과장을 맡은 뒤 불교계의 현안이던 전통사찰의 농지취득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됐으니 이 모두가 부처님의 원력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농림부 불자회원들과 더불어 인연이 닿는 모든 중생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부터 스스로 고요하고 청정한 불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불제자들이 열심히 닦고 닦으면 기어이 부처가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는 데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참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

금융단 불자회운영위 청계사 순례

"해마다 두차례 회장모임 개최"

10개 은행 불자회 임원들로 구성된 금융단불자회 운영의원회(위원장 김윤하)는 17일 과천 청계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수협, 한빛, 기업, 중소기업, 산업, 서울은행 등 6개 은행 불자회 운영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성지순례에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두차례 각 은행불자회 회장단 모임을 정례화하고 10월 28일 금융단불자회 하반기 합동법회를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최키로 했다.

또한 10월22일 동국대에서 개최될 전국직장직능불자 연합대법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7일 6개은행 불자회 운영위원 15명은 과천 청계사로 성직순례를 다녀왔다.

김윤하 위원장은 "이번 성지순례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각 은행들간의 정보교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금융단 불자회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클릭! 새 홈 페이지

■맑고 향기롭게 경남모임(http://www.clean100.com)-모임 소개와 소년소녀 가장 돕기, 문화 유산 가꾸기, 문화봉사 활동, 수련회, 매월 사찰문화기행 등의 활동 내용 등 수록.

■bobul(http://cafe.daum.net/bobul)-9월 19일 개설. 補佛會..부처님을 좋아하는 모임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쁠회(http://cafe.daum.net/modani)-9월 19일 개설.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천태종학생회/청년회여기루(http://cafe.daum.net/yonghun007)-9월 19일 개설. 사찰을 초월해 천태종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곳.

■마하선원(http://www.mahazen.org)-9월 7일 개설. 정진 상담 생활상담 등의 상담코너를 비롯, 종교 화두 경전 등에 대한 해설도 올라와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6대 장봉암 총무원장 및 제5대 오현각 중앙종회의장
취임법회

국화향기 그윽한 중추가절을 맞이하여 법체청안하심을 삼보님전에 기원드리옵니다. 본 종 제6대 장봉암 총무원장 및 제5대 오현각 중앙종회의장의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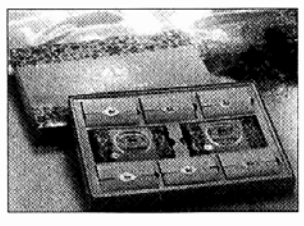
일시 : 불기 2544(2000)년 10월5일 (음 9. 8)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중로구 신영동 93번지 총무원 대법당(일붕선원)

2000. 9. 20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취임식 준비위원회
Tel 02)394-9468.9 Fax : 02) 395- 9468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100세트 한정판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항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어이없는 조계종 종회

한국 불교의 대표적 종단이라는 조계종이 과연 우리 불자들에게도 대표적인 종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좀 성급할지는 몰라도, 이번 조계종 147회 임시중앙종회가 안건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종회가 무엇인가? 원로회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이 아닌가? 원로회의가 종교라는 특수성에 바탕하여 원로 대덕 스님들의 뜻을 모으는 의결기관이라면 종회는 그야말로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모든 불자들의 뜻을 수렴하여 조계종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대표적 의결기관이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그 근본적인 구성체제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수없이 있어 왔다. 출가자만으로, 그것도 거의 비구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종회가 과연 조계종의 여법한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조계종 종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그나마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면 그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조계종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가? 총무원 일원 체제로 운영되어도 잘 될 수 있을 만큼 화합된 종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문제가 산적한 시기에 그 책임을 팽개치고 종회를 유회시킨 책임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 모든 종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부처님앞에 그리고 모든 종도들 앞에 사죄를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파행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안건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의를 애초부터 막아버린 종회의장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종회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종회의 성격에 전혀 상반되게, 한 개인의 판단으로써 종회 자체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한 일은 조계종-종회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일이다. 적법한 절차도 관행도 없는 것이 조계종 종회라는 것을 대내외로 홍보한 일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과연 종회는 조계종 종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지, 또 밖에서 조계종과 불교를 보는 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생각해 보라.

또다시 종회 해산론이 나오는 것은 크게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종도의 뜻을 모아 조계종의 큰 방향을 결정해야 할 종회의 이러한 파행이 조계종 종단 자체, 나아가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불자들과 국민들의 등돌림으로 드러날 것이 두렵지 아니한가?

각화사 인근 개발 안된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과 이러한 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및 정신문화의 의지처가 점점 상실되어가는 현실을 볼 때, 미래사회의 인간은 어디에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세계의 문화민족으로서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한민족의 문화에 대해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한 과시행정으로 전통문화를 마구잡이로 취급하고 훼손하려는 작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불교의 찬란한 문화를 제외한다면 한국은 세계의 야만민족이 될 정도로 불교문화의 비중은 막대하다. 옛날 우리의 역사를 보관해 왔던 사고지(史庫地)를 복원하여 조상의 역사 보존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는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건물을 어떠한 목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와 지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천년 동안 국민 정신문화의 원천이 되고 전통 정신문화의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님들의 참선수행 도량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상북도 봉화 각화사는 신라 때 원효 성사께서 창건하였고, 참선수행하는 납자들에게는 각화사에서 반드시 한철이라도 나봐야 한다는 염원을 가진 유서깊은 수행 도량이다. 그런데 정부와 도와 군이 각화사 바로 뒤 800m 지점에 있는 사고지를 복원·개발하여 관광지로 삼겠다는 발상은 전통 정신문화를 세속화로 깨 부수자는 결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자칭하며 민족문화를 보존·향상시키겠다는 구호만 내세우면서 정작 이처럼 유서깊은 국민 정신문화의 본산을 훼손하겠다는 의도와 발상은 불교의 탄압 이전에 국민 정신문화의 파괴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침 '전국 선원 수좌회'에서 "수행도량을 관광위락단지로 내줄 수 없다"고 나섰다고 하니, 순교정신으로 천년 수행도량을 지키겠다는 수행 스님들의 결연한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이에 민족의 정신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청정 수행도량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사찰 관람료 인상 최선인가

최근 사찰관람료가 12월부터 최고 30%까지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다. 북한 사찰 복원기금 마련, 물가와 인건비 및 관리비용 등이 상승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관람료 인상만이 최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친구들과 함께 한 사찰을 방문했을 때다. 문화재가 꽤 많은 사찰이었다. 그런데 안내 리플렛 하나 찾기가 어려웠다. 친구들은 사찰 이곳저곳에 대해 끊임없이 호기심을 나타냈지만 마땅히 설명을 들을 곳이 없었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빙 둘러보고 그냥 나갈 수 밖에 없어 웬지 허전했다. 불자가 아니라면 아마 본전 생각이 날만 했다. 관람료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관람객들이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한다. 〈배혜정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불교청소년협회 창립 '환영'

조계종 산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 이어 진각종에 '비로자나 청소년협회'가 창립됐다니 반가운 일이다.

청소년 포교는 이제 교계의 개별적인 수준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합집합'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는 두 번, 세 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는 한국불교의 내일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청소년협의의 분명한 목표가 '21세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이 아니라 '청소년 포교 조직망이 스스로 자생되어 확산될 수 있는 조직체계의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유능한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준비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우성자 · 선생님BANK 스터디 매니저〉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비구니스님 법문도 신길

저는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보는 미국 뉴욕의 독자입니다. 최근 현대불교신문 '이렇게 들었다' 코너에서 "세상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대살차니건지소설경〉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이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큰스님과의 대화'란에 비구니 스님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에 비구, 비구니 스님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수행하고 있고, 또 도를 깨친 비구니 스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의 작은 노력과 관심이 한국불교의 발전과 불교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성내 · 미국 뉴욕〉



목차사진

감갑한 부처님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에 가면 고려 전기의 불상인 미륵석불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160호)을 만날 수 있다. 2년전 전각이 세워져 보존되고 있다. 그런데 그 보호각은 석불의 크기와 참배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지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발끝을 올려야 겨우 불상을 볼 수 있고, 감갑할 만큼 비좁다.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행정처리와 문화재 보호대책이 아쉽다.

〈이귀인·석물선양회 간사〉

최근 김용옥 선생의 명강의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노장사상은, 그동안 비과학적이요, 뒤떨어진 사상으로 잘못 인식돼 온 동양 사상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마치 불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비단 노장 사상 뿐이랴? 근 십 수년 우리나라 독서계를 강타하여 물경 250만부의 독서 인구를 확보한 크리시나무르티, 라즈니쉬 계열의 〈깨어서 지켜 보라〉는 힌두이즘, 또 '단학(丹學)'이니 '기(氣)수련' 등은,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교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제악(諸惡)은 막작(莫作)하고 중선(衆善)은 봉행(奉行)해서 깨달음에만 이르면 다 불교

노장사상-힌두이즘 불교와 동일시 말자

목소리



김희종
바른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 라는 폭넓은 논리에 의해, 이러한 노장사상이나 힌두이즘, 단학수련등이 불교와 뚜렷하게 차별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불법의 기준에 매우 까다로워야 할 불교학자들 마저 노장사상의 강의 열풍에 굴복한 듯 '불교와 도가는 사유경향에 있어 일치하고, 큰 줄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물러서는 경향도 일부 보이고 있다. 이처럼 두루뭉실하고 줏대 없는 가르침으로 오해를 받는 불교의 현실에 대해, 불법의 올바른 잣대를 가지는 것은 새 천년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불교계의 과제다.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내가 깨달은 불법은 무실무허(無實無虛)니라(如來所得阿뇩多羅三 三菩提 於是中 無實無虛)'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러한 불법과 사이비불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한다. 즉, 불법이란 무실이고 무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선이 불법일까? 운동선수도 참선하고 신부나 목사도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참선한다. 그러한 참선은 불법이 아니다. 부처님을 지향하고 공경하는 참선이라야 참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깨어서 마음을 지켜 보라'는 힌두이즘과 '무위 자연'의 노장사상은, 무실의 요건을 갖춤으로서 불법인 듯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불법이 될 수는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부처님이 계셔야 하며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자리 잡아야 한다. 바른법으로 줏대를 세워 사이비 불법에 유혹됨 없이 즐겁게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불법의 시대인 21세기를 준비하는 참 불자의 사명일 것이다.

목탁소리

선택의 기로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지난 20일 신협사건과 관련한 교계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주지직 사퇴여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홍스님은 "신협사건은 신협 이사장으로서 책임질 일이며, 조계사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도들이 원한다면 사퇴할 것이며, 이미 주지 자리에는 마음을 비웠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사퇴하겠다는 것인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인지 듣는 사람으로서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지금 당장 주지직을 그만둔다고 해서 사건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스님의 말을 고려하면 사건해결과 사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신협 사건이후 교계 내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저런 사건은 많았으나 분명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불교계의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홍스님의 사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다.

지홍스님은 실천승가회에서 활동을 했고, 조계사 주지를 맡으면서 사찰 재정을 공개하는 등 신협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교계에서 깨끗하고 열린 마인드를 가진 스님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본의 아닌 사건으로 물러나는 것은 아깝다는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홍스님은 "종단사태 이후 제대로 인수인계조차 받지 못하고 조계사와 신협을 꾸려가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해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스님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이번 신협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조계사 신협이 다시 정상화될 것인지, 아니면 파산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당장의 사퇴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사퇴하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사퇴하든, 아니면 사퇴하지 않든 간에 그 선택은 지홍스님의 몫이고, 그 선택에 대해 지홍스님은 불교계와 사부대중에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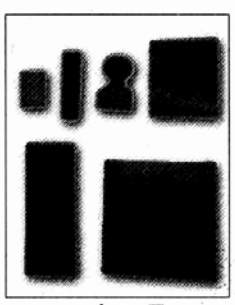
새천년 한국 전통선의 부흥과 대중화를 위한 길라잡이로 거듭날 (재)선학원에서 불교개혁 마인드를 가진 심심있고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사무행정
▶ 인 원 : 1명 나이, 성별 제한없음
▶ 특기사항 : 컴퓨터 능숙자 우대
▶ 학 력 : 전문대졸 이상
▶ 전형방법 : 1차 서류면접
2차 면접(추후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2차 면접시 지참)
▶ 접수방법 : E-mail(jaedan @nownuri.net)
FAX, 우편
2000년 10월 7일
▶ 서류마감 : TEL. 02)734-9554~6
▶ 문 의 : FAX. 02)734-3410

재단법인 선학원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행운을 따르는 벽조목

벼락맞은대추나무의 수수께끼



벽 조 목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면 모든 화를 쫓고 행운을 가져오며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에 서울롯데백화점에서는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합격을 기원하는 행운의 나무 가지기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벽조목은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여기에 진품이 있습니다.
옛 선사께서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5)742-6044
011)554-6044

제5기 불심호스피스·간병봉사자 신입생 모집

불교복지보건대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불심 호스피스 및 간병봉사 전문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식 및 간병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관리는 물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 육 내 용

- 마음, 만 생명의 근원(마음개발)
- 산모간호와 애기 돌보기
- 기초간호 실습
- 생을 초원한 동반자
- 음악과 건강
- 한의학 이론과 한방간호
- 법문 : 스님 법문
- 인간의 이해 및 봉사자의 자세
- 물리치료 및 재활요법
- 만성질환과 간호
- 임종간호와 영적간호
- 건강과 질병(노인간호)
-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 3회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간호
-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 말기환자간호 및 통증관리
- 호스피스 역사와 철학
- 건강증진법
- 경락 이론 및 맛사지
- 병원견학 및 실습

개 강 일 : 2000년 9월 29일 (금요일)
강의시간 : 2000년 9월 29일-12월 19일
강의시간 : 매주 화.금 (오후 2-5시)

수 강 료 : 15만원
(교재비/등록비 포함/분납가능)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학 장 혜도스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3-5 대아빌딩 4층

문의 및 접수
051) 462-5670



◇국내에 남아있는 진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동화사 보조국사 지눌 진영.

직지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

고승진영 1백여점 '한자리'

원효·의상스님 진영 국내 첫 사진소개

의천스님 금란가사 '공개'

우리나라 불교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뛰어난 수행자들의 초상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예배와 신앙의 대상으로만 알고있던 고승 진영을 새롭게 이해하는 뜻깊은 전시회가 열린다.

직지사 성보박물관(관장 흥선)이 사찰박물관이라는 특성을 살려 100여점의 고승 진영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전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을 마련했다.

10월 1일~11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96년 개관 이후 직지사 성보박물관이 처음 여는 특별전으로 전국 사찰에 산재해 있는 고승 진영 94점과 사명대사의 금란가사와 장삼 등 고승들의 유품과 관계자료 19점이 선보인다.

관장 흥선 스님은 "진영이란 게 얼핏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풍모가 다 다르다"며 "지금의 불교를 있게 한 고승들의 삶과 정신을 만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다시 보기 어려운 진영들과 처음 공개되는 진영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일본 고산사가 소장하고 있는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의 진영이 사진으로나마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15세기 우리나라 원효와 의상의 진영을 보고 모사했다고 전해지는 두 진영은 학자적인 모습의 의상과 막힘 없는 보살행을 행했던 원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현존하는 진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동화사 보조국사 지눌과 사명대사의 진영이 선을 보이며, 조사신앙의 한 형식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직지사 조사탱과 사실주의적 화풍으로 그려진 김룡사 소장 고승진영 5점도 만나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전시회와는 달리 현대 설치미술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 전시기법도 돋보인다. 벽면에 단순히 걸어놓는 형식이 아니라 바닥에 사각기둥을 설치해 기둥 안에 조명을 설치했고, 그 앞에 흰 천을 둘러 은은하게 새어 나오는 빛을 통해 진영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분류방식에서도 과감함이 엿보인다. 시대순이나 소장처별 나열이 아니라 다양한 분류방식을 도입해 고승 진영의 풍부한 세계를 읽을 수 있게 했다. 한 스님이 동일하게 그려진 경우와 다르게 그려진 경우, 의좌상, 독좌상, 군상 등 다양한 진영의 표현방식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전시했다. 전시장 외벽에 설치된 클로즈 업 패널 모음은 진영의 얼굴부분만 한군데 모아 놓은 것으로 이번 전시의 핵심을 한 눈에 압축해서 보여준다.

"그동안 고승 진영은 우리나라 전통 초상화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사학계에서 충분한 관심과 조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직지사 성보박물관 이용운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고승 진영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고승진영이 흥미로운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4)436-6009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진영은 한 스님을 그리기도 하지만 관계가 있는 스님들을 함께 그려 봉안하기도 한다. 직지사 소장의 조사탱.

초대형 탱화 길이 618m-무게 1t '화려하기까지'

티베트문화 대제전

29일 개막…320점 전시

최근들어 티베트와 티베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붐을 이룰만큼 높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관심에 비해 이해 수준은 아직 낮기만 하다. 달라이 라마의 성자적 이미지와 티베트 문화의 신비적 분위기만 기억할 뿐 그들의 역사와 종교, 문화에 대해선 교과서적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바로 이런 때 티베트인들의 삶과 종교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가 준비되고 있어 한국의 불자들에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고양시 호수 공원내 국제 꽃 박람회 전시장에서는 '신비의 불교 성지 티베트 문화 대제전'이 열린다. 외교통상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종단협의회, 중국 CCTV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제전에는 중국 민족궁 박물관과 소수 민족 박물관, 티베트 라사 박물관에 소장중인 320점의 보물이 전시된다.

전시품 가운데 '티베트 채색 대관'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탱화로 기네스 기록에 오른 이 탱화는 길이가 618m, 무게만도 1톤에 달하는 초대형 탱화다.

티베트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티베트 불교와 각 종교의 유래, 전설, 천문학 등 종교, 문화, 생활 등 모든 면을 망라해 하나의 그림으로 형상화했다. 달라이 라마가 공양을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 '만찰'도 눈에 띈다. 고승의 두개골을 그대로 사용해 만든 것이다. 이밖에 16세기 은으로 제작한 '천수천안관음상' 등 전시품 하나하나가 국내에선 보기 힘든 것들이다.

티베트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제자나 신도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다음 생에는 선행을 쌓아 부처가 될 것을 축복해주는 '마정수기' 의식을 비롯해 전통 악기 연주, 전통 차 시음, 색 모래 만다라 제작 시연 등을 볼 수 있다.

티베트 문화대제전 조직위원회 김계수 실장은 "일반인들에게 티베트라고 하면 막연하게 성스럽다, 신비스럽다는 느낌으로만 다가오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문화대제전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히말라야의 자연 환경속에서 이룩한 독특한 생활방식과 그들만의 문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제전은 중국 정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티베트의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혁 홍보과장은 "아무래도 티베트 문화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 보여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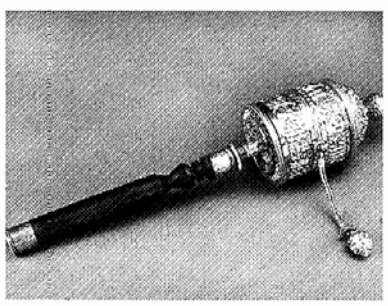
티베트문화대제전과 더불어 티베트 망명정부를 다룬 영화 '쿤둔'도 애초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기로 한 11월에 맞춰 개봉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스크린 어드밴처 정인엽 감독이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영화는 달라이 라마의 탄생에서부터 중국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 티베트에 대한 관심에 대해 티베트 불교 전문가인 주민황(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박사는 "달라이 라마의 강연록을 비롯한 티베트 관련 서적의 출간, 티베트 불교 예술전 개최 등 티베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 충족차원에서 벗어나, 불교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불교포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교계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달라이 라마가 공양을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 만찰.



◇한번 돌리면 경문을 만번 외운다는 마니륜.

문화로 종교벽 허물기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27~30일 '문화축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27~30일 서울 종로 연강홀과 여해문화공간에서 '제1회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 문화축제'를 연다. '새천년 평화의 물결이 한국에서 세계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등 6대 종교 청년 2천여명이 참여하는 종교 화합과 새로운 종교문화 창조를 위한 나눔의 장으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는 6개 종교의 청년 15명이 꾸미는 노래극 공연이다. '의자 뺏기 놀이'인 전통놀이에서 출발해 김민기의 대중가요, 마임니스트 이두성 씨의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는 노래극은 가정·학교·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폭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적 안정과 생활의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이끄는 종교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또 평화의 메아리 콘서트에서는 인기가수 리아의 축하 공연과 불교풍물패 '한여울'의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공모를 거쳐 선정된 6편의 독립영화가 상영되는 푸른영화제와 '새천년 평화의 다리놓기' 홈페이지 제작 경연대회도 열린다.

김주일 기자

문·화·단·신

불미전 공모 192점 접수

조계종이 실시하는 제1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작품 공모가 8일 마감됐다.

불교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 불교미술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에는 전통회화(탱화류) 59점, 전통조각(불상류) 18점, 전통공예 13점, 현대평면(사진포함) 62점, 현대입체(조각, 설치류) 12점 등 총 192점이 접수됐다. 237점의 작품이 접수된 지난 17회 때보다 참가작품이 다소 줄었다.

수상작은 오는 28일 조계종 총무원 게시판, 조계종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다.

가릉빈가 합창단 연주회

불교방송 가릉빈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29일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는 불자들에게 널리 애창되어온 찬불가와 신작찬불가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중앙대학교 음대 정부기 교수가 교향곡으로 만든 '지심귀명례'가 연주된다. 이 지심귀명례는 법고, 범종, 삼귀의, 천수경, 오분향례, 예불, 반야심경, 발원문, 보현행원, 사홍서원, 산회가를 한자리에 모아 장엄한 불교의식곡이다.

온양박물관 '실크로드전'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실크로드 3,000년전'이 관람객들의 호응 속에 10월 22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는 '실크로드 지역의 역사와 문물' '실크로드의 지킴이' '실크로드의 직물문화' '실크로드와 한국 고대문화'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전시되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박물관이 소장중인 고분 및 석굴사원 출토 불교미술품, 생활공예품, 금속공예 등 고대 실크로드 유물에서부터 현대 소수민족의 생활용품을 망라한 200여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자승의 세계(大·小) 산사의 향기(大·小) 연화의 세계(大·小) 탑이 있는 풍경(大·小) 산사의 꽃향기(大) 신비의 달마도(小)

석 굴 암(小) 백 련(小) 북한의 사찰(小) 선의 세계(小) 금강산의 사계(小)

■ 사진 : 안 장 현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현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겁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 : 대(30×31cm) 국6절, 가격 : 1,600원
소(26×26.5cm) 사륙12절, 가격 : 1,400원
■ 매 수 :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 100부 이상
■ 미니 차걸이 달력은 200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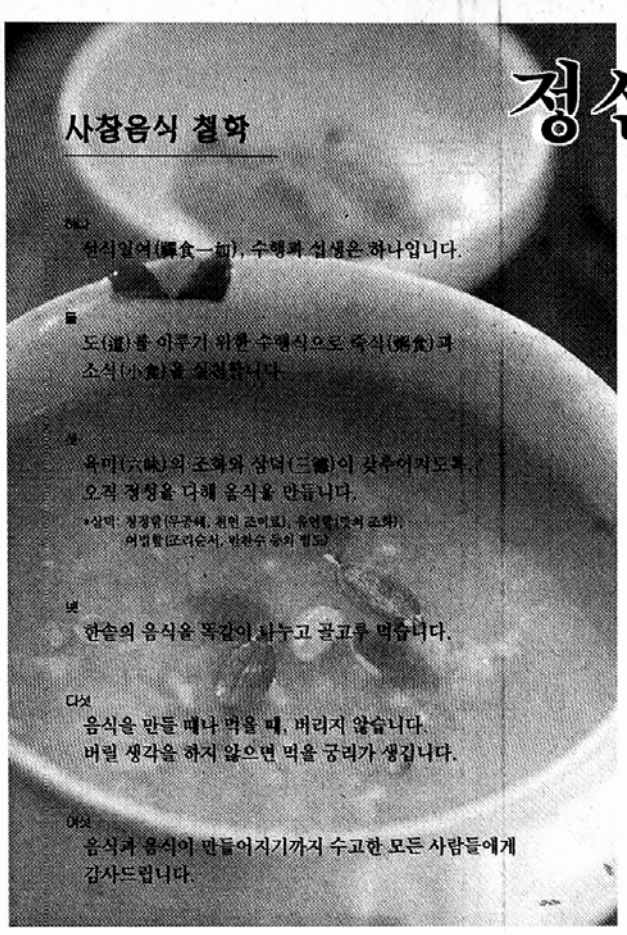
8절 대지 마닐라(14매)

◈ 종 류 ◈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환희동자
6. 홍련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묘향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산사 미륵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불
18. 보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미니 차걸이 달력 ➡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 (02)723-4306 팩스 : (02)738-8682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정신 살찌우는 섭생법 뭘까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세채 지음



수많은 요리 책이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 요리 사이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요리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 맛있고 몸에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그것을 먹고사는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보양식이다 건강식이다 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값비싼 재료로 몸에 기를 불어넣으려고 애쓴다. 그 모든 것이 장수에 대한 염원이지만, 오히려 장수는 고사하고 정신까지 탐욕으로 멍들게 한다. 먹는 것이 몸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정신수양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몸을 보양하고 정신을 살찌우는 섭생요법은 없을까.

약선식 연구가 정세채 씨(42)는 그 비법을 승가의 선식(禪食)에서 찾는다. 그가 내놓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는 선승들이 즐겨 들던 선식의 세계로 초대한다. 전강·한암·효봉 스님 등 근·현대 선승 15인이 즐겼던 선식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혜·건강·수행식을 하나로 조화시킨 '산사 선식단의 결정체'이다. 글쓴이와 가상의 수행자(연화스님)가 선승들의 수행처를 찾아가며 선승들의 수행과 일화, 장수비결, 사찰의 음식철학 등을 이야기하는 서술방식도 새롭다.

이 책은 죽(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선식의 최고 정점이 바로 죽임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주된 의도이기도 하다. 선승들의 선식 이야기 가운데 "중생이 굶주리면 수행자도 굶주려야 한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참다운 수행자가 될 수 없다"며 대중과 함께 걸보리죽을 드신 만암 스님의 일화는 수행과 섭생이 둘이 아님(선식일여-禪食一如)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탄허 스님의 잣죽과 곤드레죽, 효봉 스님의 연밥죽, 경봉 스님의 녹두죽, 사명대사의 복령죽 등 이야기는 사찰 음식의 철학적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선승들의 수행방식과 그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를 큰 축으로 승가의 음식 철학과 비법,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산야초의 효능과 활용 등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음식 이야기 말고도 이 책의 읽을 거리는 풍성하다. 산야초를 이용한 '산사의 푸른 음식' 58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선식의 비밀을 식탁에 재현했어요'를 통해 고혈압과 선식, 당뇨법과 선식, 미용 다이어트 선식 등 각 증상에 효과적인 음식 28가지를 사진과 함께 조리법, 효능을 소개한다.

이책은 음식이 양생의 근본임을 확인하게 해 주는 사찰음식철학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값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산책하듯 읽은 책 한권…경전 48권 요점정리

계환스님 '경전산책'



법회 때마다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도대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걸까. 가장 중요한 경전이 〈금강경〉이라고들 하는데 핵심사상은 무엇일까. 〈천수경〉은 또…. 불자라면 한번쯤 품어 봤음직한 의문이다. 이에 답하기라도 하듯 초기 및 대승경전 가운데 중요한 48가지 경전의 핵심을 밝힌 책이 나왔다. 계환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이 내놓은 〈경전산책〉(민족사)은 경전이 언제, 어떻게 결집됐으며 그 이름이 붙게 된 유래, 구성과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한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경전들을 꼭 읽어보고 싶게 하기 위해, 가능한 일상적인 삶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다소 도덕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경전이 결코 어려운 얘기만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책 제목처럼 산책하듯 가볍게 따라 읽다보면 그 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경전들이 하나둘 구체적으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부처님께서 어떤 내용을 설법했고, 그 말이 어느 경전에 담겨있는지 자연스레 파악하게 된다.

가령 모든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근기를 지니고 있다던데, 그 내용을 보려면 〈여래장경〉을 보면 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 〈유교경〉에 자세히 나와 있다.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엮은 노력도 돋보인다. 앞부분에 나와있는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의 결집 과정은 경전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상식이다. 값 7천5백원.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부처님 가르침 심리학적으로 접근

'생각은 있으나…' 현각스님 옮김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현각 스님 옮김, 불일)는 불법이 어떻게 서양의 심리학적 입장에서 해석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책이다. 글쓴이는 하버드대 의과대학을 졸업, 현재 뉴욕에서 개인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마크 엡스타인. 그는 들머리에서 수행의 핵심적인 질문인 '나는 무엇인가'가 심리학적인 질문이라고 전제하고 불교의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우선 글쓴이는 프로이트식의 심리학적 개념들에 익숙해져 있는 서양인들의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육도윤회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다. 이어 마음에 대한 불교심리학과 명상 그리고 치료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현대인들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나간다. 이처럼 이 책은 서양 심리학과 불교를 조화시켜 성취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눈밝은 이는 이 책이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치료하는데, 동양의 사상 곧 불교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만해스님 더 가깝게 알기

고은시인 '한용운 평전'



만해 한용운(1879~1944).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견디며 삶과 문학에 철저하고자 했던 불교사상가, 독립운동가, 시인이다. 그러면 그의 생애는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수행과 문학세계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신간 〈한용운 평전〉(고려원)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만해 한용운의 참 모습을 살피기 위해 내놓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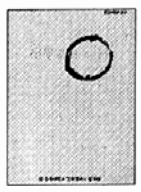
글쓴이는 고은 시인. 이 책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인간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만해 한용운을 접할 수 있는 논문이나 단행본 등 관련 서적이 적지 않지만 비평부족으로 인해 위인화(?)됐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한용운 평전〉은 만해 한용운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한다. 또 작품세계에 대해서도 '님의 침묵' 등 몇몇 작품의 평에서 벗어나 총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

글쓴이는 그 동안 가려졌던 '한용운의 그늘'을 지적한다. 아들을 두었지만 평생 돌보지 않았던 점, 출가한 이후 교단의 계율을 무시했던 점, 스님들에게 대처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총독에게 올라가기도 했던 일, 그리고 그의 시들이 모두 우수한 것이 아니라 몇 편의 좋은 시를 빼면 수준 이하의 작품들이 있다는 것 등을 들춰낸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해도 인간적인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위인을 만들기 위해 그런 면모들을 덮어버리거나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이 책만큼은 그런 범주에서 한걸음 벗어난 것 같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선불교의 이해(성본 스님 지음,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 네 번째 권. 선불교의 용어와 정신에 대한 이해, 선의 기원 그리고 선불교를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 자기 존재의 근본을 깨닫고 수행정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선불교의 개념과 정신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선을 생활화 하는데 길잡이로 삼을만하다. 이 시리즈는 법보시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값 3천원.



▲보현행원품(무비 스님·조현춘 공역, 우리)=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서. 범어본, 영어본, 한글본을 참고하여 일반인들이 독송하기 편리하도록 반야선사의 중국한어역을 대역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또 경전상의 산문부분인 장항(長行)과 운문 부분인 게송을 구분하고 각주를 붙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값 5천원.



▲천수경 천수신앙(혜국 스님 지음, 효림)= 새벽예불 때 도량석을 하거나 모든 법요식에서 제일 먼저 독송하는 것이 바로 천수경. 불자가 아닌 사람도 그 이름은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겐 친숙한 경전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용은 건성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경전 이름의 유래부터 핵심 내용인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이했다. 값 5천원.



▲금강경의 연구(심가정 지음, 임우재 옮김, 미주현대불교)= 미국에 거주하는 심가정 거사가 〈금강경〉을 해설한 일종의 주해서. 이 책이 다른 주해서에 비해 돋보이는 것은 재가불자로서 매일 〈금강경〉을 독송할 정도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글쓴이의 체험이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쉬우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재가불자의 수행지침서나 불교입문서로도 안성맞춤인 책. 값 7천원.



▲피어라 풀꽃(이남숙·여성희 지음, 다른세상)= 우리 나라에서만 자라는 대표적 풀꽃 220여 종을 선별, 생태와 문화적 의미를 담은 자연환경서.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풀꽃을 다루기 위해 서식환경에 따라 산과 들, 고산, 연못과 늪, 바닷가, 건조한 곳으로 분류하였고, 관상·유용·고유·외래 식물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벌과 나비는 왜 꽃을 찾는지, 풀꽃의 이름은 어떻게 짓는지 등 풀꽃에 대한 궁금증을 식물학적으로 알기 쉽게 적고 있다. 값 1만3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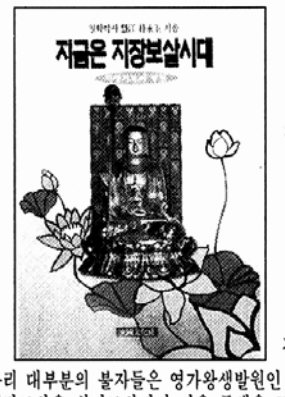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심천사월요법	박 남 희	정신세계사
3	아난존자의 일기1	원나시리	운 주 사
4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 낫 한	지혜의 나무
5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6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7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 족 사
8	전생가기 참 쉽다	설 기 문	도 솔
9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10	쉽고 깊이읽는 불교입문	주 민 황	숨

도서 안내:(02)737-0695

새천년, 미얀마에서 전해온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
아난 존자의 일기 1-4


원나 시리 지음, 벌라 옮김
신국판/각권 306쪽/각권 8,000원
아난 존자가 일생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생애!
아난 존자는 출가 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봉들던 제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부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던 아난 존자가 전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철저히 경전의 기록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부처님 일대기와 그 가르침!
이 책은 방대한 빠알리 원전과 주석서, 소초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 편으로 부처님의 숨결과 수행방식이 아직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존의 부처님 일대기와는 다른 새로운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 3672-7181-5

철학박사 慧江 朴永玉 지음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지장기도의 영험
지장기도 영험록
영가천도는 왜 해 주어야 하는가?
영가의 장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장기도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지장기도의 위력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능력을 되새겨 본다.
— 박 혜강 —
값 : 8,000원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영가왕생발원인 천도재를 올릴 때만 지장기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이며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시고 현세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도 대자대비로 인도하고 구제하시는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늘과 땅이 울리고 뱃속 깊은 곳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음성!
지장보살님이시여! 현세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액과 고난이 어디에서 올까요? 혼히 말하는 전생의 업장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님들은 이 세상의 힘든 모든 일들이 나의 업이려니 하고 체념할 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세에서 받는 고통 가운데 50%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전생의 업이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연을 맺은 수많은 인연법과 수많은 조상님의 영향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불자님들의 답답함에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많은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위신력이야말로 어떠한 글과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두서없는 글로 인하여 부처님이 욕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 뿐입니다.
■저서/초발심자의 기초교리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대한불교 관음사 관음불교 교양대학
주지 학장 혜강 박영옥합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6의 1호
TEL : 02)917-3854, 917-0408
FAX : 02)3675-3854
총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3층
TEL : 02)3672-7181~5
FAX : 02)3672-7186

"교관이문쌍수의 실천덕목 대립구조를 화합으로"

제3회 천태국제학술대회 한·미·일·중 학자들 참석

"경전은 불법을 담고 있는 그릇이지, 그 자체로 진리는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천이다." 22일 서울 관문사 옥불전에서 열린 제3회 천태국제학술대회에서 데이비드 W. 채플(미·하와이대) 명예교수와 가와가츠 마모루(일·다이쇼대) 교수는 이론과 실천이 일치해야 한다는 〈법화경〉의 교관이문쌍수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천태사상 중 교관이문쌍수는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니며 우리가 불법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데 착안한 두 교수는 "교관이문쌍수(敎觀二門雙修)는 종교간의 벽 대신 다리를 놓고, 지구촌 문명을 분열시키는 대신 하나로 엮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

또한 "오늘날 전쟁·살인·약탈 등의 반문명적 행위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종교인과 다른 종교인' 간의 대립에서 비롯됐다"며 "교관이문쌍수의 실천덕목은 대립의 구도를 화합으로 돌리는 회삼귀일(廻三歸一)과 일불승(一佛乘)에 근거한 불국토를 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명이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창안되는 만큼, 문명간의 충돌 역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천태사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천태불교와 지구촌'을 발표한 데이비드 교수는 "경전의 의미는 추상적인 형태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 반응하고 경전을 통해 변화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된다"며 "경전이 지향하는 궁극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에 따르면 〈법화경〉은 마하가섭의 광덕(光德), 수보리의 보생(寶生), 목건련의 음악(意樂) 등으로 이미 불국토의 실체와 정신을 기록해 놓았지만, 정작 이 경전을 읽는 후대 사람의 불국토를 향한 실천적 노력이 부족해, 그 세상을 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와가츠 교수 역시 '천태사상의 문명론적 신해석-화합의 사상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교관이문쌍수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법화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실단의(四悉檀義)' '사종석(四種釋)' '사중흥폐(四重興廢)' 등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단의 등은 천태사상에 있어서 관단 기준·이해 방법·분석 입장 등의 사고 양식을 설명한 것으로, 불교의 이해와 실천 즉 부처가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 혹은 진여나 불성 등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받으면 '무엇 무엇이다'라고 간단히 대답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실천으로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와가츠 교수는 "〈법화경〉에서 보여준 깨달음은, 의미나 내용이 아니라 깨달음의 궁극적인 실체를 이해시키는 데 있다"며 "이것의 초석이 되는 게 〈법화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실단의와 사종석 그리고 사중흥폐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학술회의에는 '21세기 문명과 법화사상'(권기종·동국대 교수), '문명의 전환과 천태·법화사상'(강건기·전북대 교수), '21세기 천태 이론의 신앙'(황샤녠·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교수), '천태 성구실상 분석'(쇼치·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교수), '올 수밖에 없는 세기를 향하여'(다다고쇼·일본 다이쇼대 교수), '미얀마의 불법'(우 싼 린·종교성 국장) 등이 발표돼, 부처님과 천태 지자 대사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조명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준비한 지천규(천태불교문화연구원) 박사는 "국제학술대회가 천태학 연구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국내 천태학 연구는 대장경에 수록된 천태사상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천태종 부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22일 서울 관문사에서 마련한 '제3회 천태국제학술대회' 모습.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백운직지심요'로 부르자

김성수 교수 주장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첫 금속활자로 인쇄한 민족'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이 경전의 긴 이름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

18일 열린 '직지와 불교문화' 주제 세미나에서 김성수(청주대·사진) 교수는 "이 경전의 약서명(略書名)은 '백운직지심요'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김 교수가 발표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약서명에 관한 제언'에 따르면, '직지심경'이라는 명칭 가운데 경(經)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용어다. 따라서 '경'이라 불렀을 경우 이 경전의 내용을 부처님의 교설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불조직지심체요절'로 지칭할 경우 1351년 중국 선사인 석옥청공 스님이 지은 〈불조직지심체요절〉과 구별이 불가능해지므로 문제가 있다. 직지·직지심체·직지심체요절·불조직지심체 역시 석옥청공 스님 선서의 약서명으로 적당할지 모르나 백운경한 스님이 증보·초록했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다른 스님의 비슷한 이름의 선서와 구별할 수 있고, 또 이 경전을 저술한 백운경한 스님의 본래 취지를 모두 포함하는 '백운직지심요'가 가장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직지의 약서명은 지금까지 직지심경·불조직지심체요절·직지·직지심체·직지심체요절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는데, 이 때문에 국내·외 학자들은 서로 다른 자료로 오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세미나에서 성기서(서원대) 교수의 '불조직지심체요절과 위빠사나 수행법 비교', 황선주(서원대) 교수가 '직지는 금속활자본인가' 등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직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청주청원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청주불교교수회가 주관해 마련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삼화사 불교학술 강연

동해 삼화사(주지 원행)는 10월 5일 오전 10시 적광전에서 '21세기 인류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국제불교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양증문(중국사회과학원) 교수의 '화엄종의 법계원융사상과 21세기 문명' 등이 발표된다. (033)534-7661

인쇄출판 학술회의

청주시는 28일 오전 10시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금속활자의 발명과 인쇄문화'를 주제로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문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금속활자 인쇄술'(천혜봉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된다.

조계종 '성보' 2호 발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자)는 18일 〈성보〉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조선 초기 다포식 건물이 발견돼 이목을 집중시켰던 '상원사 적멸보궁에 대한 조사보고서'(이강근)를 비롯해 '개암사 응진전 16나한상'(김정희), '오어사의 불교공예품'(최응천) 등의 논문이 실려있다. (02)739-1830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대학연합회

유럽불교와 교육 자세한 정보

유럽에서 부처님의 수행과 교리를 펴고 있는 단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은 바로 불교대학연합회(Buddhist University Association)이다.

연합회는 유럽의 모든 불교대학 조직이 망라된 센터로, 불교학의 요람을 보호하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회의 활동과 사업을 살펴보면, 유럽 불교대학의 위상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연합회는 모든 불교종파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사이트에서는 유럽 내 모든 불교대학의 연혁·목표·사업 등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다.

연합회는 1995년에 설립돼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연합회는 매년 유럽의 불교대학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유럽불자대회'를 마련하면서, 유럽 불교인이 서로 협력하고 친분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 왔다. 유럽 불자들의 공감대 형성에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한 셈이다.

'사업' 메뉴에서는 연합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즉 유럽의 불교대학과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유럽 불교대학 목록집'(yellow book)을 만들고, 유럽 불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목록집 발간은 유럽에 있는 각종 불교 대학, 센터, 불교학자 인명 등의 목록을 최신 정보로 정리, 유럽 불교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정보는 2001년부터 인터넷으로도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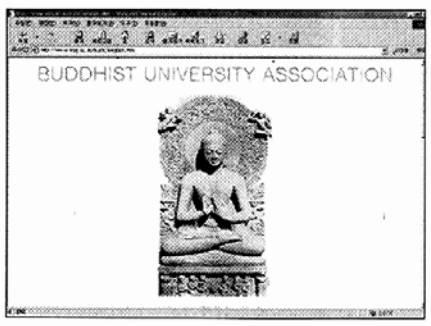
또 '불교와 교육'은 유럽 불자들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불교 교리 교재를 발간하는 사업이다. 이렇다할 교재가 없어 시작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불교교육 관련 교재 목록과 불교 교수법 관련 목록집을 준비해 불교 교육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맹은 불교 종파간 이질적인 교리에 대한 관점을 서로 교환하고 배우며, 다양한 연석회의를 통해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97년 프랑스에서 열린 연합회의 연석회의에서는 티베트 불교와 인도 불교 등 다양한 종파에서 재가불자에게 권하고 있는 생활선(禪)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연합회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타종교 단체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종교간 이해와 조화를 모색하는 모임인 연합회 부설 '유럽의회'는 유네스코(UNESCO)와 같은 국제 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닐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불교대학연합회의 라마 데니스 툰드로프 공동회장은 "유럽에 있는 불교대학과 기타 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연합회의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http://www.sbg.ac.at/budd/



해인사 유물전시관 연말 개관

법보 종찰인 해인사의 유물전시관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경남 합천군과 해인사는 13일 "연말께 가야면 치인리 옛 해인초등학교 1만4천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해인사 유물전시관을 완공해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백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4년만에 완공될 해인사 유물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천6백여㎡의 규모로 현재 85%의 공정이 진척된 상태.

이 전시관에는 불교와 관련된 224점의 유물들이 보존되는데 지하 1층 불화실의 경우 탱화를 비롯, 16나한상, 육불좌상, 사자상 등 불상들이 전시되고 지상 1층 역사실에는 불교 서적과 편액(扁額), 족자(簇子), 인장(印章), 청자다기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2층에는 장경판전 모형과 팔만대장경 판각 전경 등이 전시되며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백남준씨의 아트비전이 설치된다. 오종욱 기자

"재가중심 종단개혁 필요"

윤승용 박사 선우도량 세미나서 주장



"불교가 재가불자의 삶 속으로 파고들지 않고서는, 21세기 사회의 주류 문화에서 언젠가는 도태되어 종교로서 생명력을 잃고 말지 모른다" 윤승용(한국종교연구회 연구위원·사진) 박사가 19일 열린 선우도량의 '교단정화운동과 조계종 정체성' 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지적해 주목된다.

논문에서 "21세기에는 종교의 형태뿐 아니라 사회적 위상도 크게 변모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제한 윤 박사는 "재가불자는 이전의 불교와는 다른, 인간의 얼굴을 하고 다가서는 불교를 찾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불교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고, 그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박사는 ▲21세기 시대정신인 작은 신행 공동체 구축과 연대를 기반으로 종단체제를 재구성하고 ▲재가불자 중심의 신행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번 세미나에는 월주(조계종 前 총무원장) 스님의 '정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포리(美 칼튼대) 교수의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한국불교', 김광식(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박사의 '정화의 전개과정과 성격', 박승길(효성가톨릭대) 교수의 '한국현대사와 정화' 등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

18년 동안 300여 쌍의 영혼결혼식 주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베푸는 설산 스님의 인간적인 따스함



설산스님 에세이

알몸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 스님의 구도 에세이

· 영혼결혼식, 그 질긴 인연의 끈
· 여배우의 젖가슴에 써 내려간 반야심경
· 스님의 약혼식
· 한 영혼과 대면하다
·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 내가 체험한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
· 영혼은 반드시 있다
· 나의 죄는 내가 전생에서 빌어 온 것이다

★ KBS 아침마당 목요초대석 출연

오늘밤 나는 알몸이 되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의 시린 가슴을 받아주고 싶다
그 알몸으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등불이 되고 싶다

*Home Page address:http://www.seolsan.com / *저자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Tel:303-0024) ♠무료 영혼결혼식에 관련된 문의를 받습니다.

도서출판 청어람 삐삐 대표전화 586-0477 팩시밀리 580-0478

사랑 우러날때 세상 아름답다

박태원 교수가 쓰는 **불교로 보는 인생** 5

혈연·지연·이념에 갇힌 애정 위험
자비는 울타리 넘은 보편적 사랑

사랑, 그 아름다움과 추함

'아들아, 이제 전쟁 술래잡기 게임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에만 들키지 않고 숨어 있으면 일등상은 우리 것이다. 탱크가 상품이란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오지 말고 꼭꼭 숨어 있거라!' 숨어 있는 아들에게 장난처럼 웃고 손 흔들며 총살당하려고 골목으로 끌려가는 아버지. 어린 아들의 유희적 동심이 인종 차별과 학살의 야만적 현실과 고통에 의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광대짓을 연출해 가는 아버지의 슬픈 희극 연기. 곧이어 들리는 총성.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눈물겨운 장면이다. 과연 인생은 아름다운가? 상처 깊은 한숨과 낙루의 현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기? 어처구니없는 야만적 인간사. 그러나 사랑이 있기에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리라.

나이 먹으며 그 어느 때부턴가 부모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게 된다. 부모에게 격정거리 안겨 드리고 싶지 않아 힘든 일 입밖에 내지 않고 혼자 감당하거나, 짐짓 사실과 다르게 고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리고 그럴 때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 대신 묘한 온기의 정감이 번져난다. 부모에게 향하는 자식의 사랑이다.

타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희구의 정감. 타산 없이 우러나 펼치는 그 따뜻한 기운은 분명 생명 건강의 원천이라 하겠다. 뭇 생명들이 이런 기운으로 교감하며 관계 맺는다면 가히 아름다운 세상이라 하겠다. 생명은 본능적으로 이런 사랑의 면모를 지닌 듯하다. 인간이건 짐승들이건 간에, 부모 자식과 같은 가까운 혈연 관계나 음양의 이성(異性) 관계에서는 그 사랑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펼쳐진다. 별다른 노력이나 훈련 없이도 우러나는 본능적 충동이다. 다만 혼자 생존할 수 있게 되거나 생식기가 끝나면 서슴지 않고 결별하는 짐승의 경우와는 달리, 인간은 그 독특한 문화적 능력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그 사랑을 유지, 강화, 성숙시켜 나간다.

그런데 인간의 이 본능적 사랑은 너무도 쉽게 이런저런 울타리에 갇혀 자칫 폐쇄적이며 협소해지곤 한다. 내 자식, 내 부모 사랑이 남의 부모 자식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핏줄이라는 울타리, 지역, 종교, 민족, 국가, 인종, 이념의 울타리에 사랑의 기운은 쉽게 갇혀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렇게 갇혀버린 사랑은 비록 강렬하나 답답하고 위험하다. 생각해 보라. 인간 역사의 피 흘리는 고통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유태인 대학살의 이면에는 게르만 민족의 독선적 자기 사랑이 도사리고 있지 않던가? 한반도의 남북 전쟁을 주도한 것은 유별난 이념 사람이 아니던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피 뿌리고 있는 종교 분쟁은 자기 종교에 갇혀 버린 사랑들의 준동이 아니던가?

인간은 복잡한 면모를 동시에 지닌 존재다. 아름다운 사랑의 면모를 지니는가 하면, 타자 부정의 칼날 같은 야만성의 뿌리 역시 깊고도 튼튼하다. 이 야만의 얼굴은 사랑의 면모를 쉽게 왜곡시키곤 한다. 때로는 가족적 혈연이나 지연(地緣)을 울타리로, 때로는 민족, 인종, 이념, 종교의 벽으로 막아 왜곡하곤 한다. 그렇게 왜곡된 사랑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공격과 증오의 동력으로 악용된다.

사랑이라는 힘의 이 양면성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해법으로 보편적 사랑을 꿈꾼다. 혈연, 지연, 이념의 벽을 허물고 본래의 그 아름다움을 만개할 수 있는 '울타리 넘는 사랑'을 추구한다. 그러자면 인간 특유의 문화적 능력을 고도화시켜야 할 터. 사랑을 왜곡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의 지성과 윤리 능력을 계발하고 성숙시키며 실천해야 한다. 철학, 종교, 문학, 예술 등 인간의 모든 문화 영역에서 우리는 인간의 그러한 노력들을 대면하게 된다. 울타리 넘는 사랑(普遍愛)의 아름다운 희원(希願)을 땅 위에 실현해 보려는 그 빛나는 노력들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부처님의 자비는 '울타리 넘는 사랑'의 절정이다. 강렬하면서도 확 트인 부처님 사랑이라면 세상은 분명 아름다우리라.

울림픽은 야단법석(野壇法席; 야외에 차려놓은 진리 추구의 자리)이어야 한다. 금메달에는 웃고 은메달, 동메달에는 운다면, 올림픽은 국가 울타리에 갇힌 추한 사랑의 각축장이 되고 만다. 올림픽은 함께 어울려 뛰고 뒹굴면서 '울타리에 갇혔던 사랑'을 해방시키는 야단법석이어야 한다. 서로 최선을 다해 밀고 밀리다가 물씬 풍겨나는 땀 냄새에서 진한 인간애와 우정을 맡고 어깨동무하며 얼싸안을 수 있어야 한다. 승자의 오만, 패자의 한숨이 한 바탕 웃음으로 녹아나야 한다. 그리하여 사랑을 추하게 왜곡시키던 그 허망한 울타리들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때, 야단법석 가득히 울타리 넘은 아름다운 사랑의 야생화가 눈부시게 피어나리라.

울산대 철학과
(twpark@uou.ulsan.ac.kr)

명문 웨베첼大 티베트불교 연구

세계의 불교학 〈27·끝〉 멕시코 ②

크레스톤市 10개탑 '불교정착' 상징
스님 초청강연·신행단체 설립 활발

북미와 남미를 잇는 관문, 리오그란데 지역에서 불교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곳은 멕시코의 의곽 도시 크레스톤(Crestone)이다. 이 곳에 불교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초. 티베트 불교 게규파에서 미국인 법사를 크레스톤의 불교 담당으로 임명, 불교 정착을 시도할 때부터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처음에는 지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후 1988년부터 미국과 티베트 등의 불교 단체와 교류가 시작되면서, 크레스톤 불교의 서막이 올랐다.

이 서막은 타시 고망 탑(Tashi Gomang Stupa)을 세우는 데서 비롯됐다. 이 탑은 크레스톤 불교계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크레스톤 불교회의 태동을 뜻한다. 특히 불교회가 지역민들로부터 합법적 종교단체로 인정되었던 1989년은 크레스톤 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불교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 관련 서적·잡지를 번역·출판하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스님들을 초청해 강연회와 법회를 활발히 전개했다. 불교 관련 특별한 성물이 없었던 크레스톤에 타시 고망 탑을 세운 시기도 이쯤이다.

까르마 도르지 스님이 미국과 멕시코 불자들의 후원으로 세운 이 탑은 높이 8미터 가량의 석탑이다. 하얀색 대리석과 황금색 찰주(탑의 맨 윗부분)로 되어 있는 이 탑은, 멕시코에 불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교회의 활동과 그 영향력은 법당 운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율 법당'이라고 불리는 이 법당은 주중에도 늘 개방되어 있는데, 평균 70여 명의 신자들이 스스로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곳은 불교 고유의 수행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율 법당은 서로의 관심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고 때론 강좌를 개설하는 배움의 장이다. 그래서 이 법당을 찾는 멕시코인 가운데에는 동양의 학과 무술 심지어는 풍수에 관심 있는 불자들도 많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크레스톤에서 티베트불교도교우회(TBF)가 처음 결성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불교는 크레스톤뿐만 아니라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교우회는 시내 중심에 법당을 마련해 놓고 주말에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이 단체는 서양에 전해진 티베트 불교를 서양인에 맞게 재해석해 불교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있어, 명실공히 크레스톤에 굳한된 지협적 불교를 멕시코 전역에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쪽에서 전해진 티베트 불교가 서양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크레스톤에 세워진 '타시 고망 탑' 모습.

1993년에는 달라이 라마가 이곳을 비공식 방문했는데, 이 일은 멕시코인들의 마음에 불심의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은, 이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높아졌고, 티베트불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에 대한 관심과 불자증가는 타시 고망 탑 외에도 나그파 에체 탑, 게규 데키 탑 등 10여 개의 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후 멕시코의 불교는 명문 우베첼 대학 동양학과에서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비롯해 티베트의 교육·문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티베트 문화를 연구 소개하는 비영리 학술 단체 '멕시코-티베트 문화회'가 설립되는 등 학계와 민간연구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997년에 창립된 문화회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제 교류 창구인 '티베트 하우스'의 타랍 툴쿠(Tarab Tulku) 스님을 초청해 티베트와 멕시코 불교에 관한 강연 등을 주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일본 임제선 계통의 참선모임도 있다. 불교회나 티베트불교도교우회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체계적인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연꽃의 가르침 따라 맑고 향기롭게 삽시다"

법회중계

만일염불 100일 회향

〈2000년 9월 13일〉



보광 스님
〈정토사 주지〉

뿌리·잎·줄기·꽃·열매서 육바라밀과 겸손 등 부처님 세계 엿볼수 있어

더운 여름도 어느 듯 지나가고 이제는 시원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밤이면 뀌뚜라미 소리가 울리며, 나뭇잎들도 가을 맞이 준비를 하는 듯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동안에 대단히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개산 초기부터 발원한 만일염불결사(万日念佛結社) 입재식도 6월 6일에는 가졌으며, 오늘은 제1회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곳 청계산 기슭에 정토도량를 개산하면서 〈아미타경〉에 나오는 정토의 세계처럼 도량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칠보로 된 나무가 일곱 줄로 늘어 서 있으며, 칠보 궁전에는 아미타불을 비롯한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량에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심어서 해마다 여름이면 온 도량에 연꽃이 가득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연꽃이 피었습니다. 그야말로 연화장 세계를 연출하였습니다. 5월부터 새싹이 나기 시작한 연못에는 물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잎 위에 개구리도 앉고 올챙이도 앉으며 잠자리도 날아다닙니다. 그 밑으로는 비단잉어와 붕어와 자라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이 되면 새로운 잎이 돋아나서 2미터가 넘는 키로 자라며, 우산 만한 큰 잎으로 연못이 가득합니다. 7월에 접어들면서 연꽃이 피기 시작하여 8월말까지는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고 지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보고 있으면서 저는 무한한 행복감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잎이 나면서부터 온 도량에는 상큼한 내음으로 가득하게 되며, 아침공양 후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지(蓮池)를 감상하게 됩니다. 푸른 청계산과 장엄한 극락전과 붉은 백일홍과 아름다운 연꽃의 조화는 한 폭의 극락도(極樂圖)와도 같습니다.

여름내 연꽃을 관(觀)하면서 무언(無言)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뿌리는 오염된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풍요로운 연근을 제공하므로 항상 남에게 베푸는 보시(布施)를 배웁니다. 잎에 내린 물방울은 모두다 굴러 내리어 물들지 않으므로 청정한 지계(持戒)를 배웁니다. 외줄기로 솟아난 가지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므로 고독한 인욕(忍辱)을 배웁니다. 줄기의 끝에 오직 한 잎만이 펴고 있으므로 외길로 오로지 하는 정진(精進)을 배웁니다. 높이 솟아나는 줄기는 속이 텅 비어있으므로 선정(禪定)을 배웁니다. 아무리 큰 잎일지라도 처음부터 펴지 않고 송곳처럼 말아서 뾰쪽하게 돋아나므로 남과 다투지 않는 지혜(智慧)를 배웁니다.

외줄기에 아름다운 꽃만을 피우므로 고결함을 배웁니다. 꽃이 피면서 열매도 함께 맺으므로 동사섭을 배웁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언제나 머리를 숙이므로 겸손을 배웁니다. 향기는 늘 은은하므로 은둔을 배웁니다. 한가지 꽃이지만 피는 과정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며, 꽃의 색깔에 따라 이름이 다르므로 방편을 배웁니다. 올 여름에도 지리산 쌍계사에서 보내온 우전차(雨前茶)로 연향차(蓮香茶)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연꽃에게는 미안하여 일년에 한번정도만 빼어내어서 귀한 손님이 올 때 대접합니다만, 너무나 향기롭고 감미로워서 항상 마시고 싶답니다.

〈관무량수경〉에서 "염불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 분다리화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분다리화란 연꽃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백련화(白蓮華)를 두고 하는 말인데,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염불하여 분다리화와 같이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연꽃을 관(觀)하면서 부처님의 세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합시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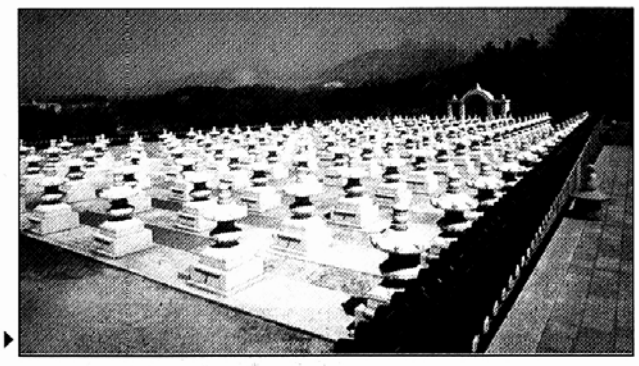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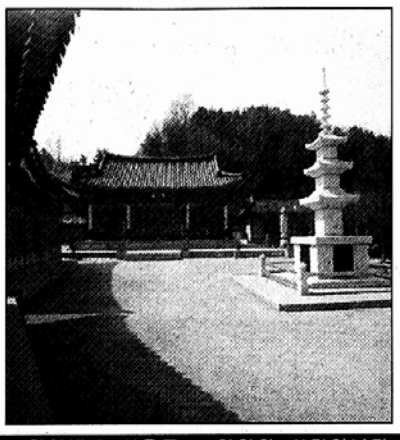
영탑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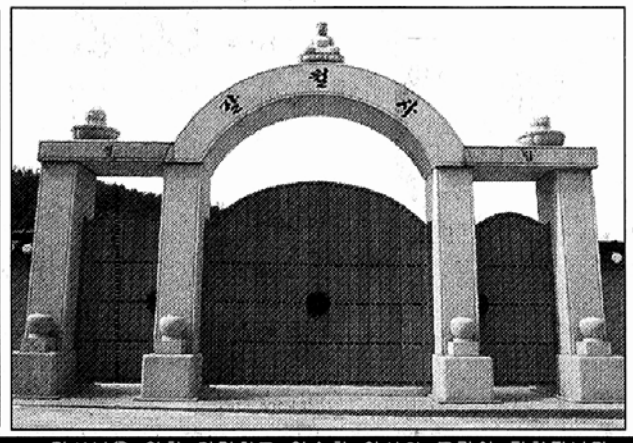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1)905-6368 / 011)9934-3512



◇영통사 5층석탑(중앙) 및 동·서 3층 석탑. 북한 국보 37호·38호 및 북한 보물 35호로 지정된 이 탑들은 고려초 영통사를 창건할 때 세워졌다.


◇화장사 사리탑(북한 보물 34호·14세기). 팔각 기단석 위에 종 모양을 한 사리탑은 뻐어난 연꽃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흥국사지와 흥국사 탑. 1021년에 세워진 흥국사 탑은 북한 보물 31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룡사 법경대사비(944년)


◇첨성대(고려초) 천문관측기구를 올려 놓았던 곳


◇영통사지 대각국사비(북한 국보 36호·고려초)

경의선 복원 가시화…열리는 古都 개성

곳곳에 사찰…"고려불교의 寶庫"

홍왕사지 2800칸 건축군 흔적남아

의천스님 출가지 영통사 복원 움직임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 왕조의 500년 도읍지 개성. 이 곳의 불교 유적·유물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서고 있다. 남북한이 반세기 동안 끊어진 경의선을 복원키로 합의, 남측은 지난 18일 착공식을 가졌다. 경의선이 복원되면 서울에서 개성까지 채 두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문헌과 사진 자료만으로 머리 속에서만 그렸던 개성의 불교 유적·유물이 두 시간 남짓이면 현실 속에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개성은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말이 전해올 만큼 번창했던 고도(古都). 따라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불교 유적은 왕궁을 감쌌던 개성성 안팎에 흩어진 사찰 유적과 유물이다.

조선 중기의 한 기록에는 유명한 사찰만도 성내에 300곳이 있었고, 현재 절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100개가 넘는다고 했다. 태조 왕건이 건국 이후 궁궐 주변과 송악산 기슭에 25개의 절을 지었다는 기록도 있다.

일제말 개성을 답사하고 〈송도의 고적〉을 썼던 故 고유섭 박사에 따르면, 황성과 궁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찰만도 법왕사지, 광명사지, 일월사지, 흥국사지, 귀산사지, 안화사지, 왕륜사지 등이 있으며, 개성성 일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수의 사찰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의 건축·석조 예술의 우수성 역시 불교와 관련된 유적·유물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흥왕사지는 1055년부터 1067년까지 12년 간 건설한 절로서 2천800 칸이 넘는 크고 화려한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1018년 고려 8대왕 현종이 선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다는 현화사와 안화사 역시 아름다운 건축미로 사람들을 황홀하게 하였다고 한다.

개성역사박물관에 소장된 현화사 7층 석탑은 이 시기 조각 예술의 발전 모습을 보여준다. 지난날 일제 침략자들은 이 탑을 약탈해가려고 해체하여 개성역까지 싣고 갔다가 개성 사람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본래의 위치에 가져다 세웠다.

고려 16대왕 예종 때 세운 연복사에는 2백여 척이나 되는 석탑이 있었고, 우리 나라의 5대 명종의 하나인 연복사 종이 달려 있었다. 연복사는 1563년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지만, 연복사 종은 현존해 당시의 예술혼과 불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개성 먹안리에 있던 개국사는 고려의 10대 사찰의 하나로 그 규모와 화려함이 대단했다. 현재 개국사가 세워졌던 터에는 석등과 7층탑 등이 남아있다. 흥국사 석탑도 고려 초기의 석조 조각기술을 보여주는 역사 유물의 하나이다. 이 석탑은 1021년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던 구주성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강감찬 장군의 제안에 따라 고려 왕궁 동남쪽 흥국사 터에 건립했다.

화장사에 현존한 '지공정혜령조지탑' 역시 름직하기 두 겹으로 된 연꽃잎을 새긴 조각솜씨에서 당시의 기예를 엿보게 한다. 용흥동 영통사 터엔 영통사 5층탑 및 동·서 3층탑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불교적 업적을 새겨놓은 대각국사비가 있다. 영통사는 의천 스님이 출가해 불법을 익힌 사찰. 현재 발굴 중이며 2001년 의천 스님의 열반 900주기에 맞춰 일부 유적이 복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고도에 왕궁과 왕릉이 빠질 수 없다. 개성 송악동에 있는 고려 왕궁 만월대. 웅장했던 건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돌계단과 건물 주춧돌만 쓸쓸히 남아 있다. 왕궁터는 약 38만평. 만월대의 모형은 개성역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곳 만월대 터엔 고려 천문관측기구인 첨성대가 있다. 이 첨성대는 그 자체가 천문관측기구였던 것이 아니라 관측기구를 올려놓는 받침대 역할을 한 보조기구였다. 개풍군 해선리엔 태조왕건릉과 공민왕릉이 있다. 공민왕릉은 공민왕과 부인 노국공주 인덕왕후의 무덤이 나란히 붙어 있다.


◇현화사 7층석탑(북한 국보 40호 1022년)

충절의 상징인 선죽교와 표충비 그리고 서경덕, 황진이와 함께 송도 3절의 하나인 박연폭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박연폭포는 개풍군에 있으며 높이는 약 20미터. 박연폭포 용바위엔 황진이가 머리채로 썼다고 하는 글씨를 새겨 놓았다.

또한 개성시 부산동엔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과 북한의 국보와 보물을 전시하고 있는 개성역사박물관이 있다. 이외에도 개성에는 목청전, 경덕궁, 개국사 석등, 대흥산성관, 관음사, 안화사, 화랑사 부도, 오룡사의 법경대사비, 팔좌동비, 관덕정, 호정, 구군정 등도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개성의 유물·유적

관음사 (고려 중기·현존) 왕과 관료들의 시회·연회 장소로 많이 애용된 곳. 인근에 박연폭포가 있다.

안화사 (1018년·현존) 고려 현종이 죽은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다.

법왕사지 (920년) 팔관회 등 국가 차원의 불교행사를 주관했다.

만월대 (919년) 고려왕조 전기간에 걸쳐 왕궁이 자리 잡고 있던 유적.

황성·궁성 (919년) 고려 왕궁은 황성·궁성으로 나뉘는데, 궁성의 넓이는 39만 평방미터.

성균관 (1089년) 고려 최고의 교육시설. 대성전과 명륜당 등 20여 채의 건물이 있었다.

선죽교 (1216년) 당시 이름은 선지교. 정몽주의 피살 이후 선죽교로 부르게 됐다.

연복사지 (고려 예종) 1563년에 모든 전각이 불탔다.

남대문 (고려 초) 개성성 내성의 정남문. 문루에 연복사 종이 걸려 있다.

왕건왕릉 (고려 초) 왕건의 유언에 따라 소박하게 지어졌으나, 해방 이후 재건됐다.

공민왕릉 (1365년) 석조 조각이 우수한, 고려 말 왕릉 형식을 대표하는 고분.

국청사지 (1303년) 나성 서쪽 밖에 위치해 교통과 국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영통사지 (1027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1065년 출가한 곳.

화장사지 (1370년) 지공 스님의 부도인 '지공정혜령조지탑'이 있다.

개성성 (919년) 고려의 수도성으로 나성(羅城)이라고도 부른다.

흥왕사지 (1055년) 고려 초기의 대표 사찰로 2천 800칸이 넘는 규모였다.

개국사지 (고려 초) 고려의 10대 사찰 중의 하나. 현재 개성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석등이 유명하다.

왕륜사지 (920년) 고려 건국 초 궁궐이 정비되지 않아 이곳에서 국사를 논했다.

불일사지 (951년) 고려 왕의 행궁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불일사 5층탑(북한 국보 35호)이 유명하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잠이 깔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 240,000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체험사례)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병윤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저혈압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주부 장양심씨)
· 뇌막염아기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 350,000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봉
(침21개 순금도금)
₩ 80,000




萬事亨通 氣 달마도
정가 ₩ 20,000
萬事亨通 달마카드 무료증정
제품을 주문하시는 모든분에게 氣발생 달마도 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금박)
지갑속에 간직하시면 氣·運 건강이 좋아집니다.

· 전화를 주시면 氣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다로그 氣측정기 무료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책자우송

韓國氣研究院 ☎ 02)455-6944, 02)453-5851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6-011003(예금주 : 김 진 순)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⑭-끝

窮見今時淺識　絶三毒心
절견금시천식　절삼독심
唯知立相爲功　永使消亡
유지입상위공　영사소무
廣費財寶　閉六賊門
광비재보　폐육적문
多傷水陸　不令侵擾
다상수륙　불령침요
妄營像塔　恒沙功德
망영상탑　항사공덕
虛役人功　種種莊嚴
허역인공　종종장엄
積木壘泥　無量法門
적목누니　무량법문
塗青畫綵　——成就
도청화채　일일성취
傾心盡力　超凡證聖
경심진력　초범증성
損己迷他　目擊非遙
손기타미　목격비요
未解慙愧　悟在須臾何煩皓首
미해참괴　오재수유하번호수
何曾覺悟　眞門幽秘
하증각오　진문유비

어리석은 이 작은 쾌락 탐하며
닥쳐 올 큰 고통 깨닫지 못하니

요즘 천박한 사람들을 보니, 오직 형상을 세우는 것으로 공덕을 삼아 많은 재물을 허비한다. 물과 육지의 중생을 죽여서 불상과 탑을 세우며, 인력을 허비하여 나무와 진흙을 쌓아 올려 단청을 하기에 온힘을 다 기울이니, 자기도 손해요 남도 어리석게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見有爲則勤勤愛着　事可具陣
견유위즉근근애착　영가구진
說無相則兀兀如迷　略說觀心
설무상즉올올여미　약설관심
且貪世上之小樂　詳其小分
차탐세상지소락　상기소분
不覺當來之大苦　
불각당래지대고
此之修學
차지수학
徒自疲勞背正歸邪
도자피로배정귀사
誑言獲福
광언획복
但能攝心內照
단능섭심내조
覺觀常明
각관상명

유위법(有爲法)을 보면 부지런히 애착을 일으키고 무위법(無爲法)을 말해주면 바보처럼 멍청해진다. 세상의 조그마한 쾌락을 탐하다가 닥쳐올 큰 고통을 깨닫지 못하니 이런 공부는 스스로 피로할 뿐이다. 이는 불법의 바른 이치를 등지고 삿된 길로 가는 것이니, 복을 받는다는 것은 속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거두고 안을 비추어 항상 밝게 관찰하여 삼독심을 영원히 녹여없애고, 육적의 문을 닫아서 다시는 침범 못하게 하면 한없는 공덕과 갖가지의 장엄과 무량한 법문을 성취할 것이다. 범부를 초월하여 성현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눈깜짝할 사이다. 깨달음은 일순간인데 어찌 번거롭게 머리가 희도록 기다리겠는가. 참된 법문은 깊고 비밀하니 어찌 다 말하겠는가. 이에 간략하나마 관심법에 대해 조금 밝혔을 뿐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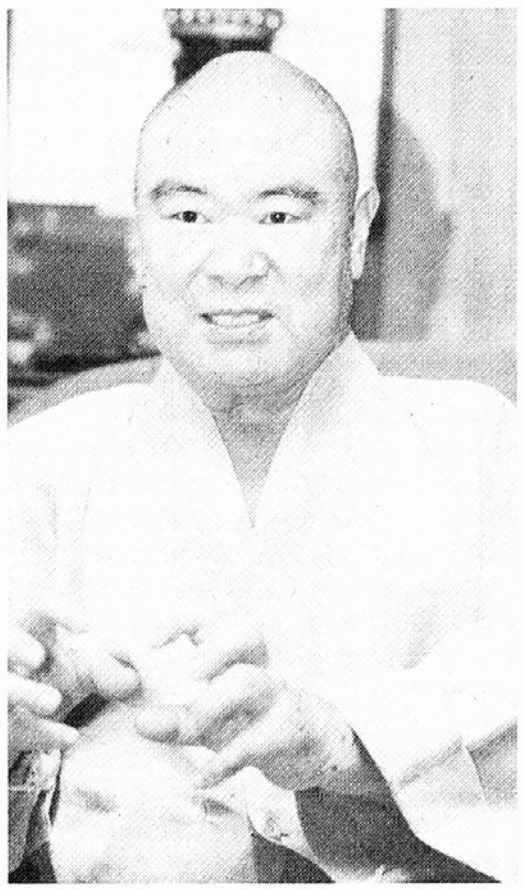
덕명스님

부산 안적사 회주

안적사로 덕명 스님을 친견하러 가는 길에는 대상을 구별치 않고 평등하게 내리는 가을 햇살이 바람결 따라 빛을 더하고 있었다. 깊고 깊어 몇 굽이를 돌아왔는지도 모를 길의 끝에서 마주친 안적사는 물속처럼 고요하고, 그곳에는 덕명 스님의 지난 30년이 잠겨 있었다. 신라시대 원효스님에 의해 세워진 이곳 복원하는 일을 수행심아 매진해 오신 덕명 스님께 물질의 한계를 넘어 마음으로 사는 삶의 지혜를 여쭈었다.

절 마당에 선 3백년 된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거목의 가지와 잎이 물질이라면 그 뿌리는 마음이라고. 마음으로 사는 삶이라야 어떠한 역경에도 부러지지 않는 거목이 될 수 있다고.

"우주의 근본 물질아닌 마음"



- 1926년 울산 生
- 51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 해인사 범어사 강원에서 공부
- 74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78년 범어사 주지
- 80년 부산불교연합회 창립, 초대회장 역임
- 97년 〈범망경보살계본〉 엮음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부산 기장군 안적사에 주석

—현대는 과학과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현대인들은 온갖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지나친 물질 위주의 삶으로 본성을 찾지 못하고 무명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물질에 지나치게 치중한 생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근원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과학자들이 깊은 연구를 하고 학술적으로 밝혀 낸 것들이 오히려 물질로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가고 있어요. 그것은 물질의 작용만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질의 근원이 마음인가 보다고 막연히 추측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벌써 몇 천년 전에 우주의 근본이 마음이라고 설파하셨지요. 그러니 앞으로 과학이든 물질이든 그 근본인 마음을 떠나서는 반쪽에 불과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은 얼마든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을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도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자기 자신을 밝혀 알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잘 활용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출가, 재가자를 막론하고 또 지식이 많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모든 것에 걸림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부처가 되는 공부입니다. 모두에게 다 평등한 것이죠. 그러니 우선 내가 나의 근원인 마음을 밝히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원은 사람으로 치면 척추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나를 밝혀 기필코 성불하고 말겠다는 서원이 간절해야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 서원을 중심으로 세우고 확고한 신심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면을 향하는 탐구력을 잃지 않아야 자신의 근본인 마음을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욕을 경계하는 철저한 무소유에 있지만 현실 생활은 재가자는 물론 출가스님들마저 물질로 평가 받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절을 가져야만 대접을 받는, 경쟁과 소유욕으로 악착같이 많이 갖고 좋은 걸 갖고 남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물질위주의 생활에 점점 침잠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아상이 더 커지고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물질을 여읜다는 것은 바로 아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상을 버리는 수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출가 스님들만이라도 철저하게 나를 버리는 수행을 통해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 대중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물질에 한번 길들여지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큰스님이라 하면 많은 상좌를 거느리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인식들을 해요. 스님들이 돈을 좋아하고 그것을 좇게 되는 이유도 큰스님 대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자연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수행과는 정반대의 양상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고 지혜를 만들어 물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율을 의지하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또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올바른 수행심을 갖고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십계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수행 잘하는 사람입니다. 계,정,혜 삼학이 있듯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 정이 나오지 않고 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사이신 동산스님께서는 너무나 철저한 수행자셨기 때문에 스님의 생활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새벽 두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보시고 정진하시고 또 빗자루 들고 도량을 청소하시니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이었지요. 스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참다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겠다고 여러번 발심을 하곤 했죠. 요즘 초발심을 일으키고 공부를 지어가는 이들도 진정한 수행상을 스스로 정립하기 어려울 때는 앞서가신 역대 조사나 존경하는 선배 스님들을 모델 삼아 자기 스스로를 담금질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닥치는 경계와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병으로 인한 고통, 가난 등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역경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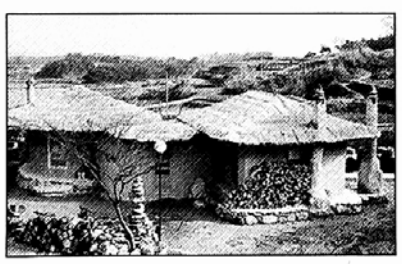
▲30년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10년 불사를 하면서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 병이 났어요. 불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에 내가 마음을 뺏겨서 휘둘리니까 몸에 병이 온단 말입니다. 그 불사를 내가 경영해 나가면 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불사에 내가 말려 들어서 나를 잃어 버렸어요. 나를 잃어 버리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수가 없으니 자연히 몸에 병이 오게 된 것이죠. 그때는 설봉선사, 경산선사, 고암, 무불선사 등 여러 선사들의 기도처였던 이곳을 한번 복원해 보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했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불사의 주인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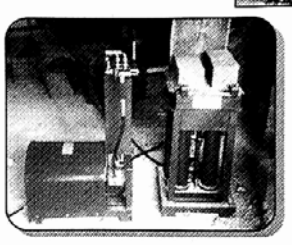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온통 자신의 마음을 뺏겨 버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더할 뿐입니다. 태풍이 불면 일년동안 땀흘리며 농사지은 곡식의 수확이 엄청나게 줄어 들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태풍은 자연의 오묘한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또 태풍이 없다면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 자연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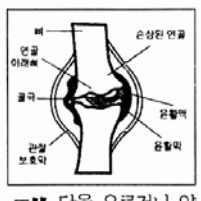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퉁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던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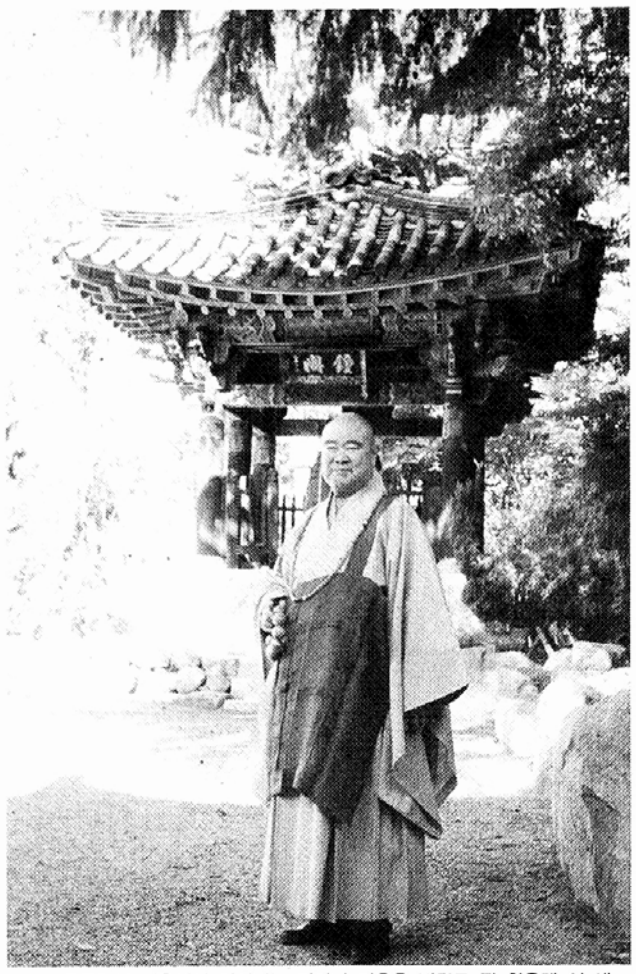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꽤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아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모든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을 밝히고 잘 활용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자고 강조하시는 덕명스님.

부처되는 공부 모두에 다 평등
삼독에 얽매인 나 푸는게 방생

> 무슨 일을 하든
> 일에 끄달리지 말고
> 정신 똑바로 차려
> 그 일의 주인돼야

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이나 어려움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여겨 긍정적으로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큰 태풍 속에서 배를 운행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순풍이 불 때의 운행은 쉽게 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이처럼 당장은 폭풍치는 것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만큼 힘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는 수월하게 세상을 살 수 가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되어요.

그러니 순간 순간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에든지 너무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다고 흥청망청 다 소비해 버리고, 또 그러다 돈이 안 벌리면 왜 이런가 온통 고심하고 그러니 어느 한 순간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관조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닥친 일에 온통 마음을 뺏겨버리니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죠.

아까도 내가 말했죠. 불사를 하는 사람은 불사의 주인이 되어야 하듯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이 그 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닥치는 모든 경계의 주인이 되어 대처해 나가 보세요. 그것이 자연 재해든, 가난이든, 병고든,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중심만 잃지 않고 있다면 그 일이 자신을 망가뜨리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다 그것의 혜택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사람들은 불편을 참지 못하고 부족감을 느낍니다. 제2의 IMF가 올거라는 불안심리도 있고, 경제 파동이후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파동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질적 부족함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도 다 있습니다. 배고프다가 돈을 벌게 되니 허영심과 사치심이 늘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는지 살피지도 않고 흥청거리며 과소비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해지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경제 성장을 했다고 너무 허황된 생활을 해오다가 얼마 전에는 IMF라는 경제난을 맞아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악순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물질 성장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성장도 물질적 성장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잘사는 나라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선진국이 되어야 해요. 함께 사는 삶,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들, 이것이야말로 정신적인 선진나라의 표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서있는 이 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살게 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도 둘러보고 주위와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 속에서는 너와 나의 구별로 인한 갈등을 많이 겪고 서로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나와 상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원만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유와 무가 둘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둘이 아닌 가운데 또 분명히 둘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이 아닌 것만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반쪽입니다. 둘이면서도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와 내가 엄연히 둘이지만 따로따로 살수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장육부를 살펴봅시다. 심장, 간, 위 등등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어느 한 장기라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모든 장기가 다 탈이 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면서 또 돌이 아닌 도리입니다. 이 이치만 마음 깊이 새긴다면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든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스님께서는 방생회를 만들어 인간 방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간 방생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방생은 생명 있는 것을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물고기나 미꾸라지를 일부러 사서 그것을 강이나 바다에 놓아주는 것으로 방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문제나 그 밖의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사서 상류에서 놓아주면 하류에서는 다시 잡아 팔기도 하니까 지금 하는 방생은 제대로 된 방생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오히려 물고기들을 이중삼중으로 괴롭히게 될 뿐이죠.

방생은 말 그대로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것이 어찌 물고기 뿐이겠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을 이롭게 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이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자기 자신은 어떤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자신을 잊고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황하는 마음을 딱 바로 잡고 올바른 삶을 이어간다면 부처님은 아마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러나 탐진치 삼독에 얽매여 정신 못 차리고 갈팡질팡한다면 그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다운 방생은 탐,진,치 세 끈을 가지고 얽어 매어 놓은 자기 마음을 풀어 놓은 것, 그것이 올바른 방생이라고 항상 이야기 합니다. 자기의 올바른 길을 찾고 지혜를 키워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상의 방생은 없습니다.

인간방생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루 착한 일 한가지만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 한가지만 하면 그것이 모여 한달이면 30번, 일년이면 365번이 되고 그것이 십년 모이면 엄청난 선행을 쌓게 되고 평생 모이면 자신을 방생하는 지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위한 참다운 일일일선이 생활 전체로 이어지면 그것이 방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생활,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인간 방생 실천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마음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현재의 생활을 영위해 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 속에서 태어났더라도 귀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이 마음이란 놈을 제대로 알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세계를 더욱 값지게 활용하는 지혜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대담=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경하 노스님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은 선택된 이미지다. 어떤 것은 잊혀지고 어떤 것은 오래도록 남아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간혹 떠오를 때가 있는 반면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 괜히 콧등이 시큰거리는 일들도 있다. 기뻤던 일들도 슬펐던 일들도 그러나 망각 속에, 세월 속에 묻히면 추억일 뿐이다. 해서 인간은 망각이라는 기능이 있기에 산다. 인간에게 잃어버리는 잊어버리는 기능이 없다면 어떨까. 아마 우리 내면은 칠흑같은 어둠보다도 더 깊은 어둠에 휩싸여 한 번의 슬픔에서 영원히 헤어나지를 못할 것이다.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편리하고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능이 있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요즘 우리 절집에 어른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른이 없다는 것은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잔소리 들을 사람도 없다는 말이다. 승가 특유의 가풍이 경책(警策)과 탁마(琢磨)인데, 요즘은 눈치껏 적당히 알아서 모든 것이 자율적인 분위기로 변한 것 같아 옛 스님들의 체취

공부 게으른 학인들엔
공포의 심우장 목침할배

가 그리울 뿐이다. 그래서 더욱 생각나는 노스님 한 분이 있다. 70년대 중반 통도사에는 경봉(鏡峰), 벽안(碧眼), 일암 큰스님을 비롯해 많은 노스님들이 계셨다. 그 중에서 경하(鏡河)노스님에 대한 기억은 쉽게 잊혀지질 않는다.

경하스님은 몸의 반은 전혀 쓸 수 없는 불편한 몸으로 심우장(尋牛莊)을 지키고 계셨다. 뒷방에 계시면서도 그 많은 학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셨고 풍기 때문에 문밖출입은 자주 안하셨지만 누구보다 사중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알고 계셨다.

누구는 학인 신분으로 공부시간에 계곡에 가서 멱감고 왔다, 어느 학인은 쓸데없이 산문출입이 잦다더라 하면 여지없이 불려가 몇 시간이고 무릎꿇고 앉아 훈시를 듣고 더불어 목침을 맞고 돌아오기 일쑤였다.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늘 베고 계시던 목침을 던져 일갈을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학인들 사이에 "공포의 노스님 목침할배"라는 별칭이 붙었다.

어느날 내게도 잠깐 들르라는 시자스님의 전갈이 왔다. 일단 한번 불려 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목침 세례를 피할 수 없었던 터라 갑자기 맥이 풀리고 가슴이 뛰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 시자를 하고 있던 영한스님을 놀려대서 노스님이 화가 나서 부른 것일까, 아니면 며칠 전 시내에 나가서 영화본다고 귀사시간을 어긴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 별별 생각을 하면서 심우장 문을 두드렸다.

불편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가부좌에 허리 또한 꼿꼿이 세우시고는 "네가 성우 상좌 맞냐?" 하신다. 그렇다고 하자 "네 은사가 여기서 공부할 때 연비까지 했다. 그만큼 독하게 공부했는데 요새 왜 경한 학인들 글읽는 소리가 시원찮으냐. 그리고 니 글 읽는 소리는 전혀 안들리는데 어찌된 일이냐. 궁금해서 불렀다. 어디 아픈게냐?"라고 자상하게 물으시는 것이었다.

내 눈은 스님의 오른 손과 그에 근접해있는 목침(木枕)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언제 내게로 날아올지 몰라 내내 긴장을 접지 않고 있는 터였다. 불려가는 학인들은 먼저 목침경험을 하고 온 스님들에게 조언을 듣곤 했었는데 절대로 날아오는 목침을 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피하면 스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어서 온전히 그 방을 나올 수가 없다했다. 그래도 내심 여차하면 피할 각오로 내 눈은 스님의 손과 목침에 머물렀지만 스님께서는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내 건강을 물으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접시에 놓여있던 빨간 홍시를 내 앞으로 밀어 놓으시는 게 아닌가. 몸이 불편했었다는 구차한 변명이 끝나자 이내 웃는 얼굴로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 같이 "지붕이 성글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면, 병마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라 하신다. 부처님 법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인연인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양말 두켤레와 홍시를 손에 쥐어주시고는 심우장 문밖을 허락하셨다.


그림 · 문병성

물론 나이가 어려 귀엽게 봐준 덕분이었지만 목침세례를 무사히 넘겼던 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이례적이었었다.

경반 학인의 처소인 황화각(皇華閣)과 심우장의 거리는 오십여 미터쯤 되는데 그 거리에서 독경소리를 구분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싱싱한 청각으로도 자신이 없다. 헌데 스님께서는 낱낱이 청규(淸規)를 점검하고 계셨다. 이렇듯 뒷방에 계시면서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의 정진을 자극했던 것은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 확신한다. 경봉 노스님께서도 큰절에 내려오시면 자주 심우장을 찾아 병상의 스님을 위로하고 가셨다.

예전의 큰스님들은 법력으로 후학들을 경책하셨는데, 그 법력 앞에는 그 어떤 논리도 주장도 소견도 삿되게 작용되는 것은 한치도 용납이 안되었다. 어른이 없다는 말보다는 어른을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는 요즘 풍토에 잔잔히 옛기억들을 더듬어 보았을 뿐이다.

봉은사 포교실장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

天蕷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왕실의 후원을 받는 원찰로 지어진 흥국사 만월보전(사진 오른쪽 건물)은 육각형 건물로 왕실 원찰답게 빼어나고 세련된 건축솜씨를 보여준다.

궁궐 대접받은 선조 원찰

남양주 흥국사

가람의 장면들 34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명산 대찰이라 하면 지방의 심산유곡에 자리한 유명 가람들을 떠올리겠지만, 서울 근교에도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가람들이 여럿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양주시 수락산 아래에 있는 흥국사다. 그러나, 흥국사는 고양군 북한산 북쪽에도 또 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서울 변두리나 근교에 있는 고찰들의 이름은 대개 O국사, 흥O사, 봉O사 등 몇 안되는 돌림자로 이름이 지어졌으니, 같은 이름의 가람이 나올 법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림자의 뜻이 모두 '국가를 위하거나', '무엇인가 모시거나', '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 무엇은 바로 왕실, 곧 국가였다.

정치의 이념을 성리학으로 삼아 불교계를 극심하게 탄압했던 조선왕조였지만, 죽음이나 왕자생산 등 중대한 인륜 대사에서는 부처님의 가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왕릉 옆에는 릉을 관리하고 명복을 기원할 수 있는 능침사찰을 지었고, 세자가 없으면 세자 탄생을 기원하는 원당을 지었다.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이런 절들을 통틀어 원찰이라고도 부르며, 공사비는 당연히 왕실의 시주에 의존하였다. 수천 개의 사찰들을 폐사시키고 불교계를 축소 통폐합시켰던 조선왕조가, 그 자신들을 위해서는 새 절들을 지었던 역설적인 역사였다.

태조의 정비였던 신덕왕후 무덤인 정릉을 위해서 흥천사와 봉국사, 경국사 등이 중창되었고, 성종의 선릉에는 봉은사, 세조 광릉에는 봉선사, 사도세자 장릉에는 용주사 등이 경영되었다. 이들 능침사찰들을 일컬어 조포사, 위축전, 자복사리고도 했다. '조포사'란 제사에 사용할 두부를 만드는 사찰이란 뜻이고, 다른 명칭은 왕실의 안녕과 복을 축원한다는 뜻이다. 비록 능침사찰이 아니더라도 삼각산 화계사와 같이 흥선대원군의 개인적 후원에 의해 경영된 왕실원찰도 있었다.

왕실 목수 파견
단청·조각 솜씨 훌륭

주불전 앞 대방 특이

수락산 흥국사도 일종의 능침사찰이라 할 수 있는데, 약간 복잡한 사연이 얽혀있다. 이 절은 덕흥대원군의 묘소를 지키기 위해 조성된 사찰이다. 덕흥대원군은 중종의 8번째 왕자로서 소실 태생이었다. 그러나 정실 계통의 왕손이 명종을 끝으로 끊어지자, 덕흥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선조였다. 흥국사는 바로 선조 때 창건되어 중요한 왕실 원찰이 되었다. 덕흥대원군의 자손들은 이후에도 광해군과 인조를 거쳐, 영 정조와 고종에 이르기까지 왕위를 이어 최고의 왕실가문이 되었다. 특히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흥국사를 마지막으로 중창한 대시주였다.

서울 근교 왕실 원찰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건축적 특징을 갖는다. 우선, 가람의 앞에 놓이는 대방채라는 특이한 건물이다. 보통 工자형으로 생긴 이 건물은 주불전 마당 앞쪽에 놓여서 가람의 얼굴 역할을 하는데, 돌출된 누마루를 양쪽 혹은 한쪽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용도로 쓰이는 큰 방인 대방과, 주지실 등이 갖추어져서, 왕실의 중요한 시주를 접객하는 공간으로 쓰인 다목적의 건물이었다.

흥국사 대방은 가장 커다란 규모에 속한다. 중앙에 넓은 대방이 놓이고, 그 양쪽으로는 2층의 누마루가 돌출되어 있다. 왕실의 귀한 손님들이 내방하면 여기서 맞이하고, 이 귀한 신분의 봄자들은 일반인이 들락거리는 법당보다는 대방채에서 봄공 들이기를 원했다고 전한다. 기둥을 비롯한 모든 부재들은 정교하게 가공되어 있고, 기단과 초석도 말끔하게 다듬어져 세련된 모습을 보인다. 대방 뿐 아니라 흥국사의 모든 건물들은 좋은 목재와 석재들이 훌륭한 솜씨로 다듬어져 있다. 왕실과 관련된 건물답게, 심지어는 왕기의 목수와 석수들이 파견되어 건물을 만들었을 정도였다.

주불전인 대웅보전이나, 원당 건물이었던 시왕전과 만월보전 등의 지붕에 주목해 보자. 지붕의 용마루나 추녀마루 끝에는 잡상이라고 부르는 작은 조각물들이 얹혀져 있다. 건물에 피해를 입히는 잡귀를 물리친다는 장식물로서, 궁궐건물 아니면 감히 꾸밀 수 없는 고급스러운 요소였다. 단청도 정교하고, 부엌 문에 그려진 신장상도 훌륭하다. 특별나게도 육각형 건물인 만월보전도 대단하다. 비록 외진 곳에 있고 천대받았건 불교사찰이지만, 왕실의 원찰이 되면 이 정도로 격이 달라진다.

불교는 마신이요, 불경은 요설이라고 박해했던 조선조에도 왕실 원찰들은 궁궐 못지않는 대우를 받았다. 불교를 우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축복을 위해서였지만, 성리학이라는 유교적 이념도, 고귀한 왕실의 왕족들도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았던 것일까?

종교계 '준비된 귀농' 이끈다

IMF 관리체제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농촌 전원생활에 대한 '환상'에 젖어 귀농했다가 도시로 유턴하는 재이농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 귀농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전국적으로 귀농가구 1만7800여 가구 중 재이농한 가구는 1200여 가구(7%).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귀농자금을 갚지 않거나 빚을 남겨둔 채 야반 도주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재이농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귀농자가 농지 임차와 주거 공간 마련 비용으로 초기에 수천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정부 지원금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자녀 교육문제와 가족간, 주민과의 갈등도 귀농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 이병철 본부장은 "농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귀농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농촌을 떠났으며 앞으로도 재이농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소득 보다는 삶의 가치를 따져 귀농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아니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지역 귀농학교

명 칭	주관단체	전 화
전국 귀농학교	전국 귀농운동본부	(02)742-4611~2
부산 귀농학교	부산 환경운동연합	(051)463-0223
대구 귀농학교	경동복지교육원	(053)422-5742
광주 귀농학교	광주 무각농촌 실업기술훈련본부	(062)523-8084
대전 귀농학교	한밭 농학연합	(042)253-3343~5
청주 귀농학교	청주 환경운동연합	(043)266-1233
전주 귀농학교	전주국제 선교센터소	(063)272-2794
불교 귀농학교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02)730-1864
김천교 귀농학교	김천교 농촌선교교육원	(043)437-3004
경남 귀농학교	마창 환경운동연합	(055)252-9009
포항 귀농학교	포항 녹색소비자연대	(054)273-2226
울산 귀농학교	울산 환경운동연합	(052)265-7008
장기 귀농학교	장기간 실업기학장	(063)636-3776
한마음 농업교육장	한마음공동체	(061)359-1925

무소유·공생 등 삶의 철학제시… 이농 줄어
실상사 등 교육생 100% '농군'… 생태마을 늘어

불교 NGO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20일 서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7기 불교귀농학교 입재식을 거행했다.

이처럼 삶의 철학이 부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준비 안된 귀농의 실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신적 삶으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종교계의 귀농운동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산하의 종교NGO들은 이같은 '가치관 부재의 귀농'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적 삶이 토대가 되는 든든한 귀농운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는 불교계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귀농학교와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가톨릭 공동체교육원의 대구귀농학교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 공주귀농학교, 개신교의 감리교귀농학교와 전주귀농학교, 한마음환경농업교육장 등 모두 7곳.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14개 귀농학교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96년 9월 출범한 전국귀농운동본부에 이어 1년 뒤 두 번째로 출범한 불교귀농학교는 조화로운 삶, 더불어 사는 사회, 친환경적인 농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6기생까지 졸업생을 배출(매회 20~30명 참여)'하면서 바람직한 귀농운동의 전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유일한 장기귀농학교인 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일반 귀농학교의 평균 귀농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과 달리 4기생까지 80여명의 농군을 배출해 100%에 가까운 귀농율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인간성과 지속가능한 생태마을'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생태 공동체'들도 하나 둘 씩 늘어나고 있다.

95년 '무소유 무아집, 절대 평등, 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불자 최한 삶씨가 경기 안성에 둥지를 튼 '푸른누리', 96년 불자인 충북대 철학과 윤구병 교수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자리잡은 변산 운산리마을, 96년 하병섭 목사가 정착한 무주 진도리 생태마을, 보수와 분배가 없는 무소유 공동체인 경기 화성의 '야마기시즘 실현지', 개신교 목회자인 정호진씨가 96년 시작한 생명누리공동체, 98년 개신교 목회자들이 폐교를 인수해 시작한 한마음공동체 등이 그것이다.

이들 생태마을은 각기 다른 종교적 배경으로 설립되었지만 구지 종교를 따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 윤구병씨는 이런 생활공동체를 "어떤 생각,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꿈꾸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철학 공부는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큰 스승인 자연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생각만이 아니라 기름과 습을과 아픔의 문까지도 활짝 열고 겸손하게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지혜가 인도하는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윤구병씨의 이런 말은 귀농자의 마음 자리가 어떠해야 할 지를 간과하고 있다.

청정한 공기와 물을 마시며 유기농법으로 자급자족에 만족하면서, 수행자적인 장신의 여유로움을 갖지 않은 조급한 귀농은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귀농은 직업을 바꾸는 삶의 전환이 아니라, 갖가지 병폐로 물든 현대문명에서 물러나 새로운 대안적 문명을 찾아 나서는 의식의 각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귀농의 성공비결은 '왜 귀농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라는 한 귀농자의 말처럼, 종교계가 귀농운동의 이념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사찰과 교회 등이 귀농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아 봐 타 코 스

〈뜻대로 사는 길〉

苦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 화엄경 4구게 -

아봐타는 자신의 마음(신념)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 한 매우 강력하며 빠른 효과를 가져오는 코스(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전세계 64개국에서 알내되고 있으며 현대 불교, 신(神)의 공학, 새로운 인간 존재의 탐사기법 등등으로 불려우고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봉인사에서 아봐타(菩薩) 코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봐타 코스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게 되는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수행자들을 초대합니다.
아봐타 즉 보디사트봐 코스는 자기가 주인이되어 뜻대로 사는 길을 성취하는 강력한 의식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수행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벗이 될것입니다.

▶기 간 : 2000년 10월 6일 오전10시부터 13일까지
(지방에 계신분은 하루전에 오십시오)
▶참 가 비 : 160만원 숙식비 20만원
▶마 스 터 : 海山스님. 哀鏡스님
▶연 락 처 : e-mail) www. Haesan Avatar.com
www. bonginsa @shinbiro.com
전화) 062)653-9097/ 011-606-1976 해산
031)572-5585 봉인사

봉인사 한길 정진원 합장

법련 불교 대학 수강생 모집

결심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불교기초교리강좌와 대승불교 철학의 정수인 대승기신론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기초교리 강좌
■개 강 : 2000년 10월 6일(금요일)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기 간 : 2000년 10월-12월(3개월간)
■법 사 : 오경스님(법련사 주지)
■동참금 : 5만원(3개월분)

대승기신론 강좌
■개 강 : 2000년 10월 5일(목요일)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기 간 : 2000년 10월-2001년 3월(6개월간)
■법 사 : 오경스님(법련사 주지)
■동참금 : 5만원(3개월분)

불일시민선방
■일 시 : 매주 금,토요일 오후 7:30-10:00
■대 상 : 참선에 관심 있는 분(초심자 환영)
■동참금 : 5만원(3개월분)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철야정진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서울분원 법 련 사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1-1 T. 733-5322

진귀한 보석 (크리스탈) 觀音球


옛부터 神通力을가진 水晶球 길흉을 예언하였다


수험생용 육각수정구 (보급가 7만원)


특별 보급가 23만원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 헤아릴 수없는 기(氣)가 방출되어 뇌 활동을 활발하게 도움

소원성취 · 안전운행
사업번창 · 결혼영혼
가정화목 · 부부화합
삼재소멸 · 관재구설
운수대통, 각 간절한 한 한가지 소원을 말하고 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알려 줌
알려 줌

※ 구입 하신 분에 한하여 秘法을 알려드림
※ 진귀한 물건이므로 단 10名에게만 보급합니다.

농협 150042-52-200478 이민택
▶ 입금 확인 후 우송해 드립니다.
(053)982-6778 011-813-3679
지 장 선 원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문의
0二-七三七-八八八一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불성은 에너지 공급하는 절대 주처

스님: 여러분을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법당에 계시는 진주지원 신도님들 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서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스님, 저는 사업 관계로 5, 6년 전 스님을 친견할 때마다 사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부도와 실패만 거듭하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지원장 스님께서는 시려울 정도로 간절하게 마음을 내어 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항상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돌아서서 여러 차례 눈물도 흘렸습니다.

세상 사는게 환상놀음

이런 시간이 지난 후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기울지 않은 마음 자리에서 간절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이나 습 이전에 저의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저로서는 이 방법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어느 자리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항상 근본에서 지혜롭게 이끌라고 관하면서 그냥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되어 이렇게 스님께 인사도 올리고 간단하나마 질문도 드리게 됨을 다시 한 번 근본에 감사 드립니다.

법회때 마다 새벽부터 이렇게 와서 법문을 직접 청하여 듣는 것과 지방 같은 경우 그냥 비디오 법문이나 카세트를 통하여 듣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스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이전에 한번 얘기할 테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를 하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황에 따라서 때리지 정해 놓고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정해 놓고 때리고 정해 놓고 맞는 것이 아니니 그 가운데 누가 맞았고 누가 때렸고, 어딜 때렸고, 어딜 맞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디오로 보든 이렇게 실지로 듣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들의 환상이 진짜입니까? 그것은 환상 놀음입니다. 컴퓨터로 놀이를 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그런데 왜 환상이 아니 게 보일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보일 수도 있느냐면, 그거는 여러분의 몸이나 내 몸이나 몸은 공체입니다. 그래서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과 어저께 내가 말해 놓은 것을 음미해서 생각할 때, 누가 때린 거냐? 어딜 때렸느냐? 어딜 맞았느냐? 이거를 생각해 볼 때, 때린다고 하고 때리지도 않았고 맞는다고 하고 맞지도 않았고 어딜 때린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때린 사이도 없고 맞은 사이도 없는 거죠. 그 비디오를 본다고 해도 보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불이 들어오고 생각을 안 하면 생각 안 하는 대로 불이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안하면 모르지만, 그 실체에도 내가 있고 지금 여기도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자체가 환상입니다. 이것도 환상 그것도 환상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셋째 일요일날은 여지껏 법회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걸 한 번 다시 되집어서 보여 드리는 것이 공부하는 데 실질적으로 좋겠다. 그리고 첫째 일요일날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거도 현실로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나 컴퓨터로 놀이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꼭 말을 해야만 되겠기에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관하라고 했느냐? 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기 어렵고 괴롭고,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많은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살아야만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관하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모습은 부모의 인연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만 생명의 능력은, 생명력은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원소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생기면 바로 모습 아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불성입니다. 그것이 천차만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로 절대적인 에너지 처입니다. 그래 주처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처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우리 몸도 공체이기 때문에 속에 제각기 모두 분리돼서 작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뚱이 속도 지구와 같기도 하고 우주와 같기도 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하고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일어나는 문제들을 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모습 있는 자기는 모습 없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태평해지죠. 진짜로 믿어야 맡겨도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고 한데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공법으로서 공용을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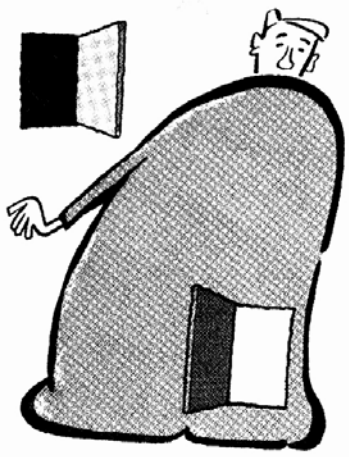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관'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고 힘든일 많아

마음은 찰나에 모든걸 깨끗이 할 수 있어

놓으면 편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렐레비전으로 보나 누구에게 들으나 지금 여기서 들으나 어떤 생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커지고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육조 스님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서 깨우쳤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이 읽는 소리나 하는 소리나 내가 지금 하는 소리나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 그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 하죠? 말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말을 못 하죠? 또 사용하는 것도 마음대로 사용치 못하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있어요? 마음대로 하려면 그냥 그대로 자기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어렵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냥 자기 한테 원소가 들어 있으니까요. 자기가 있으니깐 들어 있구요. 그 원소가 없으면은 자기는 송장이 되는 거니까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구요. 먹고 자고 행하는 것을 도무지 못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이 걷고 여러분이 행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면은 서로 토론을 자주 가지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너만이 알게 해 줄 수 있어' 하고 자기 불성 주인공을 자꾸 찾아보십시오.

질문2: 생사를 뛰어넘는 큰 가르침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요즘 고도화된 과학으로 생명체를 복제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이 치유됐을 때 치유되기 전의 업식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올립니다.

스님: 업식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몸을 볼 때 육등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세포 하나 하나가 모두 육등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세포가 다르니까 팀들이 다른 겁니다. 팀들이 다르니까 생김도 다르구요. 그러니까 세포를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서 병을 치유한다 해도 그 유전자의 의식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있던 유전자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그 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악쓰지 않고 사는 도리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뭘 줄도 모르던 사람이 아주 뜀박질을 참 잘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수술을 할 때 그런 유전자를 넣고 다리 부러진 데를 수술한 겁니다. 왜 그렇게 잘 뛸까요? 그 유전자는 차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씩 생긴다는 얘기죠. 결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좋지 않는 거는 모르지만 좋은 거는 지금 말해서 장땡이죠, 뭐. 좋지 않은 거는 또 좋지 않은 대로 세세생생 나갈 수도 있는 문제구요. 그래서 좋은 거 반이라면 언짢은 거 반이 속한다 이런 뜻이죠.

질문3: 저는 일상생활에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근본을 믿고 주인공에 관하면서 생활 하니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이나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주변 일들에 무관심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일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인지 혼동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소님: 편안하니깐 그러시겠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러운 물도 바꿔 쓸 수 있다, 이건 한 찰나입니다. 마음은 한 찰나에 그 모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놓으면, 새로 입력이 들어가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바꿔지는 겁니다. 바꿔지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지고 편안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정도가 되죠.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지, 바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나나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원소를, 자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모습을 받는단 얘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받을 때 부모의 은공으로 받았다고 해서 부모은중경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 원소가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하고 형성된 그 고생은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즉 말하자면 태어나는 거는 자기 소관입니다. 부모의 소관이 아니라 자기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차원이 높고 낮고 그런 것도 자기의 소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습 있는 인연을 따라서 소중하게 받은 그 모습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그건 바로 색색가지로 만법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부처님께서는 불성을 봤다고 했고 또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주장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하면 올라감이 없이 한 등 올라가고,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야 문 없는 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문을 찾아 다니는 건 육신을 갖은 사람이나 문을 찾아 다니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문이 있어도 그냥 문이다. 이렇게 될 때 그 원소 자체에 불성은 문이 없어도 왕래할 수 있는 겁니다.

원소는 왼쪽 두뇌의 정신계를 말하고 또 바른쪽은 물질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혼합시켜서 같이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같이 돌아가는 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거를 이해 하신다면 정말이지, 예전에 어떤 스님이 대자대비라고 '대' 자 둘을 써 놓으신 게 있는데 누구든지 '대' 자 둘을 써 놨으니까 대자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그냥 길을 하나, 주장자를 그려 놨거든요. 누운 주장자 선 주장자가 있는데, 누운 주장자를 그려 놨으니 그대로 갈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대자대비도 그렇게 앞도 없고 뒤도 없다. 대자대비니까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누운 주장자이니까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걷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가 지혜가 트이면 열 가지 백 가지가 트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들이대면 법이 되고, 어떤 것이든지 들이대면 그대로 결정이 나고, 어떤 것이든지 들이대면 그냥 활용이 되는 겁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 9일 배포!

살아생전에 「우리말화엄경」 간행불사를 해봅시다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대방광불 화엄경

백 용 성 대종사 번역 / 사재동박사 윤문
4×6배판 (크라운판) / 1,620면 (42g미색코트지) / ₩100,000원
최고급 순금 금장 양장 제본/ 인조가죽 카바

이조 500년의 배불정책 아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뜻있는 스님들은 몇 년을 주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탁발로 시주받은 곡물과 푼돈을 모아 몇질의 화엄경을 간행하여 새로 조성하는 불상의 복장에 넣기도 하고, 법당 상단의 부처님 좌우에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귀의처로 삼았습니다.

「인과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화엄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거나, 「화엄경」을 만져보는 공덕만으로도 지옥 · 아귀 · 축생에 떨어지는 업보를 면한다 하였고, 만약 「화엄경」을 간행하면 제불보살과 화엄신장의 옹호로 삼재팔난 · 과나재구설 · 병고액란이 소멸되고, 선망부모 등 영가가 천도되어 생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특히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어머니가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면 구천을 떠돌던 중음신의 영아가 원한을 풀고 좋은 세상에 난다' 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는

「우리말 화엄경」을 번역하신 백용성 큰스님은 3 · 1독립운동의 33인중의 한분이며 동산 · 고암 종정스님의 스승이고, 성철종정과 광덕 · 도문스님의 노스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허스님과 함께 당대 최고의 대 선지식이었고, 생전에 치아에서 수십과의 생사리가 나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선(禪)과 교(敎)를 통달한 도인의 혜안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말 화엄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법보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조석으로 기도생활을 하는 불자라면 불상 대신 반드시 「화엄경」을 모셔야 합니다. 「화엄경」은 법신불(法身佛)이므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 단체 동참시(30권 이상) 권당 8만원. 동참자 이름과 발원문을 별도로 화엄경에 인쇄합니다.
♣ 불사회향 · 회갑 · 진갑 · 칠순 · 49재 · 100재 · 영가천도를 위한 법공양

단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시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바로주문하시면 ₩85,000원(송료포함)

■ 주문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4-7614, 739-8745 FAX (02)735-2344
· 계좌 : 농협 053-01-102503 (김정길) 신한 324-12-407937 (김정길)

문서포교에 앞장서는 弘法院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9-8745 / 734-7614 / FAX 735-2344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1)470-3116

앞과 뒤도 없이 그냥 걷는 길이 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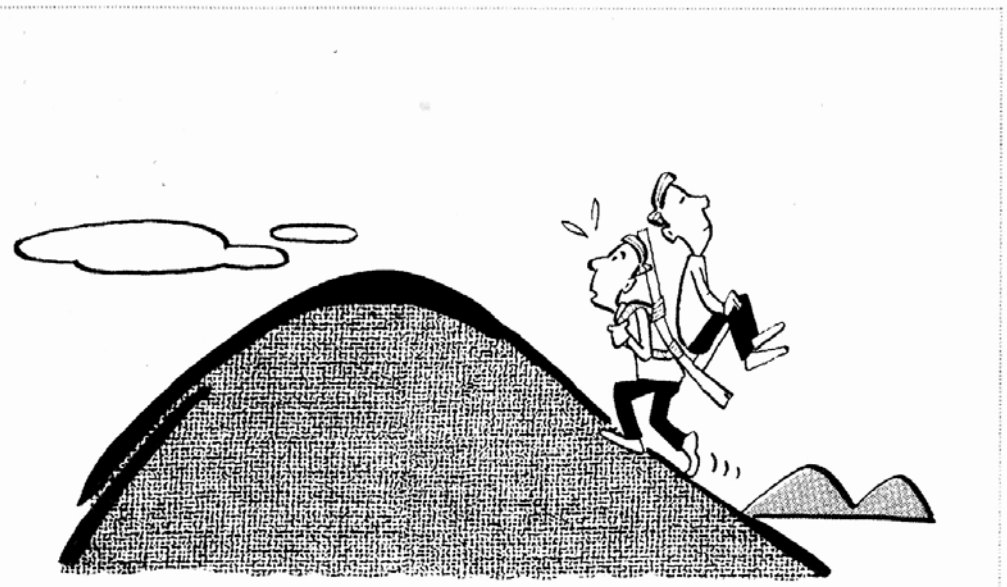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15면에서 계속

니다. 강을 건너가는데 육체가 한 걸음에 강을 뛰어 놓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을 뛰어 놓을 때, 한 걸음을 뛰어 놔야 우리가 부처님 자리에 한도량에 든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으로 뛰어 놔야 한도량에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정신계의 문제나 물질계의 문제가 같이 반반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 하고 그냥 간다. 그런데 모두 물질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든지 괜트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죠? 차가 여러분이라면 말이 됩니까? 차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소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함이 없는 나가 사용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즉 달하자면 시자로 씁니다,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차 쓰듯이요. 그런데 나라고 그런다면 그게 말이 안되죠. 반드시 주인이 있는데 차가 자기라고 그러니까 괜트가 맞지 않아요. 모두가 사는 게. 그래서 과거로부터 선조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음이라도 진실하게 있으면 몰라도요.

믿음을 가지면 그냥 아무데라도, 돌자갈이라도 믿고 한다면, 그게 아주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통이 돌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고집 부리는 거는 멍청한 일이죠. 우리가 고집이 세고 아주 괴롭고 망종스럽게 산다, 이런 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를 누르고 삽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모르고 사는 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누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로 세우는 극락

그런데 우리는 북두칠성으로 인해서 그 왕별이, 큰 별이 생명력을 애당초에, 최초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마음에 원소 자체에서 모두 여러분이 만법을 들이고 내고 살게끔 해 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막 악을 쓰고 그러는 데도 그게 자기가 악쓰는 건데 자기가 악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말하자면, 부속이나 마찬가진데,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진데 왜 너는 그렇게 악을 쓰고 그러느냐. 악쓰지 마라, 너는 악을 써도 소용없고 악 쓰는 거기에서 전부 미련 없이 해 가지고 나가는데 왜 너는 악을 쓰고 소릴 내고 크게 문제를 삼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길 치고 길 아닌 데가 하나도 없다, 허공도 길이요, 지구도 길이요. 우주도 길이다. 우리가 몸뚱이를 생각할 때, 한번 지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구가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몸과 같습니다. 생명체들이 알궁달궁 살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들 살고 있나. 몸속에서는 그러죠. 몸속에 들어 있으면서 의식들은 '아이고, 우주에서 지금 사령이 내렸으니까 그대로 마음을 합쳐 드려야지'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사람이 마음 쓰는 대로, 도둑질을 하면 하는 대로, 또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대로 의식들이 따라 줍니다. 참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해요.

자기 모습은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 자기가 결정을 짓지 말고 모든 걸 주인한테, 주처에 맡겨 놔라, 일할 때는 행선이고, 앉았으면 좌선이고 또 길거리를 다닐 때는 입선이고 누웠을 때는 와선이니라. 그것이 조금도 그른 사이가 없이 요만큼도 틈이 안 나게끔 돼 있다. 그게 그냥 참선이다, 여러 가지로 따질 게 없이. 그래서 우리 생활이 그냥 '도'니라, 우리 생활이 도지, 우리 생활 떠나면 뭐가 있느냐, 네가 떠나면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모두 각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종교도 있고 진리도 있고 부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에고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모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완전히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조그맣고 부실한거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누르고 산다. 또는 우리가 누르는 거는 우리 자체가 바로 불성 자체, 별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에너지통이 그냥 거기 들어 있다. 그러니까 적으나 크나 차원이 높으나 얕으나 그거를 알고 진행한다 하면은 그냥 자기가 크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쉬우면 꺼내 쓸 수 있는 거, 전력을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거, 그것이 에너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구 바깥에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내 자체 내에 그 문이 있기 때문에 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컴퓨터를 눌렀을 때 이걸로도 변하게 하고, 이걸로도 나오게 하고 저걸로도 나오게 하고 부산으로도 갔다가 제주로도 갔다가도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뺏길 필요도 없고 뺏을 필요도 없이 아주 성스럽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악과 선을 만들어서 싸우게 해서 모두 재미를 보게 했거든요. 그러나 악과 선을 안 넣어도 재미있는 구절 구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미생물로 인해서 조그맣게 생명이 생겨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진화가 되고 이렇게 사람까지 몇 번씩 태어나도 그냥 그 자리를,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벗어난다면 세세생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디에 갇혀서 산다고 보세요. 병 속에 갇혀서 산다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함을 느끼죠. 자유스럽게 훨훨 날아다닌다면, 구속받지 않고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거를 내가 갖는 거 보다도 모든 걸 주는 거, 주는 새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얼마나 구성해서 발현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잘 한다면 정말이지 그건 극락이죠. 자연적으로 극락이 되죠. 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늙어도 그렇고 다 천국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날까지 그렇게 궁색하게 싸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뺏기고 뺏어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계까지 뺏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뺏고 뺏기고 그러지 말고 서로 줄 수 있고 서로 받을 수 있고 서로 주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사람이 더군다나 더 먹는 걸로 인해서 싸우는 문제도 있죠. 먹는 걸로 인해서 싸우고 죽일 수도 있구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확딱 벗어난다면 먹지 않아도 살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에너지가 왜 필요한데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송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라고 이름을 해 놨으니까 그냥 에너지라고 부릅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거,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지구가 만약에 버스라든지 배라든가 그런 데에 걸상을 전부 늘어놨다면 그 걸상 하나 가지고 이거는 무슨 종교 저거는 무슨 종교하면서 싸우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라는 거는 이름이지 종교라는 이름이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한 말로든지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는 숭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나왔고 진리에서 진화가 됐고 진리에서 이렇게 융통성 있는 인간으로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인간으로서 활딱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고 하고 당치 않은 어기장을 부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따진대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거들거들 고생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40이 넘고 50이 되더라. 50이 돼서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 봐야지 하다 보니까 머리가 벌써 허옇게 늙었더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그냥 에너지로 원소가 있었다면 그 구석구석 모를텐데, 부모의 은공으로 몸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이렇게, 너는 몸을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며 어떻게 서야 되며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누워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라고 했는데, 놉는 것도 잘 모르고 앉는 것도 잘 모르고 자는 것도 잘 모르더라,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걸 알아야 하는데, 죽기 전에 알아야 하는 거지 죽은 뒤에 공부가 되느냐 이겁니다.

들고나는 문 따로 없어

부딪침이 있어야 공부가 되죠. 상대가 있어야 공부가 되죠. 그래서 죽은 영들은 왜 그렇게 해 놓고 공부를 시키게끔 하느냐, 자손들이 화장을 해서 탑에다 모신다면 그 자손들이 공부하는 대로 그걸 배울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잠시 잠시 들고 날수가 있거든요. 병 속에서 나가듯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자손들이 그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생전에 벌써 병을 다 부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갈 때도 나가는 문이 없고 들어올 때도 들어오는 문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게 자재권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재하더라.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어디든지 권리가 있다. 어디든지 가서 같이 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분류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가서 바꿀 수가 있다.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 모습을 바꿀 수가 있다.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는 바꿀 수 있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뱀이나 개구리, 뭐 다른 짐승이라 할지라도 서로 접촉도 안 해 봤는데 거기 들어가 보세요. 저항력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쪽도 단단히 겨냥을 하고 저항력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될 수 있어야만 된다. 여자를 건지려면 여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되고 창녀를 건지려면 창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그렇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닥치는 대로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복잡하고 쫀쫀하게 듣지 마시고 좀 간편하고 쉽게, 느슨하게 좀 풀어놓으세요. 허리띠를 너무 꼭 매면 체하기 쉬우니까 조금 느슨하게 매 놓으시되 흘러내리지만 않게 하고 사신다면 그게 얼마나 유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꼭 매야 하겠지만요.

질문4: 열심히 정진하면서 나름대로 세속법에도 위반되지 않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정직하게 마음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공부를 접하기가, 인생과 현재의 생활이 차이나 변화가 없고 공부한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살아가는 어려움에 너무나 많이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마음에 끄달림이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관'이 주장자이자 불성

스님: 그러게 나같이 미련스럽게 사시란 말입니다. 나같이 미련하게요. 너무 세상이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많은 걸 그냥 하나로 둥글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 사실 없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복잡하지 않게 살려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복잡하지 않지, 이거는 그냥 어중이떠중이 일어나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하더라도, 생각으로 둥글려서, 어느 곳이나 내 자불이 있기 때문에 만 부처를 한데 합쳐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일체를 다 빼놓은 사이 없이 둥글려야 작은 것 하나도 빠지지 않죠. 만약에 세어서 집어 넣으려면 모르는 놈은 복잡해서 못 살아요. 셀 수도 없구요. 그러니까 아주 나같이, 못난 나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질문4: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법당에 올라가면 삼배를 올리는데 급하면 일배를 올리되 둥글려서 올리고 둥글려서 놓으라구요. 여러분이 5년, 10년이 됐다고 그래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다녀요. 왜 법당에 들어오면 저 부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라고 노랫말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진정코 믿는 곳에 딱 집어야 결정 나는 거지, 딱 집지 않고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보이지 않은 데도 반이나 있는데, 보이는 데도 여러분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데도 더 많다면 많죠. 그런데 어느 틈바구니에 비싯비싯 다니면서 어떻게 사세요? 주인공이라는 주장자 하나 가지고 좋은 일도 해 주고 언짢은 일은 좋게 펴 주고 지나가다가도 그렇게 해 주고 살면 얼마나 편안해요? 원수 짓지도 않고 세세생생, 아니 끝간데 없이 가도 '저건 내 원수야'이러지도 않을 거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름해서 부처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다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도 나를 내세울게 없는 거예요. 나 아닌 나가 있으니까요. 나 아닌 나가 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 만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체 화현의 도리를 가지고 있구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는 그저 응용하는 대로 팔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다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시자라고도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심부름꾼을 바깥으로 두었다면 보이는 걸로 시자를 두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을 다 하죠. 그래서 안목이 있죠. '이분은 정치에 나왔는데 좀 할만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가벼워서 안되겠어'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분들이 도인이에요. 그냥 부처예요. 그런데 그게 납득이, 지혜로운 납득이 공법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먹는 것도 내가 먹는다고 '맛있게 먹었어, 참 잘 먹었네' 이러지만요. 그게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모두 자기 역량대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순식간이에요, 아까 권투 얘기했죠? 먹는 것도 생각을 해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이 쭉 있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집어먹게 되죠. 그렇게 집어먹게 되면 소화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안에서는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할 말도 심부름하는 거예요. 말도 자기 말이 아니라 모두 거기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참 귀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게 부모의 은덕으로서 몸을 받고 이 귀한 자불이라는 원소 자체 그것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알았다' 고 하는 거죠. 그 에너지의 한 방울에 의해서 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한 덩어리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제는 에너지를 너무 써서 살수가 없느니 뭐 어쩌느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나부터도 그렇다면 못나서 그런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운전수로 산다면요, 보이는 차로만 살지 말고 운전수와 이 보이는 나와 같이 다니면서, 보이는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게끔 돼서 이익을 주고 또 안 보이는 데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면 안 보이게 해야만, 안 보이는 것이 절반이상 넘죠.

금을 걸레로 쓰고 마루에 놔도 걸레로 쓰기 때문에 집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금이라고 감춰놔야 집어갈텐데 감추지 않고 내놨으니까 금을 내놨으려니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들 편안하게 사시고, '관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내 원소로구나, 내 공체 원소로구나, 에너지 주장자구나, 내 자불성이구나, 그러니까 꼭 나는 나를 믿어야지 누굴 믿겠는가' 이렇게 하세요. 이 세상에 누굴 믿겠어요,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만 자기를 믿는 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원소, 생명력을 그대로 자불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세요. 진짜로 믿어야 통한할 일이 생겨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관하죠, 마음을 나쁘게 먹고 나쁘게 행하려고 하고 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막아나가는 것도 부처님 법입니다. 잘못될 일이라면 막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막는다, 그런데 그걸 구지비 해야겠다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도 속이지 말고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넘어가죠, 넘어가게 되게끔 되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고통이 있다, 뭐 있다 그러면서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위 법문은 2000년 9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말고 주인공에 맡겨라
세울게 없는 나 아닌 나가 바로 부처

가파른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전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2000년 초발심 불자교육을 위한 (3개월 과정)
원효정사 불교문화대학 제3기생 모집안내
1. 교육대상 불교공부를 하고자하는 모든분(초심자 환영)
2. 개강 : 2000년 9월 19일(화) 오후2시 지도법사 : 세정스님
교육내용 ▶ 직기초교리전반, 사원예절, 사경, 기도하는법 ▶ 초심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실시 ▶ 수업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2시~4시
3. 모집방법 및 전형
초급반 ▶ 모집인원 소수 정예반(30명) ▶ 입학원서(본회양식) 명함판사진2장 ▶ 특전 : 본과정 수료후 수료증 수계증 수여
4. 원서교부 및 접수
▶ 개강식 : 2000년 9월 19일 오후2시 ▶ 본 문화대학 사무국 ▶ T. 02)744-3413~4 F. 744-9686 ▶ 입학금 : 7만원 3개월 수강료 교재비 포함
원효정사 불교문화대학

易學講座
사주학 전문(단원선생 직강)
■ 개강 : 9월 15일 오전10시
(수시입학도 가능) 테잎도 배포함
※ 쉽게 배우고 특히 다른곳에서 배웠어도 이해가 않되는분, 통변의 달인
02)2275-7114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神秘한 자만 옥
▶ 당뇨, 고혈압, 비만·불면증, 두통
▶ 스트레스, 피로, 직장, 수험생, 교통사고, 후유증
▶ 40·50대 주부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북경 중의원 부속 중의 연구소 임상실험
불면증 96.9% 심장질환 92.9% 두통 83.3%
고혈압 77.8% 귀울림병 91.3% 관절염 60%
108 염주 1세트 = 8만원 수험생 팔찌 = 2만원
053) 982-6778 011) 813-3679

구인구직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울 산)
052)245-9907

부전스님, 기도스님
인연 있는 사찰을
찾습니다.
(비구스님)
011-576-2737

신심있는 공양주 구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실 분
더욱 좋습니다.
연 화 사
011)803-9130

공양주 보살 · 구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031)873-6083
011)334-6083
02)572-6166

행자 모집
본 사찰에서는 불사가 완성되어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 정법대로 바르게 수행 할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인원 : 00명 •학력: 고졸 이상
•연령 : 만 18세-40세까지
많은 큰 스님들이 수행하신 도량
대한 불교 조계종 사찰
011)9413-0055

구 직
사찰에서 차량 운전하며 종무소, 사무장직, 경비직으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031)826-1152

스님 공부하여 포교당 운영하실 분
-여자분에 한 함.
2명 35세미만
011)665-7037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결혼식을 올려줄 영가(女)를 찾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영가( )를 찾으오니 연락부탁드립니다.
75년생 (을묘생) 26살(女)
76년생 (병진생) 25살(女)
78년생 (무오생) 23살(女)
031)353-6430
약사암 주지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포교당-
법왕사 행자(男) 모집
▸세계 최대불교 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에서는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신심있는 행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고졸이상의 40세 미만으로 뜻이있는 분이면 됩니다
(단 고졸 이하는 검정고시 교육 후 자격 부여됨)
▸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시까지 법왕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20세전후 환영, 결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법왕사(법인출범후)발행 성탑불교증권(貳)의 발간되었습니다
(부처님말씀의 올성공방으로 감은 꽃이 지속시키 바랍니다)
▶ 문 의 ☎ 053)766-3747
▶ 인터넷 www bubwangsa or kr

여(女)종무원 모집
봉선사 서울 포교당 방배동 광명선원(원장 초격)에서는 여(女) 종무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고등학교이상 학력자로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면 됩니다.
· 문의 : 02)584-1108 016)217-0143
· 전송 : 02)587-3753
· 봉선사 서울 포교당 **광명선원**

포교에 원력 있으신 스님
3만여 세대의 신시가지에 위치한 시설 최상급의 포교원입니다. 현재 5백여 세대가 등록 되어 있고 매월 200여 세대가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대리 운영하시거나 직접 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연락처 : 011) 320-8541

토굴(암자)를 구합니다.
도심지에서 포교하던 스님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쉬면서 정진할 수 있는 거처를 구합니다. 저에게 이런 거처를 제공하거나 저렴하게 임대할 분은 안계신지요.
▶연락처 : 011) 320-8541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108염주 스님 = 12만원
신도용 = 6만원
학생시험기도용 = 3만원
■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600년된 진품이 여기 뜻있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인을 만납니다
053)982-4976/011)813-3679


소원성취 안전운행
사업번창 결혼
영혼 가정화목
부부화합 삼재
소멸 관재구설
운수대통
각 간절한 소
원을 알려 **시험합격**
(승진,소원성취)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규격 26×40cm
■ 서산대사 肖像畵추정
■ 채색담채 (다딤장지)
■ 약200년전 추정
■ 양도가 : 백만원
053)982-6778 /011)813-3679
· 전화주시면 칼라사진 우송해 드림 ·

(제주도) 중문 부동산 공인 중개사
급매물!
사찰부지 현 과수원 1,800평 평당 3만 8천원
사찰부지 현 과수원 1,500평 평당 3만 5천원
사찰부지 현 과수원 2,500평 평당 3만 5천원
사찰부지 현 과수원 14,500평 평당 2만 9천원
빌장 및 사찰 부지 2,500평 평당 15만원
중문관광 단지입구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330 건물 130
빌장 대지 225평 지하 15평 지상 28평 1억 3천
064)738-7497~8
011)697-7496

사찰안내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읍내
◆평수 : 종교부지500평, 대지110평
◆법당18평 (삼포집, 콘크리트 제)
요사채116평 ,그외 건물2동
◆가격 :3억 8천만원
055)852-8348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230평
◆법당 : 18평
◆요사 : 18평
◆가격 :2억 7천만원
02)723-4082
광진불사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자양면에 자리한 산세수려하고 임법당의 기도도량임
◆ 함께 기도 정진하실 비구니 스님, 보실님 식구분들 구합니다.
◆건강이 안좋으시분 수양 기도 가능함
◆전세 월세 매매가(4200만원) 절충 가능함
054)338-1237/018)510-1237
연혜스님 합장

암자 운영 하실 분
● 위치 : 충남 청양
● 보증금 : 1500
● 법당, 대지 200, 요사 2동
016)355-1259
오 계 사

사 찰 (급) 안 내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대지 : 435평 종교대지 등기필
◆건물 : 법당31평, 목조(삼포,오포,금단청필) 요사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명부전9평 단청필, 주지실 · 사무실12평, 창고 약4평 주차장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 가능
◆가액 : 8억 건물완공4년, 총공사비 12억,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특징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도량으로 창건주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에 양도합니다.
055)294-4889 / 02)351-4447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시 강북지역 (지하철역 10분거리)
◆부지 : 120평
◆법당 : 40평
◆요사 : 40평
· 도심 속 산밑에 있는 전통사찰임
· 텃밭 100평 별도로 있음
◆양도가 : 3억
◆위치 : 경북 김천시 근교
◆법당 : 30평 (한옥)
◆부지 : 600평
◆요사 : 50평
천혜자연의 계곡과 산세좋은 정법도량임
◆양도가 : 1억 7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 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암자 양도,양수하실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연기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1억
● 위치 : 부산
● 법당 : 12평
● 요사 : 25평
● 부지 : 425평
● 가액 : 3억 3천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마산시
◆법당 : 약20평, 요사2동 즉시법회 가능 시설일체기증 주지실 별도
◆가액 : 답사후 결정
011)859-2252

토굴 안내
◆위치 : 구미시 옥성면 덕촌2리
◆평수 : 356평 (실평수 약 450평 산신각3평, 컨테이너(3×6)1채
◆특징 : 서산에서 7분거리 토굴까지 포함. 중부내륙고속도로 5분거리 자두나무 30주 감나무60주
◆가액 : 1600만원
011)522-9391/053)982-4976
(오전9시~10시 통화할 수 있음)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부지 55평
● 임법당 : 18평, 방2, 주방1
● 가액 : 1억 9천 (전세가능)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011)232-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제천 - 강원도 경계지역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 대지 : 73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4동
● 가액 : 답사후 결정
연락처 : 011)335-0151

사찰 안내
◆위치 : 관악산
◆평수 : 65평 (대지)
◆건물 : 지하15평, 1층 50평 (요사채) 2층 25평(법당)
◆특징 : 산밑, 아파트인접, 등산로, 약수터, 마을버스 절 간판
◆가액 : 2억 9천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사찰 안내
◆위치: 지리산 청학동입구
◆건물: 임법당1동, 요사채1동(방4개)
◆특징: 주방, 욕실, 화장실 별도, 현대식 시설, 통나무집, 방2칸 주변경관이 좋고 주차장있음.
※하동화개 지리산 햇차 판매
포교원(전세) : 부산 동래 안락동
전세2천만원 월30만원 권리금2500만원
011)842-4549

사찰 안내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상류
◆대지 : 450평, 전답 2,2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25평
7층탑, 3층탑, 관세음 미륵상, 종 운판등 98년 창건
◆가액 : 3억 3천
033)462-8073

포교원과 철학관
• 위치 : 대전 역전
• 법당 : 20평, 철학관 1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42)253-3545
토 굴
• 위치 : 충남 연기군 소정면
• 건물 : 25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41)553-1492

(급)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대지 360평 (포교당및 별장) 220평 전3,300평 (절터)
현건물 35평
가액 3억 5천 2억
기타 입아 종교부지 절터 별장 좋은 위치에 있음 (천만)
절충 가능합니다.
본인 직접 전화 → **최 금년현화 보살**
031)264-3977 / 011)710-187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사찰 : 약 1200평
● 법당 : 약 10평 큰방 1칸
요사채 2동 용왕당 창고
● 특징 : 물 좋고 산세 수려 함
● 가액 : 9천만원
055)862-6199
017)856-361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고강시장 입구
● 법당 : 32평 삼존불, 신중, 칠성, 후불, 산신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35만원
032)678-7464

사찰 안내
국제관광 및 물류도시 확정
◆위치 :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 인접
◆대지 88평, 건평 60평, 2층집
대지 71평, 건평 50평, 2층집
대지 72평, 대지합 231평,
조경 주차장 완비, 지가 급 상승지역
◆가액 : 4억 3천(전세 8천포함)
응자무, 교환가
033)462-8073

사찰 안내
◆위치 : 광주시 남구 월산동(시내중심가)
◆대지 : 325평
50년된 역사가 가장 깊은 유치원 있음. 2층 법당 고려청자기로 된 천불전 요사채 별도 포교로는 중심지로서 가장 적합함.
※ 능력있는 스님 환영 ※
◆가액 : 8억
062)368-8450/011)633-8450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 내 165번지
◆평수 : 대지 500평, 법당 1개 요사채 2, 목조건물
◆가액 : 1억 3천
※ 주차장 공간 가능
055)834-3282

암자 안내
◆위치 : 가평군
◆평수 : 1000평 이상
◆가액 : 답사후 결정
전세, 월세 가능
물계곡이 좋음.
017)708-0635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기 여주군 금사면
● 면적 : 준농림지 전답 1600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특징 : 서울에서 50분거리 남한강이 보이고 경관이 좋음.
사찰 전원 주택 주말농장으로 최적
● 현시설 : 전기 가설 콘테이너 하우스 1동
031)886-6934/885-9805

포교당 안내
● 위치 : 미아 3거리
● 평수 : 46평
● 가액 : 보증금 2천 월 70만원
● 특징 : 시설 A급, 교통 요지
02)941-3195

토굴 안내
● 위치 : 삼척시 원덕읍 기곡2리
● 평수 : 40평
● 가액 : 700만원
016)793-3337

불자 세상보기

근거없는 성과급…퇴직금 누진제 계속 적용
노조달래기 특별보로금…운전기사 연봉 6100만원

'혈세' 축내는 공기업들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는 기업, 업무가 없어도 감투가 늘어나는 기업, 적자를 내면서도 급여와 퇴직금은 일반기업보다 많은 회사….

감사원의 최근 감사결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들이 바로 이같은 행태를 일삼아 왔음이 드러났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기업들이 국민의 혈세로 집안잔치를 벌여 온 것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지 국민들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공기업 구조조정 실태 감사 결과 141개 감사대상 공기업 중 9개를 제외한 132개 공기업에서 모두 788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지적됐다. 일거리가 없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라는 명분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위 관리직이 노조에 가입해 전 직원의 97%가 노조원인 곳도 있고, 근거없는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노조의 입을 무마시키기 위해 거액의 특별보로금을 지급한 은행도 있다. IMF 이후 국민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는 동안 이들은 자신들만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다. 한마디로 '도덕적 타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사례별로 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건설교통부 산하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가 각각 자회사로 운영하던 감리공단들을 통합해 설립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물량 감소로 99년 이후 130여명의 유휴인력이 생겼는데도 재택근무 또는 보직대기 발령을 내 32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차량운전기사의 연봉을 6100만원, 사무보조원의 연봉을 4300만원이나 줄 정도로 고임금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포항제철 등 14개 기관은 97년부터 올해까지 특별성과급, 특별격려금, 보로금 등의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임직원에게 444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기준급여인 월봉에 중식보조비 등을 포함시켜 139억원을 과다책정했고, 국민은행 주택은행 서울은행 등 40개 기관은 99년부터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를 존속시키고 있어 엄청난 액수의 퇴직금을 추가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종합화학의 경우 96년부터 99년까지 1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면서도 막연한 청산계획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고, 한국감정원 등 36개 기관은 1572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했다.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94년 이후 국내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조4천억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IMF시기인 99년에 임금을 15.6% 인상했는가 하면, 현직 임원 57명에게 4억6천여만원의 성과급을 과다지급했으며, 국민은행은 노조가 행장 취임에 반대하자 특별보로금 16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잡아함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눈병에 걸린 한 비구가 연꽃 향기를 맡기 위해 앉아 있었다. 그러자 연못을 지키고 있던 천신이 "그대는 왜 연꽃을 훔치는가? 그대는 꽃향기를 훔치는 도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비구가 "꽃을 꺾지도, 빼앗지도 않고 향기만 맡았거늘 어찌 나를 도둑이라 하는가"라고 반문하자 천신은 "스스로는 버리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꾸짖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공기업들에게 더욱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IMF 사태를 계기로 범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제살 찌우기'식의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점이다.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는 부처님의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가르침을 생각하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조치로 공금을 축낸 경우는 별도로 추징조치를 취하고 책임자 모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휴대전화-PC통신 수사기관 감청 오히려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수사기관이 의뢰한 일반 감청 행위가 70% 이상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의 감청 행위는 특히 인터넷 E메일은 물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어 또다시 사생활 침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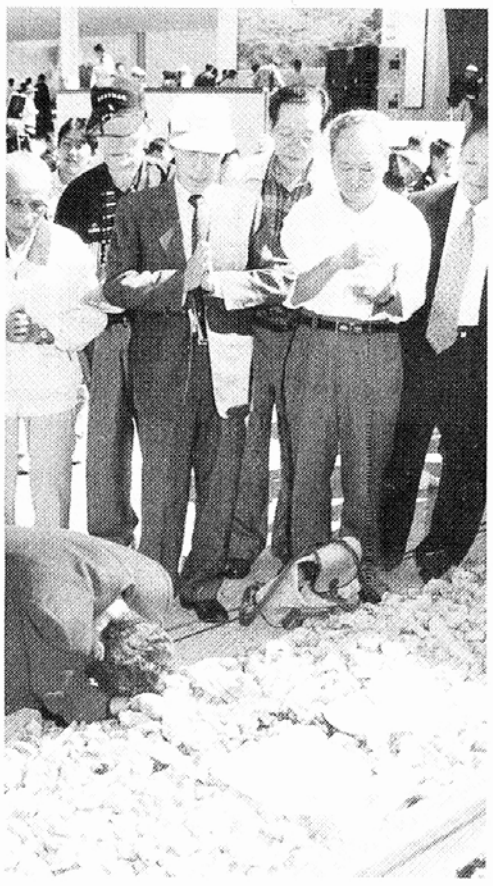
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중 수사기관이 의뢰한 일반 감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82건보다 37.4% 줄어든 1115건이며, 긴급 감청도 전년도 96건에서 금년 68건으로 29.2%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감청 건수만을 집계한 것으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PC통신 등에 대한 통신자료 협조요청까지 감안하면 수사기관의 감청 행위는 오히려 대폭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협조건수는 99년 상반기 4만8215건에서 올 상반기 5만3891건으로 11.8% 증가했고, PC통신은 611건에서 1079건으로 76.6%나 증가했다. 또 상반기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128건, 통화 내용에 관한 자료 제공건수는 5만3891건에 달하는 등 휴대전화가 집중 감청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가입자의 주소나 성명, 상대통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협조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8%가 늘어 유선전화의 요청건수(1만9천여건)를 2.8배나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기·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물론 휴대폰 사서함 비밀번호나 전화통화 내용·주민등록등본을 수시로 빼내는 등의 심부름센터 불법행위나 일부 카드사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 등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마당에 정부마저 감청을 강화한다면 국민들은 누굴 믿고 생활하라는 것인지 답답해한다.

〈전륜성왕수행경〉에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말이 있다. 수사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감청은 마땅히 줄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기차타고 북녘 고향 갈날 온다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복원공사 기공식이 열린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서울 옥천암 신도 정순녀(60) 불자가 황해도에 살고 있는 작은 아버지 정윤섭씨를 만나길 기원하며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오재덕씨(사진작가)

종교인 사회영향력 '미약'

한국 언론재단 조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종교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7월말부터 한달여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남녀 1200명(18세 이상 65세 미만)을 상대로 1대1 대인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언론매체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사회집단 중 종교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치인(56.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론인(9.6%) 관료(9.2%) 기업인(7.5%) 시민운동가(6.0%) 법조인(3.2%) 의료인(1.6%) 교육자와 노조(각 1.4%) 순이었으며, 종교인은 군인과 함께 1.3%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지도자가 드물고, 종교의 사회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각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부족해 사회가 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컴퓨터 어린이 정서 악영향"

美 아동단체 보고서

컴퓨터가 어린이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의 통념과 반대되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아동옹호단체인 '아동연합'은 '아동기 컴퓨터 사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컴퓨터는 어린이들에게 시력저하 비만 등 신체적인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정신적 발달장애를 유발하기 쉽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협동심 등 아동기에 습득해야 할 중요한 자질들을 배우는 데 컴퓨터가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에게 또래 친구들과의 게임이나 체험학습과 같은 직접 경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시론

총체적 위기다

인간은 시간 안의 존재이다. 욕망의 중심 축을 살다 보면, '시간자체를 소유할 수 있다'는 상상까지 하게 된다. 순간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상상은 비극을 초래하는 원천이 된다. 반야의 지혜는 인간이 시간 안의 존재임을 성찰 할 때 터득되는 지혜이다. 그것은 바로 무소유의 정신과 상통한다.

관용-유연성 발휘 절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위기감이 사회전반에 급속하게 만연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은 악몽의 '검은 월요일'로 뇌리에 각인되어, 3년 전의 'IMF 위기'를 다시 느끼게 하였다. 유가가 치솟고, 대우차 인수포기로 구조조정의 부진은 다시 불거지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매하고, 정치권은 수많은 악재에 대처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진원지로 바뀌고 있다. 더욱이 전국의 의대교수들의 의약분업에 대한 초강경 성명서가 나온 바 있지만, 정치권은 '너흰 떠들어라, 내 갈 길은 간다'는 식으로 무반응이다.



김 용 환
〈충북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현금의 총체적 사회위기감은 〈도덕경〉의 이러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삶에서 벗어나 자진하여 죽음으로 뛰어드는 수가 있다. 제 수명을 다 하는 사람이 열 중 셋이요, 단명으로 죽어 가는 사람이 열 중 셋이요, 장수할 사람이 사지(死地)로 뛰어드는 사람 역시 열 중 셋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지나치게 오래 살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늘은 장수를 수명으로 주었건만 인간의 과욕이 오늘의 사지(死地)를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삶에서 관용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결여될 때, 생명의 풍요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중심 축으로 삼는 사회위기감이 고조되기 마련이다.

의약분업의 경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근본취지는 옳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근본취지를 지나치게 경직하게 의식하여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종국적인 피해는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복리와 이익보다 더 큰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약을 어디에서 사고 치료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는 환자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를 지나치게 제약하면, 환자의 자유선택권을 침범하는 꼴이 된다. 현명한 환자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운데, 의료 정책의 유연성마저 상실한 나머지,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이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다. 종전보다 두 배가 된 진료비와 약값은 유가인상에 따른 전기료의 대폭 인상분과 함께 국민들의 살림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고도 왜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맡아야 하는지, 이전에 만반의 대책을 왜 수립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이다.

앞으로 몇개월을 잃게 되면 우리 경제가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마이 웨이'만을 외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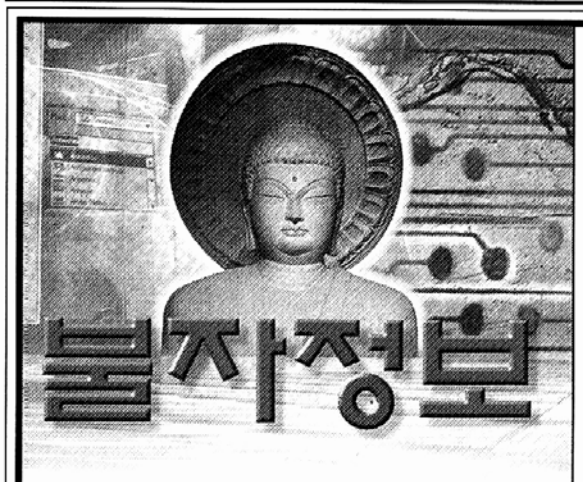
누구든 시간 안의 존재임을 망각하여 사태의 공정성을 직시하지 못하면 결국 집단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특정 개체를 살리되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사회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제는 누란(累卵)에 처한 총체적 사회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생명화육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반야의 칼'이 더 없이 소중한 때다.

탐욕도 성냄도 벗어놓고

'반야의 칼'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과 통한다고 할 것이다. 현금의 비극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관용과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공동체적 생명을 압사시킬 정도로 경직되어 가는데 있다. 관용과 유연성 발휘를 발원하는 심정으로 옛 선현의 시구를 인용해 보고자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반야의 지혜를 회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라고 생각된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포교원 안내
- 위 치 : 부산시
- 법 당 : 42평
- 방 2개 : 주방 삼존불 철성 신중 후불탱화 연단 시설 완비)

전세 시설비 합 3000만원
051) 338-5739 / 333-5789

암자 안내
- 위치 : 가평군 (암자)
- 평수 : 1000평 이상 법당, 요사채,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기타등등
- 가액 : 답사후 결정, 전세 월세 매매가능

계곡과 물이 좋음. 산세 좋음
017)708-0635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인양
- 대지 : 70평 건물 약 60평, 법당 20평 공양실 16평
- 특징 : 사찰내 모든 집기류 무상 제공 심야 전기 보일러, 화장실 3개, 욕실 2개
- 가액 : 8천만원 (전세가능)

052)254-1929
011)9315-1200

사찰 안내
- 위치 :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북한강 부근)
- 대지 : 404평 (절 주변 땅 매입 가능)
- 특징 : 산속에 약수, 연못 (연꽃·잉어)
- 가액 : 3억 5천만원

031)771-4942

사찰 매매
- 경남 고성 대가면 황토방 2칸 분양 1칸 2000만원 자연 경관 환경 좋음
- 마산 무학산 완월동 내 암자 양도 매매

011)839-4862
055)674-2205

사찰 안내
- 위치 : 남원 전주간 국도 2분거리
- 대지 : 120평, 법당 30평 방 7개, 삼존불 (108불조성)
- 가액 : 6천만원

063)634-8607
017)622-1491

사찰 안내
- 대 지 : 270평
- 법 당 : 16평
- 지장전 : 47평
- 지하실 : 60평, 3층 건물
- 요사채 : 28평
- 가 액 : 2억 7천만원

011)954-0509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시내
- 대지 : 1500평 이상
- 건물 : 28평
- 가액 : 답사 후 결정

인천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위치 전망 좋은 명당임
011)321-0194

사찰(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
- 대지 : 142평, 田 3500평
- 가격 : 평당 2만원
- 위치 : 경기 연천
- 田 : 918평
- 가격 : 평당 8만원

031)834-4324
016)768-4324

포교당 안내
◆위치 : 대방동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 5번 출구)옆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욕실 및 다용도실
◆가액 : 보증금 5천만원(월6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 약 830평
- 특징 :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동 각 30평씩, 방6개, 사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납골당불사주읍내 수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스님이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미륵 3존불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남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남
- 대웅전 20평 목조, 요사채 40평
- 100년된 사찰임
- 권리금 : 2500만원
- 임대료 : 월 63만원

011)696-4848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입니다.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800평 현재 현탑 현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 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액 : 2억 5천

018)533-7780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변비개선
◆손발냉증·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환(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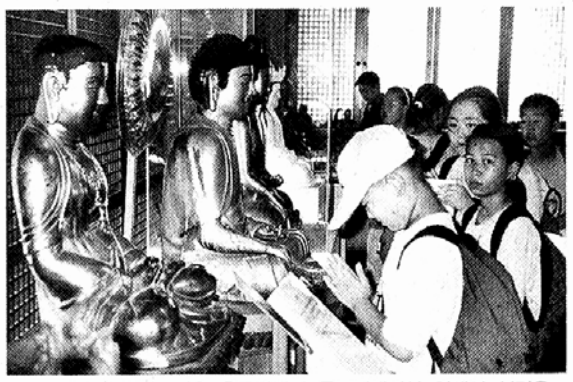
테마박물관 볼게 많네요

불교, 교육, 김치, 철도 등 특정 주제의 전시물만을 다루는 전문 테마 박물관들에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늘고 있다.

이런 박물관들은 한 가지 주제를 두고 그 역사와 변천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 전문 분야의 정보는 물론 현장 학습을 할 수 있게 꾸며져 있어 교육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각 박물관에서는 원할 경우 전문 가이드와 학예 연구사들이 안내도 직접 해줘 학교 수업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없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린이들이 가볼만한 테마 박물관

	박 물 관	전 시 물	전 화
불교	목아불교박물관	불교공예품	(031)885-9953
	불교미술박물관	불교미술품(12월 개원 예정)	(02)766-5000
	직지사 성보박물관	불상 및 석조 불교 유물	(054)436-6009
	승광사 성보박물관	탱화 및 불교의식구	(061)755-0407
	통도사 성보박물관	탱화 전문	(055)382-1001
	월정사 성보박물관	불교문화재	(033)334-1817
일반	국립민속박물관	민족 풍습과 생활	(02)734-1347
	국립중앙박물관	국내문화재	(02)398-5000
	삼성어린이박물관	과학기자재 · 미술품	(02)2203-1871
	삼성출판박물관	책 전집류	(02)679-4597
	궁중유물박물관	조선왕조의 유물	(02)771-9951
	해강청자박물관	도자기류	(031)632-7030
	김치박물관	김치 · 용기류	(02)419-9087
	농업박물관	농기구	(02)397-5673
	철도박물관	철도역사 · 기차	(031)461-3610
	산림박물관	국내 식물	(031)531-3894
	호림박물관	토기류	(02)858-2500
	교육박물관	교육 관련 물품	(031)989-8580



◇목아박물관을 찾은 초등학생이 목조여래좌상 앞에서 설명을 수첩에 적은 뒤 합장하고 있다.

성보박물관 동종·석불·탱화 관람객 반겨

교육박물관 구한말 이후 교재 1만점 전시

우선 불교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라면 불교 목조각이 전시돼 있는 여주 목아박물관을 찾아가보자. 실내와 야외 어디를 가나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목불상을 만날 수 있다. 또 목불상의 탄생 과정을 영상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어 새싹불자들이 불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다.

나들이를 겸한 박물관 답사를 원하면 김천 직지사와 순천 송광사, 평창 월정사 등에 있는 성보박물관도 좋다. 이곳들은 자연 풍광이 수려한 사찰 옆에 위치해 있어 가족 단위의 사찰 답사 때도 가볍게 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에는 희귀한 도리사 금동육각 사리함(국보 208호)과 김용사 동종 등이 새싹불자들의 메모수첩을 꽉 메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 김포 덕포진에 생긴 교육박물관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60~70년대 시절 초등학교로 되돌아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96년 초등학교 교사 부부였던 김동선 · 이인숙씨가 30여년 간의 준비 끝에 개관한 이곳에는 구한말부터 지금까지의 교육관련 물품 1만 여점이 전시돼 있다.

17일 이 박물관에서 만난 삼성초등학교 3학년 김인혁군은 난생 처음보는 맷돌을 신기한 듯 두드리고 단기로 표기된 통지표와 세줄짜리 주판 등을 만지작거리며 즐거워했다.

이외에도 도자기의 제작 과정을 한눈으로 보며 실습할 수 있는 해강청자박물관,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철도박물관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㉑ 영조의 청룡사 · 흥국사 편액



◇청룡사 비각 편액



◇흥국사 약사전 편액

영조(英祖/ 1694~1776)는 조선 제21대 왕으로 숙종의 넷째 아들이며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이름은 금(昤)이다. 영조는 1721년 왕세자에 책봉돼 1724년에 즉위했는데, 50여 년의 긴 재위 기간 동안 탕평책(蕩平策)을 통해 당쟁 방지에 힘썼다. 또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으며, 균역법 실시와 '속대전'을 편찬하는 등 조선 후기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걸쳐 부흥의 기틀을 마련한 임금이었다.

사찰에 전하는 편액 중에는 영조의 고양 흥국사 〈약사전〉, 서울 청룡사 〈전봉후암어천만년〉 편액 외에도 어필이 적지 않은데, 고려의 것으로는 공민왕의 부석사 〈무량수각〉이 유일하다. 또 조선의 것으로는 세조의 공주 마곡사 〈영산전〉, 정조의 해남 대둔사 〈표충사〉, 숙종의 법주사 〈대웅보전〉, 순조의 순천 선암사 〈대복전〉, 헌종의 합천 해인사 〈사방무일사〉, 고종의 예산 보덕사 〈소석시경〉 등이 있다. 불교를 멀리했던 조선의 통치 이념과는 달리 역대 왕들은 불교를 신봉하면서 국가와 왕실의 번영을 기원했고, 그런 지극한 마음을 담아 불보살을 모신 전각에 제액(題額)했던 것이다.

서울 숭인동 청룡사 정업원구기비각에 걸린 〈전봉후암어천만년〉 편액은 조선 단종의 비 정순왕후(定順王后)가 영월로 유배가는 단종과 이곳에서 작별하고 정업원으로 출가해 허경(虛鏡)이라는 비구니로 살았던 까닭에, 영조가 1771년 이를 기려 비를 세우고, 비가 오래 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이 편액의 글씨는

전봉후암… 단종의 비 추모심경 피력

약 사 전 나라발전 염원 담긴 글씨

송설체(松雪體) 풍의 가느다란 행서로, 액관 좌측에 두 줄로 '신묘구월육일 음체서(辛卯九月六日飮涕書)'라는 서자의 심경을 짐작할 수 있는 부기(附記)가 있다.

고양 흥국사 〈약사전〉 편액은 1770년 영조가 생모 숙빈 최씨의 묘인 소녕원(昭寧園)에 가던 중 이 절에 들려, 이 곳의 약사불이 나라를 흥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절 이름을 흥국사(興國寺)로 고치고, 절을 망모(亡母)의 원찰로 삼으면서 함께 쓴 글씨로 전한다. 편액의 글씨는 결구가 단정하고 혼후(渾厚)한 운필(運筆)의 행서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건강백과

다이어트

비만은 온갖 성인병의 주범이다. 하지만 살을 빼기란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 2,800여종의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효과적인 살빼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백명기박사는 최근 발간된 그의 저서 〈다이어트 2025〉(푸른솔刊)에서 누구나 무리하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이어트법을 소개하고 있다.

1)3R다이어트

올바르게 먹고(Eat Right), 지방이 빠지도록 올바로 운동하고(Exercise Right), 생각을 올바로 바꾸는(Think Right) 것이다.

△우선 식이요법으로 지방섭취를 줄이고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섭취한다. 또 음식은 천천히 먹되 가급적 패스트 푸드나 외식을 줄이며, 식사 1시간 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체내 지방분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덤벨 운동과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패스트푸드 줄이고 물 충분히

굶기보다 먹고 운동해 살빼기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굶어서 살을 빼면 지방은 줄지 않고 근육과 수분만 빠진다. 굶어서 빼기보다는 먹고 운동해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1주일에 0.5kg 정도가 적당하다.

2)작심삼일 다이어트

인간이 배고픔을 가장 절실히 느낄 때는 단식이나 절식을 시작한지 72시간 전후 즉 3일이다. 그러면 1주일에 3일씩만 다이어트를 하면 어떨까. 월~목요일은 학교나 직장에서 평소대로 먹되, 금~일요일 3일간만 양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평소대로 먹을 때는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특히 식사시간을 잘 지킨다.

△둘째, 할 일을 빨리 끝내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한다.

△셋째, 체중계를 겁내지 말고 체중을 자주 잰다.



◇청담정보통신고 네트워크 디자인과 학생들이 웹디자인 개론에 대해 강의 받은 뒤 컴퓨터로 실습하고 있다.

내년 전자상거래과 생긴다

청담정보통신고…기숙사 제공

종립학교인 청담정보통신고가 내년 학기부터 특화된 전자 상거래과를 신설하는 등 정보화 사회의 중심에 서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로부터 특성화고교에 선정된 청담정보통신고는 기존 정보처리과와 경영 정보과 외에 올해 처음 네트워크 디자인과를 신설해 웹CF, 전자출판, 웹마케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어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사물놀이와 국악기로 구성된 취타대와 불교동아리 등 정규 수업 외의 특별활동도 활성화돼 있다. 특히 취타대는 국악대학 교수와 인간문화재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지도받는 꾸준한 노력 덕택에 실력을 인정받아 2002년 월드컵 개막 행사에서 공연키로 돼 있다.

이외에도 청담정보통신고는 정보통신 분야의 인재를 모으기 위해 학생선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타 지역 학생들이 입학할 경우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전교생들이 24시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1인 1컴퓨터 체제를 구축해 놨다.

이근우교장은 "우수한 불자 청소년들이 지원할 경우 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실용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과 과정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키워주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031)691-8095 김주일 기자

탑골공원 환경봉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이하 청교련)는 24일 종로 탑골공원 일대에서 2000년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가족과 함께 우리 문화 보존하기'를 열었다.

2백여명의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공원 내 동상 및 벽화 물청소를 비롯해 공중 화장실 청소, 수목 거름 주기, 화초 물주기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초등생 자기표현 훈련

목동청소년수련관은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개월 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표현 훈련' 교육을 실시한다.

주1회 1시간씩 총 8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스피치 훈련을 비롯해, 공격적인 표현을 온화하게 바꾸는 감정순화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2646-8341

청소년 단신

청소년 영화 무료상영

인천시 청소년회관은 10월 한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 건전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상영일정은 △1일 '인사이더' △8일 '롤로보스' △15일 '컵' △22일 '데스티네이션' △29일 '책상서랍속의 동화' 등이다. (032)884-2002

청소년 쉼터 협의회 발대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는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청소년 쉼터 협의회' 발대식을 봉행했다. 전국 30여개의 쉼터 관계자 2백여명이 동참한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 쉼터의 올바른 운영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 형식의 심포지움도 열렸다.

만해대학 27일부터 수행 · 강좌

대한불교청년회부설 청년만해대학은 27일부터 3개월 동안 '만해대학 가을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청년 불자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실천 수행의 배움터 역할을 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실습과 토론 강의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에서는 △불교수행 △불교사 △국제불교의 흐름과 현황 등으로 나눠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을 비롯해 송위지교수(한국외국어대), 박경준교수(동국대) 가 주제별로 강의한다. 또 모든 강의가 끝난 뒤에는 산사에 가서 그동안 배운 교리를 바탕으로 정진을 하는 '산사 수행체험'도 한다. 강의시간은 매주 월 · 목요일 저녁 7시 30분~저녁 9시 30분까지다. (02)739-4448

바로보인
환단고기



시공이 나뉘기 이전인 태초의 모습과 우주 탄생의 비밀을 최초로 밝히다!

『환단고기』는 세계를 다스린 웅장한 고대사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고대 역사가 담겨 있는 역사책이다. 또한 역사책이라고는 하나 태초로부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광활한 민족사를 찾고 황폐해진 인류정신을 다시 꽃피우고자 하는 것이 『환단고기』를 오늘에 맞게끔 되살려 『바로보인 환단고기』로 펴내는 뜻이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4권 중 1권은 민족정신의 정수이자 우주의 영원한 역사인 『환단고기』의 삼신일체사상을 총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이어서 2, 3권에 환국에서 단군조선에 이르는 고대 역사와 북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출간할 예정이며, 4권에서는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글을 실어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2, 3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 문헌을 근거하여 『환단고기』의 기록을 부인할 수 없게끔 최선을 다하였다.

『환단고기』가 전하는 선조의 지혜에 가만히 귀기울여 보라.

정신과 물질이 나뉘기 전 우주의 모습과 인류 정신의 시조였던 조상의 진면목에서 태초로부터 고대가 오늘에 살아 숨쉬는 당신의 실존을 확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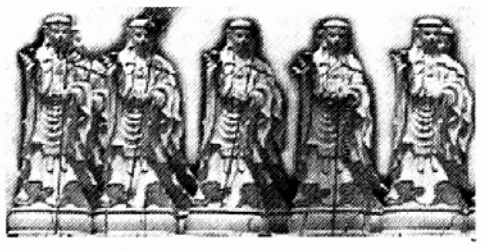
☞ 바로보인의 책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우문관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벽암록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상아

바로보인

○ http://www.zenparadise.com ☎ 597-2460

지장보살님을 모십니다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동 안 거
선 방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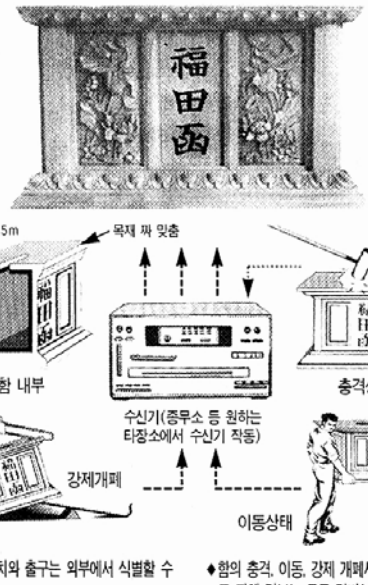
보덕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안거선방
안내를 드리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 스님들께서는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정진 하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주 소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824-1
문의처 : 02) 914 - 4235

보덕선원장 오본 합장

불 전 함

도난방지 장치 ◆특허 2000-0011559◆



◆잠금장치와 출구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음.
◆특수 전자시스템이 금고 내부에 설치되어, 지정된 원격작동 S/W전파와 개폐가 절대 불가함.
◆옥외용과 현지 사정에 따라 모델, 크기, 소재, 색상 등 주문생산이 가능함.
◆함의 충격, 이동, 강제 개폐시 무선 전파로 자체 경보는 물론 경비실및 원하는 타장소에 침입사실을 알려 줌.
◆본 함의 전원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경보는 계속되고 개폐기능은 마비됨.

본 System에 대형 사이렌을 연결 중요시 설물에 방범용으로도 가능함.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 문의:043-647-2378, 011-467-1472

염 주



- 금강주염주세트 30,000원
- 도실백팔염주(특) 40,000원
- 마노백팔염주8mm 40,000원
- 백옥백팔염주(대) 40,000원
- 백옥백팔염주(소) 30,000원
- 백조목백팔염주 40,000원
- 보리수납작백팔염주 30,000원
- 생광석백팔염주 35,000원
- 수암옥염주세트 98,000원
- 수정백팔염주 8mm 50,000원
- 수정컷팅백팔염주 90,000원

단 주



- 금강단주(특대) 11,000원
- 대추연꽃단주30mm 20,000원
- 도실단주(특) 10,000원
- 벽조목단주(소) 18,000원
- 사진단주25mm 46,000원
- 생광석단주 10,000원
- 주목단주 20mm 14,000원
- 주목단주 24mm 16,000원

합장주



- 무상합장주 14,000원
- 사금석T합장주 8mm 64,000원
- 수정주판알합장주 16,000원
- 수정컷팅합장주10mm25,000원
- 자수정마노합장주 16,000원
- 자수정커팅합장주 16,000원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달마장기



■ 재질 : 분청토+재유(천연유)
■ 가격 : 30,000원

달마 주병 세트



■ 재질 : 분청토+재유(천연유)
■ 가격 : 75,000원

오동나무 목침



■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 가격 개 체 형 ₩20,00원 무개체형 :₩15,000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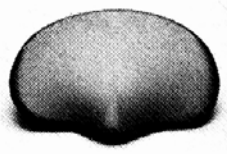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 가격:₩8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숯가반 ₩35,000
황토반 ₩35,000

실용신안1998-025009
의장등록14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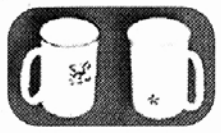
■ 규격: 39×43cm

청자당초 5人다기



■ 가격 :₩ 42,000
■ 요장 : 경기도여주
■ 재질 : 청자 토 + 재유 (천연유)

머그잔



■ 2개 1세트 가격 :₩ 5,700

500개 이상 주문시 10% 할인 및 단체명 인쇄
1000개 이상 주문시 15% 할인 및 단체명 인쇄

가마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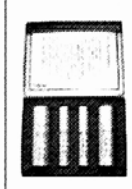
■ 가격 :₩30,000
■ 요장 : 경기도여주
■ 재질 : 바이오세라믹

옥베개



가격 : ₩33,000

석씨향방 오분향, 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영기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지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백화향 선물세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꽂이



가격: ₩50,000

보원향 선물셋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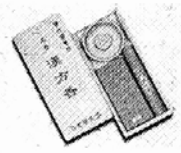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꽂이



가격: ₩60,000

한방향 선물세트

향통+한방향+향꽂이



■가격 ₩25,000원

제기 보관함



규격 : 58Cm * 42Cm *48Cm
재질 : 지리산 오리목
가격 : 75,000원

찻 상



재질 : 소나무 원목
가격 : 5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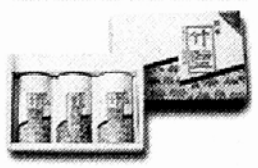
삼보죽염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삼보미용죽염 (250g) 가격 :₩3,500
- 삼보미용죽염 (500g) 가격 :₩6,500
- 삼보순소금 (500g) 가격 :₩6,500
- 삼보죽염 200g 가격 :₩36,000
- 삼보죽염 600g (Set) 가격 :₩105,000
- 삼보죽염비누 (110g 2개) 가격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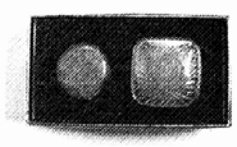
장군죽염



서해안의 청결한 국내산 천일염을 참대기름의 달아놓고 산속의 오염되지 않은 황토와 소나무 장작만을 사용하여 1300℃가 넘는 고온으로 금고 속에 넣어 내린 제품!!

- 장군죽염-2회죽염 가격 :₩4,000
- 장군죽염-3회죽염 가격 :₩6,000
- 장군죽염-9회죽염 분말 가격 :₩36,000
- 장군죽염-9회죽염 선물세트 가격 :₩108,000
- 장군죽염-9회죽염 선물세트 (소) 가격 :₩18,000
- 장군죽염-9회죽염 알갱이 가격 :₩36,000
- 장군죽염-9회죽염 홍화씨환 가격 :₩36,000

금비누



■ 2개 1세트 가격 :₩25,000

발마사지 헬스기구



다양한 기능의 첨단고급 재료로 제작
가격: ₩39,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죠연열 건강벨트



원하는 온도조정 (36℃~70℃) 가능

가격: ₩105,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제기와 제구

제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지내는 것으로 인류 문화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제사는 동서 고금의 어느 사회에서나 행여져 왔다.
제사는 인류의 정신 사용에는 비롯된 것으로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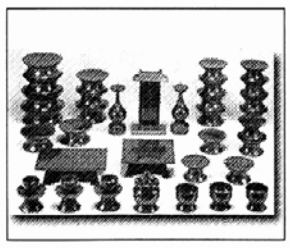
■ 제구의 종류

- 병풍(屛風) 제사를 지낼 장소의 뒤와 옆 등을 둘러친다. 현란한 그림이 그려졌거나 정사찬치에 관련되는 내용의 글씨가 있는 것은 피한다.
- 교의(交椅) 신주나 위패를 봉안하는 의자로서 제상이 높으면 교의도 높아야 하고 제상이 낮으면 교의도 낮아야 한다. 요즈음에는 신위를 보통 제상 위에 봉안하고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신위판(神位板) 제사 도중 지방을 올려 놓을 비품이다. 이는 예전의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신주 형태의 목패(木牌)로 제작하여 의자와 제상에 세워 놓거나 작은 사진 액자 모양의 목판으로 제작하여 기대어 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주는 관리와 예법이 엄격하고 까다롭지만 신위판은 임시로 지방을 올려 놓는 기구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다.
- 제상(祭床) 제사음식을 차리는 상이다. 120x80㎝ 정도가 되어야 제수진설에 적당하다.
- 향안(香案) 향상(香床)이라고 한다. 향로와 향합, 모삿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이다.
- 주가(酒架) 주전자,현주병,퇴주기 등을 올려 놓는 작은 상이다.
- 소탁(小卓) 축판을 올려 놓고 신위를 봉안하기 전에 임시로 모시는 작은 상이다.
- 소반(小盤) 제사 음식을 진설하기 위해 올릴 때 쓴다.
- 촛대(燭臺) 지상에 촛불을 밝히기 위한 도구이다.
- 향로(香爐) 향을 사르는 기구이다.
- 향합(香盒) 향을 담아놓은 그릇
- 모사기(茅沙器) 모래와 띠 묶음을 담은 그릇. 강신 때 뇌주를 여기에 붓는다. 이는 음지(땅)에 있는 신(백鬼)을 부르는 의식이다. 형태는 보통 굽이 있는 꽃꽂이 수분(水盆)과 유사하다 여기에 깨끗한 모래를 담고 띠 한 묶을 한 뼘 정도로 잘라 가운데를 붉은 실로 묶어서 모래에 꽂는다. 이것은 땅바닥을 상징한다. 요즈음에서의 제사는 땅에다 바로 뇌주를 붓게 되므로 모사기를 쓰지 않는다.
- 축판(祝板) 축문을 끼워 놓는 투명이 붉은 판이다. 크기는 사방 30㎝면 적당하다. 요즈음은 결혼판이나 흰종이로 대체하는 것도 무방하다.
- 자리(석席) 바루나 방에서 지낼 때는 하나면 되지만 묘제에는 바닥에 골 만큼 준비해야 한다.
- 지필묵연함(紙筆墨硯函) 축문을 쓰거나 지방을 쓰기 위한 한지,붓,먹,벼루 등을 담아 두는 함이다.

■ 제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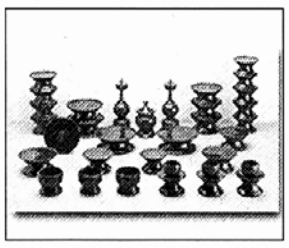
- 시접(匙接) 수저를 올려놓는 제기로 대접과 모양이 비슷하다.
- 탕기(湯器) 탕과 국을 담는 제기로 여러 모양의 것이 있다.
- 두(豆) 김치와 젓갈을 담는 그릇으로 굽이 높고 사각형이다.
- 떡그릇(병대) 떡을 담는 제기로 위판이 사각형이다.
- 모삿그릇(茅沙器) 모래와 띠의 묶음을 담는 그릇으로 모시기처럼 생겼으며 굽이 높다.
- 준항(준缸) 술을 담는 항아리이다.
- 준작(준勺) 주기로서 사기와 구리로 만든다. 작은 세 부리 모양으로 생겨 술을 따르는데 쓰인다.
- 변 과실과 건육을 담는 제기로 받침을 높게 하여 대나무로 엮어서 만들었다.
- 조(俎) 고기를 담는 도마 모양의 제기로 받침이 달려 있다.

남원 동천목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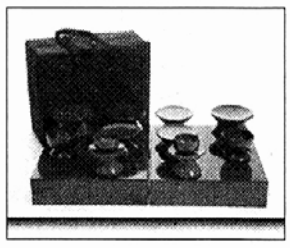
■ 재질 : 지리산오리목
■ 가 격 : 172,000원

남원 동천목孝제기



■ 재질 : 지리산오리목
■ 가 격 : 203,000원

성묘용 이동식(휴대용) 제기



■ 재질 : 지리산오리목
■ 가 격 : 88,000원

음 반



- 무비스님강의집(금강경 테이프 20개) 가격 :₩45,000
- 무비스님강의집(지장경 테이프 20개) 가격 :₩45,000
- 무비스님강의집(진심직설 테이프20개) 가격 :₩45,000
- 문구암스님범음범패집(테이프 20개) 가격 :₩66,000

· 관세음보살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중)(영인스님 CD)	₩10,000
· 금강경(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하)(영인스님 CD)	₩10,000
· 부모은중경(영인스님 CD)	₩10,000	· 지장정근(영인스님 CD)	₩10,000
· 석가모니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천도제 의식 (영인스님 CD)	₩10,000
· 신묘장구대다리니(영인스님 CD)	₩9,500	· 천도타령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약사여래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천수경 아미타경(영인스님 CD)	₩10,000
· 예불천수경 (영인스님 CD)	₩9,500	· 팔양경(영인스님 CD)	₩10,000
· 우리말 천수경(영인스님 CD)	₩10,000	· 화엄신중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장고가락 염불(영인스님 CD)	₩10,000	· 회심곡(영인스님 CD)	₩10,000
· 장엄염불(영인스님 CD)	₩10,000	· 날개 CD	₩10,000
· 지장경(상)(영인스님 CD)	₩10,000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선물세트1호 (고추장, 더덕장아찌, 각1Kg)	= 42,000원	※ 간장900ml서비스
선물세트2호 (무우, 오이, 감 장아찌 각 500g)	= 20,000원	※ 간장900ml서비스
선물세트3호 (된장, 고추장, 더덕, 마늘쫑, 무우장아찌 각500g)	= 39,000원	※ 간장900ml서비스



향적원 선물세트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8,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8,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 12,000원
- 냐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9,000원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홍화란?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화초로써 옛날부터 잇꽃이라 불렸으며 잎이나 꽃받침에 가시가 붙어있고 씨의 크기는 해바라기와 흡사하여 홍화꽃잎은 예로부터 옷감염료, 연지, 화장품으로 이용되었으며 한방에서는 통경제나 어혈을 풀어주는 과혈제등으로 사용되었다.



홍화씨

■ 원료 - 볶은 홍화씨 100%
■ 용법 - 볶은 홍화씨를 물2리터에20g정도 넣고 충분히 끓인 후냉장고에 보관후 수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 용량:500g (1봉지)
■ 가격:25,000원



홍화정

■ 원료 - 홍화씨 80%, 하수오 뿌리, 마뿌리 산수유 열매, 황기, 두충껍질, 잡쌀 등의 약재를 넣어 드시기 편하게 정(환)으로 만든 제품
■ 용법 - 1일 3회 매회 3g(T스푼 1숟갈)정도를 생강차를 곁들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 용량: 200g 3통 / 250g 2병
■ 가격:120,000원 / 77,000원



홍화분말

■ 원료 - 홍화씨 100%를 미세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
■ 용법 - 1일 3회 매회 3g (T스푼 1숟갈)정도를 생강차를 곁들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 용량: 200g 3통 / 250g 2병
■ 가격:90,000원 / 65,000원



홍화엑기스

■ 원료 -홍화씨 80%, 대추, 하수오뿌리, 마뿌리, 산수유, 황기뿌리, 두충껍질 등의 약재를 4~5시간 고농축 엑기스로 드시기 편하게 만든 제품
■ 용법 - 1일 2회 식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 용량: 80ml 60포/ 80ml 48포
■ 가격:128,000원 / 98,000원

베지푸드

콩에는 포화지방이 적고 아미노산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들어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비타민A,B,E,K)과 균형 잡힌 무기질(칼륨, 철, 인,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아이소플라본(제이스타인, 다이드제인)과 같은 식물성화합물로써 건강증진에 특효입니다.



콩살로만

■ 설명
콩단백과 유청단백에 천연향료를 첨가하여 담백한 햄맛을 낸 제품

ISO9002 인증획득
무방부제, NO 콜레스테롤

■ 수량: 1000g 2개
■ 가격:28,000원



콩살들이

■ 설명
콩단백과 유청단백에 천연향료를 첨가하여 담백한 햄맛을 낸 제품

ISO9002 인증획득
무방부제, NO 콜레스테롤

■ 수량: 1000g 3개
■ 가격:36,000원



콩비엔나

■ 설명
콩단백과 소맥단백으로 햄맛을 낸 제품, 도시락 반찬 및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 수량: 500g 4봉지
■ 가격:32,000원



버섯말이

■ 설명
고급 표고버섯에 유청단백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을 살려, 국, 볶음, 찌개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 수량: 150g 8봉지
■ 가격:32,0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리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현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이렇게 들었다 — 절약하는 자세

어떤사람이 백만장자에게 물었다. "부자되는 비결 3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백만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 검소하라! 둘째, 또 검소하라! 셋째, 그리고 또 검소하라!"

'유가급등 쇼크'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4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가 한국경제에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이 요구되는 때다.

최근 한솔CSN 엠서베이팀이 전국 20세 이상 2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5명 중 3명은 우리 사회의 에너지 과소비가 '매우 심각하다'며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구경〉에서는 "이 몸이 영원한 줄 어이해 믿었던고. 낭비를 일삼아 노병에 짝 잃으니 후회해 무엇하리"라며 일침을 놓고 있다. 왜 근검·절약하며 살아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다.

재물은 항상 검소하게 쓰라

▨재산을 잃는 여섯가지 원인은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여자를 밝히고, 도박에 빠지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게을러 방일함에 젖는 것이니라. 〈아함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여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한다. 〈사제경〉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며,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 〈선생경〉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과 손해됨을 잘 따져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알아 시행하기 때문에 바다에 강물이 끊임없이 모여들듯 재물은 나날이 늘어나리라.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 〈별역잡아함경〉

▨덕행을 닦는 총명한 사람은 산마루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난다. 벌이 먹이를 모으듯이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의 재산은 저절로 불어난다. 마치 개미집이 부풀어 오르듯이, 이와 같이 하여 재산을 모은 그는 집안에 복과 이익을 가져오는 가장이 된다. 그 재산을 네 몫으로 나누라. 그중 한 몫은 생활비에 쓰고, 두 몫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나머지 한 몫은 예치해 두라. 그러면 가난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장부경전〉

▨만일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땀흘려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남에게 이바지하고 스스로도 쓰며 널리 베풀어 복도 지으면 이 모두가 다 덕이 되는 일이니 욕심부리는 일 가운데 최상이니라.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앙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려 족함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속에 살아가는 사람중에 최상이니라. 〈복음경〉

▨아무도 제가 벌어 들인 것을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 중의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인연이 맞아서 제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된다. 〈육방예경〉

▨분수 넘은 탐욕보다 두려운 것 없고 궁핍보다 더 큰 배고픔 없다. 가난을 탓하면서 베풀어 보시하지 않으면 가난의 두려움은 금생에나 내생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 나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뜨지 못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죽더라도 태어나는 곳은 서로 다르니라. 〈잡아함경〉

▨그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 마땅히 할일을 하지 않는거나 다름이 없다. 미리부터 기울인 노력이어야 할 일을 다한 것이다. 〈밀린다 왕문경〉

▨무슨 일이나 먼저 하지 않으면 안될 우선순위를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에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자타카〉

▨절약하되 재물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에 취하고 홀리어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나니 〈잡아함경〉

신행 캘린더

'인류의 삶과 문화' 어떻게 볼것인가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11월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7시 대구모임 법당에서 '문화비평가 김충환의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에서부터 성문화, 과학기술문화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의 강좌가 8회에 걸쳐 마련된다. 강의는 지난 21일 첫 시간에 이어 28일 '인류조상의 삶과 문화(영화감상 '불을 찾아서')' 10월6일 '대중문화, 그 빛과 그림자', 10월12일 '이스터섬의 몰락과 인류의 미래(영화감상 '라파누이')', 10월19일 '성(性) 문화, 민족과 인종사이', 10월26일 '과학기술문명과 공동체 문화', 11월2일 '사랑과 불륜, 그 문화적 차이(영화감상 '스텐리와 아이리스' '지독한 사랑'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11월9일 '한민족과 우리문화'을 주제로 진행된다. 053)753-8883

9월 27일 (수)

■동화사 불교신행 교리 강좌=동화사 신도회는 대불전 지하 강당에서 '동화사 신도회 불교신행 교리 강좌'를 개최한다. 053)982-0101

■JTS 실직노숙자 수련=한국제이티에스는 3박4일(27일~10월1일)의 일정으로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실업자 및 실직 노숙자 집단상담(수련)'을 실시한다. 10월24~28일, 11월22~26일에도 진행된다. 매회 20명 대상. 수련비 20만원 및 왕복 차비를 지원한다. 02)587-8995

9월 29일 (금)

■행원문화상 시상식=행원문화재단은 오후2시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에서 제9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02)926-4377

■석불문화연 실크로드 탐방=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10월9일까지 10박11일의 일정으로 실크로드 탐방길에 나선다. 석불연구회는 옛 구법승들이 불법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왕래하였던 길 중의 하나인 서안, 천수, 난주, 과욕관, 안서 등의 불교유적지와 관광지 등을 둘러본다. 02)760-5171 유영열

■밀각 복지회 노인나들이 축제=진각종 밀각복지회는 임진각 일원에서 통일기원 한마음 나들이 축제를 갖는다. 서울 성동구 지역 노인 2백여 명과 복지회 소속 노인 40여 명이 참석한다. 오전8시 성동구청 앞에서 출발. 02)942-0144

■봉림사 백고좌 법회=경남 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30분 큰법당에서 전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스님을 초청, 백고좌법회를 봉행한다. 백고좌법회는 12월29일까지 매주 금요일 고승대덕을 법사로 진행된다.

9월 30일 (토)

■대불련 대경지부 체육대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부는 정오 경북대 농구장에서 지부 창립 체육대회(법륜제)를 개최한다. 016-808-8577 송재운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생명나눔실천회는 양일간(9월30일~10월1일) 수덕사에서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와 '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 02)734-8050

■정토회 토요철야정진=정토회는 오후10시 정토법당에서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토요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철야법회는 11월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02)587-8994

■진각종 경주포항지부 밀교교리대법회=진각종 총금강회 경주·포항지부는 오후2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혜정 종학연구 실장 초청, 경주·포항 밀교교리대법회'를 개최한다. 054)772-2723

10월 1일 (일)

■천태어린이 체육대회=천태종은 천태 어린이 중부지역 체육대회를 이천 장화사 부지에서 개최한다. 02)233-6210



◇염불만일회는 일년에 두번 '아미타불 정토세계'를 발원하는 성지대회를 갖는다.

■염불만일회 성지대회=전국 염불만일회는 양일간(1~2일)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서 가을 성지대회를 개최한다. 성지대회는 사리친견 및 염불정진, 등공탑 참배, 아미타춤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02)732-1215

■국운융창 및 남북통일 기원 방생법회=대한불교현수복지재단은 부산 수영만에서 '국운융창과 남북평화통일 기원 방생·수계 대법회'를 거행한다. (051)633-4421

법회안내

염불선원 점안 법문



서암 전 조계종 종정 스님은 10월3일 오전 10시 대구 염불선원이 봉행하는 '극락보전·지장전 준공 및 미타삼존 점안 봉불식'에서 법문한다. 053)782-0120

보현불교대 수계법회



법장 수덕사 주지 스님은 10월4일 오후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법문하고, 수강생들에게 계를 전수한다. 042)624-6555

'미래 인간상' 법문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9월28일 오후 7시30분 부산 정토회 강당에서 '미래문명을 이어갈 새로운 인간상'이라는 주제로 설법한다. 051)557-6372

'승만경' 설법



일진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스님은 10월4일 오후2시 정토사에서 〈승만경〉을 중심으로 법문한다. 스님은 11월1일, 12월6일 오후 2시에도 같은 주제로 강설한다. 052)258-9944

게시판

알림

▲무료 스포츠 마사지=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복지관 옥수1동 분소에서 무료로 스포츠 마사지를 실시한다. 02)2282-1102

▲수족침 무료강좌=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족침을 무료로 강의한다. 02)421-6077

강좌

▲발달장애아동 체육교육=자양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오후1시, 2시30분 복지관 체육실에서 발달장애아동(7~10세)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458-1664

▲기초교리반 수강생=통도사 부산포교원은 4일 오후2시 대광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기초교리반을 연다. 강의는 2층 화엄회관에서 진행되며, 2개월 과정이다. 051)816-2241

모집

▲서울문화바로알기 답사=터사랑은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문화유산 바로알기 답사여행을 떠난다. 답사지는 독립공원 전시관, 독립문, 사직관, 단군성전, 황학정, 서울 성곽, 국사당, 선바위 등이다. 02)725-1284

▲취업대비 국비훈련=연꽃마을은 10월13일까지 주부 및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국비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직종은 간병인, 교육은 10월16~20일 5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정부가 전액지원한다. 02)363-7884

▲차량 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차량 서비스를 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기초교리 수강생=정혜선원 정혜불교대학은 기초교리반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주간반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 야간반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7시30분에 강의한다. 02)971-7334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02)365-3677

▲장애아 자립교실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정신지체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개별 학습과 운동지도를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봉사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2~3시. 02)852-0525

▲가을 산사별식 연구회원=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0월10일~2001년 1월9일 매주 화요일 가을철 산사의 별식 배우기 제11기 정기연구회원을 모집한다. 02)355-5961

▲경전불학원 학인=해동불교경전 불학원은 3년 과정의 삼장법사 양성 2001학년도 학인을 모집한다. 02)741-0495

▲해외 포교사 지망생=자혜불교회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활동할 해외포교사 지망생을 모집한다. 미국전화:1-773-528-8685

구인

▲공양주=능인선원은 공양간에서 근무할 유급직원을 구한다. 02)577-5800

▲아동공부방 강사=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맡아 줄 아동공부방 강사를 모집한다. 032)677-0108

▲사회복지사=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 구비서류는 자필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본, 자격증사본 각1통이다. 051)363-2063

▲부전스님=부산 법연사는 인연 있는 비구니 스님과 부전스님을 모신다. 051)868-7733

▲간호사=인덕노인복지관은 간호사, 생활보호사 등을 구한다. 02)385-8207

화촉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서윤길 교수의 장녀 혜림씨가 30일 오후5시 공항터미널 3층 컨벤션센터에서 박진수씨와 화촉을 밝힌다.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종 교수의 차녀 현주씨가 10월1일 오후1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손형찬씨와 백년 가약을 맺는다.

▶ 49재 및 각종 불사의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

혜국스님의 천수경 강설집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
이 경 속에 깃든 심오한 뜻을 이해하십니까?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경전입니다. 따라서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일평생을 참선정진에만 몰두하신 혜국스님께서 선적인 안목으로 그 뜻을 풀이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워보십시오.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49재, 낙태아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4×6 판 / 값 3,500원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방법은?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불자의 기본 필독서 ◀

불교신행의 주춧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지침서. 신행에 있어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하게 엮었다.

우룡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5,000원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재미있게 엮었다.

일타큰스님 지음/ 4×6판 / 값 3,500원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염불·간경·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다.

일타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5,000원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관음신앙의 길잡이.

김현준 지음/ 4×6판 / 값 3,500원

기도



총 52편의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일타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5,000원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일타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5,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대승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육바라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천하지 않는 불자들을 위해 이 책을 자신있게 권한다.

김현준 지음/ 4×6판 / 값 3,500원

오계이야기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했다.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필독서.

일타큰스님 지음/ 4×6판 / 값 3,500원

불자의 기본예절



합장·절·사찰예법·법문 듣는 법과 절집안의 생활에절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엮었다.

일타큰스님 지음/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 지장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었다.

김현준 편역/ 신국판 / 값 5,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교신행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김현준 지음/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사물·석등·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사찰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김현준 지음/ 신국판 / 값 7,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부처님 품서 구김없이 자라요"

고아들 보금자리 경남 고성 '보리수 쉼터'

승욱스님 · 신도회 폐교 인수 23명 양육

해외여행 · 컴퓨터 · 예체능 등 교육 헌신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련리 연화산 기슭에 자리잡은 보리수쉼터. '부모없는 고아'들의 보금자리인 이곳에서 네 살바기 코흘리개에서부터 어엿한 대학생까지 23명의 형제가 '스님 아빠'로부터 넓고 큰 세상을 배운다.

추석연휴가 끝난 17일, 이 곳에서는 처음으로 가을운동회가 열렸다. 창원 한국중공업법우회 회원 50여명과 신흥화학 보리수회 회원 10명 등 든든한 후원자와 자립원 가족 20명이 함께한 이번 체육대회는 청 · 백 두 팀으로 나뉘어 축구 발야구 피구 이어달리기 탁구 등으로 진행됐으며 후원자들이 마련한 푸짐한 먹거리와 놀이로 흥겹게 진행됐다.

지난 5월 폐교가 된 좌련분교에 새 둥지를 튼 보리수쉼터의 아이들이 옥천사 청련암 주지 승욱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올해로 25년 째. 승욱스님은 암자에 버려진 갓난 아기를 거둔 것을 계기로 절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갈 동량을 키우는 '인재불사'에 매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이들외에도 고아 40여명을 더 홀로서기 시켰고, 동국대 · 중앙승가대에 각 2명씩 4명의 학인도 배출했다.

300여명의 신도들은 96년 '아이들이 홀로설 수 있는 30년동안 돌보자'는 취지로 '정토만일봉사회'(회장 손무연)까지 만들어 양육비와 교육비를 보태고 있다.

스님은 아이들이 또래집단과 당당하게 어울리고 경쟁할 수 있도록 방학때는 중 · 고생들을 외국으로 배낭여행 보낸다. 올해부터는 3~4년간 일정으로 '마라도에서 히말라야까지' 대장정에 나서는 계획도 세웠다.

보리수쉼터는 교실을 수리허만든 체육실 도서실 비디오감상실 강의실 음악실 컴퓨터실 등을 갖춰 마음놓고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경상 · 경남 · 창원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는 물론 학과 공부와 음악 · 미술 · 컴퓨터 · 탁구 · 합기도 등 과외공부도 지도해 줘 웬만한 교육시설 부럽지 않다.

승욱스님은 "앞으로 1만여평의 좌련분교 부지를 매입해 양로원과 청소년수련원 등을 갖춰 종합복지시설로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 청련암=(055)672-0078

경남 고성=김재경 기자



◇보리수쉼터 아이들이 한중법우회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 원내는 승욱스님.



◇99년 5층 법당과 학사를 준공한뒤 1년만에 다시 7층으로 증축된 관음사.

대구 관음사 법당증축 낙성

7층 건물에 선방·인터넷 TV방송국 등 갖춰

대구에 초대형 포교수행 공간이 문을 열었다. 불교교양대학 은영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포교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주지 우학 스님)가 20일 3천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지 7백평에 지하1층, 지상7층, 별채 2동 연건평 2천여평 규모를 갖춘 사찰증축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92년 70여 평의 포교당에서 출발한 지 불과 8년만에 3만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매학기 3천명에 육박하는 신입생을 수용할 수 없어 97년 대구시 남구 봉덕동 1301-20번지에 공사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관음사는 지하에 식당, 주차장, 신도요사채, 지상 1 · 2층에 종무소 인터넷TV방송국 컴퓨터실 탁아방 찻집 도서관 에니메이션실 스님요사채를 갖추고 있다. 3 · 4층에는 큰법당 겸 강의실, 문화관 5층에는 삼보전, 적멸보궁, 6층에는 불교삼장연구소 교재편찬회, 7층에는 수행관(선방 및 강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결혼식 및 세미나, 공연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된 3층의 문화관은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현대시설을 갖춘 관음사는 수행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재가불자의 교육 도량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음사는 낙성식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3층 · 4층 대법당에서 일타 · 수안 · 중광 스님 등의 선서화전을 갖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제주 관음사 통일염원 영산재

10월8~11일 한라산서…백일장도 열려

민족의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한라산 영산대재'가 10월 8~11일 제주 관음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주지 중원) 주최로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제관이 되어 봉행하는 이 행사에는 천도재, 경신공양재 등 불교행사와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 할망과 향토수호신을 위한 제례의식이 함께 치러진다.

이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한라산을 통해 제주를 신령과 인간 ·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는 평화와 문화의 섬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내 유치원 초 · 중 · 고생을 대상 청소년 문화사랑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시작으로 부처님, 천신, 한라산신, 해신에 대한 기원재, 4 · 3 원혼들의 맺힌 한을 달래는 천도재, 각 성씨의 입도 선조와 지역의 수호신을 모시는 경신공양재가 봉행된다.

또 인간문화재 구해 · 송강 스님이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영산재' 시연을 통해 범패와 승무 등을 선보인다.

관음사 주지 중원스님은 "이번 대재를 통해 제주의 설화 · 역사 속에 아로 새겨진 선조들의 고난과 아픔을 위로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평화와 문화의 고장으로 제주도를 알리고자 불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064)722-2829

김재경 기자

부산서 "국운융창" 수계법회

현수복지재단 1일 개최

노인무료진료 · 동물수기도

대한불교현수복지재단(법주 석가산스님)은 10월1일 부산 수영만에서 '국운융창과 남북평화통일 기원 방생 · 수계 대법회'를 거행한다.

전계아사리에 벽파스님(前 범어사 주지), 갈마아사리에 흥교스님(서울 대각사 주지), 교수아사리에 성오스님(범어사 주지) 등 3화상 7증사를 모시고 거행되는 이번 수계법회에는 신도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현수복지재단 산하 5개 의원에서 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특히 토종 어류 방생에 이은 애완동물 등 육도윤회중생 수기(授記) 대법회는 동물들이 다음 세상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 정진하기를 발원하는 자리여서 이채롭다.

석가산스님은 "자연환경 보존과 동물애호 및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남북 평화통일을 발원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051)633-4421

김재경 기자

법왕사 5천명 경로잔치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30일 대구 수성구지역 노인 5000여명을 초청, 제18회 노인경로잔치를 연다. 지난 92년 법왕사 개원이래 봄 · 가을 두차례씩 실시해 온 경로잔치는 매번 신도들이 직접 잔치음식과 선물을 마련하고 법왕사 사물놀이팀, 국악인, 연예인등이 자원봉사로 공연을 펼쳐 한층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다.

한편 법왕사 칠곡분원인 연흥사도 10월7일 노인 1000여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연다. (053)766-3747

김재경 기자

재소자에 합창단복 보시

선각종 정암총무원장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이 재소자들에게 합창단복을 선물하는 등 교정교화에 앞장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월 첫째 수 · 금요일 광주 · 장흥교도소에서 각각 재소자를 위한 법회를 개최해 온 정암스님은 지난해 광주교도소 불자 재소자들에게 합창단복 25벌을 보시한 데 이어, 지난 8일 장흥교도소 추석 위문법회에서 불자재소자들에게 합창단복 20벌을 보시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중단소식

조계종

3대 종회회의록 발간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최근 제3대 중앙종회 회의록을 발간했다. 총 500여쪽인 이 자료집은 1970년 9월 개원해 74년 8월 제36회 임시중앙종회까지 본회의에서 결의된 의결사항, 발언내용, 종정교시, 의원 구성 등을 담고 있다.

태고종

합동득도수계산림 입재

제24기 합동득도수계산림이 21일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입재식을 가졌다. 10월 25일까지 5주간 실시되는 이번 수계산림에는 1, 2차에 걸친 소양시험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남행자 109명과 여행자 22명 등 총 131명의 행자가 참가하고 있다. 매일 새벽 4시 새벽예불 및 정근, 강의, 참선수행, 저녁예불 및 1천배 참회정진 등을 실시하며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득도고시가 실시된다.

홈페이지 태고넷 개설



인터넷을 통한 종단 홍보와 사이버 포교를 담당할 종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taegonet.com'(사진)이 1년여간의 준비끝에 드디어 오픈됐다.

전산담당 종무위원 화경스님이 주축이 되어 제작된 태고넷은 종조 태고보우국사, 한국불교의 법맥, 불교의 대강령, 불교전래의 흐름, 태고종 종단사, 종단 소의경전, 종단기관단체, 종무소식, 종단사찰현황, 게시판, 방명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한 소개와 스님들 및 교임 신상, 종단 소속 단체들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종단 부설 단체와 기관지〈한국불교신문〉, 월간〈불교〉의 기사 내용도 매회 게재되며 앞으로 종단 소속 사찰 홈페이지와도 링크시켜나가게 된다.

보현사 건당식

태고종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는 19일 보현사 대웅전에서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건당식을 봉행했다. 건당식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의식으로, 원봉 주지스님이 이날 회갑을 맞아 13명의 제자에게 법을 전수했다.

천태종

대충대종사 7주기 열반재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한 대충스님의 7주기 열반대재가 30일 오전 10시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행된다. 이날 열반대재는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5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진각종

밀교문화대 일본성지순례

밀교문화대학은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성지순례를 떠난다.

통리원 포교부 호당 국장과 진각대 허일범 교수의 인솔로 수강생 25명이 참여하는 성지순례단은 고야산의 가탐 · 오쿠노잉, 나라의 동대사 · 법륭사, 오사카, 교토의 청수사 · 금각사 등을 순례하게 된다.

통일기원 임진각 나들이

밀각복지회는 29일 임진각 일원에서 통일기원 한마음 나들이 축제를 갖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게 된다.

서울 성동구 지역 노인 200여명과 복지회 소속 노인 40여명 등 모두 27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통일기원 한마음 나들이 축제는 오전 8시 성동구청 신청사 부지 앞에서 출발한다. (02)2292-8730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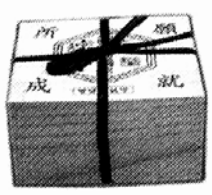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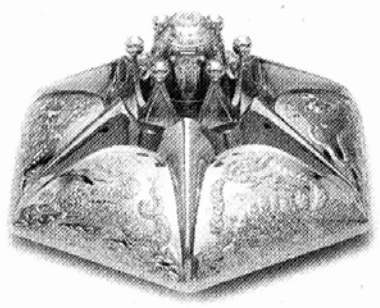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 꿈의 계시 ◆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기(氣)란 : 현실이다



◆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 주지스님을 친견후에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 철학관 선생님과 면담 후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 사용처 ◆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 · 의장등록 · 상표등록 (특허출원)

◆ 구 입 처 ◆ 전국불교용품점, 사찰 · 암자, 철학관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

봉은사, 10월17~21일 불교체험행사

아셈 참가자들 '손짓'

참선·발우공양등 다양…"한국불교 몸으로 느끼세요"

세계 25개국 정상들과 외무·경제장관 등 각료들뿐만 아니라 고위관리 2천여명, 각국 취재진 1천여명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와 문화를 보여줄 '불교체험 행사'가 정상회담장 앞 봉은사에서 열린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오는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셈회의 기간 이틀전인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경내에서 참선, 다도, 발우공양, 등만들기, 인경, 예불, 사시기도 등의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마련,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해 한국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당초 이 기간 등안 각종 불교문화공연을 포함한 불교문화엑스포를 개최키로 했던 봉은사는 장소섭외 등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 데다, 눈으로만 보게 하는 것보다는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케 하는 것이 한국불교를 이해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봉은사가 준비중인 프로그램은 참선, 발우공양, 등만들기 등 모두 7가지. 참선체험 프로그램은 17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오전 5시와 11시, 오후 5시 등 세차례에 걸쳐 1시간씩 '참선실수'로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선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봉은사 스님들이 참가 외국인에게 화두도 제시해 참선을 지도한다.

같은 기간 매일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발우공양체험'은 발우공양에 대한 안내서를 미리 배포하고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체험을 돕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다도체험은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동안 차에 대한 예법과 시음, 다식만들기 등으로 꾸며진다.

경내 법왕루에서 진행되는 '등만들기' 역시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데, 미술반, 사군자반, 서예반 등으로 편성된 봉은사 신도들이 '도우미'로 나서 참가 외국인들의 흥을 돋우며, 같은 시간 선불당 앞에서는 봉은사 관전의 초발심자경문 경판을 직접 인경하는 '인경체험'이 진행된다.

또 매일 새벽 4시30분부터는 도량석을 함께 돌고 직접 예불을 드리는 '예불체험'이, 매일 오전 10시에는 한국불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사시기도체험'이 대응전에서 실시된다.

한편 봉은사는 이들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진행을 돕기 위해 영어·일어 2개국어로 편성된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단'을 운영키로 하고 30일·오후 3시 경내 법왕루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이미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자원봉사단은 모두 40여명의 스님과 신도로 구성됐으며, 프로그램 진행 외에 봉은사 입구에 설치되는 '정보센터'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와 봉은사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정토회 긴급구조단(단장 유수스님)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태풍 샤오마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일대에 500여명의 구조대원을 파견, 벼를 일으켜 세우는 등 피해복구활동을 펼쳤다.

교계 복지시설 노인의 날 기념 '효도 한마당'

교계 복지시설들이 10월2일 제4회 노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친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10월2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저소득노인 1천600여명을 초청, '효도 큰 잔치'를 개최한다. (02)2203-3677

이에 앞서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9월29일 은평구청과 공동으로 관내 1000여명의 노인을 초청해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노인의 날 기념 특별대행사를 갖는다.(02)385-1351

또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도 9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복지관에서 노인 칠순잔치 및 축하공연을 프로그램으로 한 '제2회 만수무강 경로축제'를 개최한다.(054)458-0230

이밖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웅)은 28일 지역내 경로당 노인 60여명을 초청해 여주 온천으로 나들이 행사를(02)852-0352, 자양복지관(관장 장영심)은 관내 70여명의 독거노인을 초청해 포천 온천으로 나들이 행사를 각각 실시한다(02)458-6796. 또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훈)은 10월14일 체육대회를(02)929-7950,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21일 관내 노인들과 함께 10월21일 열리는 부천시 노인문화제에 참가한다.(032)325-2161 한명우 기자

대구지하철에도 '자비의 말씀'

풍경소리 게시 승인받아

대구지하철 역사에서도 '자비의말씀' 게시판을 볼 수 있게 됐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이사장 성운스님)는 14일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역내 '자비의말씀' 설치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풍경소리는 월배-안산간을 운행하는 대구지하철 1호선의 29개 역사에 각 역당 2개씩 총 58개소에 '자비의말씀' 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풍경소리 이용성 총무간사는 "비록 역사 수가 많지는 않지만 '자비의말씀' 게시판이 서울 및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구지하철 게시판 설치 승인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풍경소리는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전철 365개 역사의 1천여 개소에 '자비의말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매월 교체된 포스터는 27종에 이른다.

도필선 기자

신협횡령 관련자 5명 추가고소

조계종종회 조사소위 구성

조계사는 신협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이미 구속된 송석윤, 조택동씨 외에 전 총무원 재무계장 강의석씨 등 5명을 22일 서울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추가 고소는 현재 신협 이사장 및 임직원 모두의 권한이 정지돼 있어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신협 경영관리인 명의로 조계사측과 경영관리인 협의 하에 이뤄졌으며, 추가로 고소된 사람은 강의석씨를 비롯해 우순제(전 김포축협 검단지점장), 우덕제(우순제씨 동생), 윤여근(대우증권 차장), 정기창(송석윤 처남) 등이다.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신협 이사장)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우리가 파악한 내용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고, 횡령된 자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로 유입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불필요한 의혹을 사고 있다"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추가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강의석씨의 경우 주식 및 구권화폐, 우순제·우덕제·정기창씨는 구권화폐 사기와 관련돼 있고, 윤여근씨는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 지홍스님은 조계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교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협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며, 예금주들에 대한 조속한 보호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간사 종삼)는 18일 회의를 열고 조계사신협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소위 위원은 종삼(위원장), 장적(간사), 장운, 성관, 운달스님 등 5명이다.

조사소위는 25-27일 3일 동안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조계사 신협에 대한 재정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소위는 조계사신협 횡령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회계사 등 전문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성운·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의승 추모비 건립 추진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점령당한 청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름없는 의승·의병들을 넋을 기리는 추모비가 건립된다.

청주불교실업인회가 주도하는 청주성탈환기념사업회(회장 이주원)는 올해로 청주성 탈환 408주년을 맞아 무명 의승·병들의 조국애를 높이 받들고 후세에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의승·병 추모비를 중앙공원내에 건립하기로 하고 추진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재경 기자

신라문화원, 남산답사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10월8일부터 3회에 걸쳐 불교문화의 성지이며 노천 성보박물관인 경주 남산의 오지를 집중적으로 둘러보는 특별답사를 실시한다.

1차 답사는 10월 8일 국사골 지암골 오산골 비파골 유느리골이며, 2차 답사는 11월 12일 무장사지 삼산신성 일주코스, 3차 답사는 12월 10일 삿갓골, 약수계, 남산부석등이다. 답사지도는 최민희씨(신라문화원 전문위원, 계림고 교사)가 맡는다. 054) 774~1950. 김원우 기자

장기기증자 위한 천도재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틀간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제6회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고, '제2회 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장기기증의 보살행을 실천한 이들의 명복을 빌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천도재는 95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봉행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재가연대 첫 회원연수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30일~10월1일 서울 북악파크호텔에서 제1회 재가연대 회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재가연대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재가연대의 사명과 비전 설정을 위한 공동작업을 실시한다. 또 김종서 전 교육개혁위원장이 '사회교육자로서의 재가연대 회원의 지도력'을 주제로 특강한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특공부대 백호정사 기공

경남 사천의 특공부대 군법당 건립추진위(위원장 통광)는 17일 부대 관계자 및 장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호정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건립추진위는 앞으로 약 7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60평 규모의 대웅전을 내년 4월 30일까지 완공하고 이어 30평 규모의 요사채와 20평 규모의 종무소를 차례로 지어 부대장병들의 원활한 신앙생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7대종교 청소년 100명 한라-백두 평화순례

불교 개신교 등 7대종교 청소년 100여명이 백두산과 한라산에 올라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순례를 거행한다.

7대종교 청소년 평화순례단(단장 김종수 신부)은 23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10월 1일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서 동시에 통일기원의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백두산 순례단은 각 종교별로 10명씩 7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29일 서울을 출발해 조선족 학교인 용정중학교를 방문하고 연변 방면으로 백두산에 오른다. 한라산 순례단은 30명이다. 불교 순례단은 승가사 진관사 한마음선원 수원포교당 등의 중·고·대학생회 회원들로 구성됐다. 청소년 평화순례단은 오는 3일 김포공항에서 한라-백두 합수합토제를 거행하고 해산한다.

이번 행사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은 "종교간의 벽을 허물고, 청소년들에게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진원지임을 고취시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대둔사 새 사찰안내 리플렛 '깔끔'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둔사(주지 보선)가 전체 도량을 다섯 순례길로 나누어 소개한 새로운 스타일의 사찰안내 리플렛을 최근 제작해 화제다.

올칼라로 만들어진 이 리플렛은 앞 부분에 13대종사와 13대강사를 배출한 조선불교의 중심도량으로서의 대둔사의 연혁을 소개하고 있다.

순례길 1, 순례길 2,… 순례길 5 등 대둔사를 크게 다섯 순례길로 분류, 각각의 길에 따라 가 보면 볼 수 있는 전각, 불상, 탑, 부도밭, 박물관 등을 칼라그림과 함께 소개해 관람객이 이 안내에 따라 도량을 찾아가기 쉽게 해 놓은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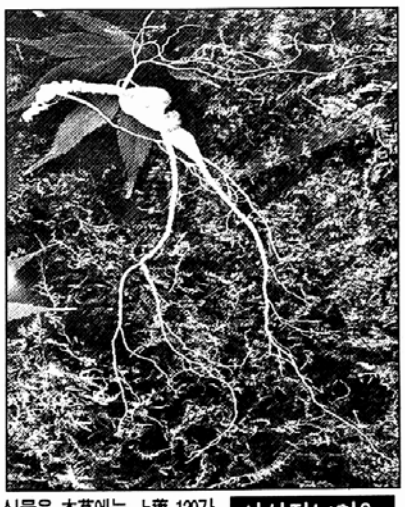
뒷 부분에는 불교란 어떤 종교인지를 쉬운 말로 소개했고 대둔사에서 열리는 참선수련회와 부설 불교대학·어린이집, 정기법회, 초의문화제, 대둔사 안내도 등도 들어있어 사찰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주부신행담 백일홍 나무처럼 ①



그림 · 이준석

지난 여름 한창 더울 때 전남 보성에 있는 백제고찰 대원사로 위빠사나 수련을 6박7일동안 다녀왔다.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법당앞에 당당하게 서있는 백일홍나무 였다. 나중에 들으니 3백년이 넘는 고목이라고 하는데 어찌나 우아하고도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지 한참동안이나 눈길을 주었다.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내 곁에서 항상 깨달음의 죽비를 아끼지 않으신 손윗 시누이인 형님(강옥형)이 생각났다. 늘 단아하면서도 기품있고 상냥함을 잃지 않고 계신 형님은 저 백일홍 나무처럼 당당하면서도 울곧은 삶으로 지금까지 내 삶의 귀감이 되어주시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결혼전까지만 해도 불교는 전혀 몰랐다. 친정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 부모님은 신심이 깊었고 나는 고등학교도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다.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려다가 시어머님의 반대로 예식장에서 목사님을 주례로 모셔 식을 치렀을 정도로 기독교와 밀착돼 있었다.

결혼후에도 친정어머니의 성화에 못이겨 교회에 나갔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와 교회 갔다온 날은 이상하리만치 시어머님이 와 계셨다. 절에 다니셨던 시어머니는 내 손에 들린 성경책과 찬송가책을 보시고는 언짢은 얼굴이 되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하셨다. 그렇게 3년 정도 교회에 나갔다.

명절 때 시댁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보면 왜 저렇게 돌아가신 분께 절을 할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되지 하는 반성이 저절로 들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차츰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졌다. 그러던 중 장남인 우리가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그때부터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 시누이인 형님께 자주 의논을 드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집안인 친정과 불교집안인 시댁을 자연스럽게 비교해 보게 되었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십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달라짐이 없는 친정을 보면서 나는 차츰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변모를 보인 내게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와 깨달음을 일깨워주신 분이 형님이다. 형님으로 인해 나는 불교와 진심으로 만나게 됐고 그 심오하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종교에 푸욱 빠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최근까지만 해도 불교로 나를 인도해준 형님의 그 마음을 올케를 사랑하는 방법이겠지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 행운아라 생각한다. 누구는 일생에 걸쳐 한명도 만나기 힘들다는 최고의 인연을 두사람이나 만났기 때문이다. 물론 그 두사람은 나의 남편과 남편의 누나인 형님이다.

유안진 시인의 〈지란지교〉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고 싶어지는 친구, 그러면 그 집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놓고 열어보일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한 친구같은 남편과 8년 연애 끝에 지난 81년 결혼을 했다.

외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고 행복감을 느꼈다. 그렇게 6년이란 세월이 흐른 87년 여름, 시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시동생이 남기고 간, 생후 8개월된 조카가 우리집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나도 어린 자식 2명을 키우고 있었고 또 나는 하느라고 했어도 어머님 눈에는 허점이 많이 보인 것 같다.

며느리로서는 흠잡을 데 없다고 만족해 하시던 시어머니는 내가 큰업마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내시며 조카에게 자식보다 더 사랑을 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셨다.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대하나 감시까지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솔직히 나의 자식보다는 사랑이 더 가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면 성격이 급하신 시어머니는 이단치다 못해 때로는 심한 욕설도 하셨다. 그러면 참을성 없는 나 역시 심하게 반발하고 못견뎌 했다. 나는 서운함과 원망에 못이겨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푸념을 하게 마련이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자극해도 마음이 고요하면 화가 나지않아

그럴 때면 형님은 이 어리고 못난 올케에게 차분히 가르쳐주곤 했다.

누가 아무리 화나는 말을 해도 그 말에 끄달리지 말라고,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자극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접수시키지 않으면 화가 날래야 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조언해 주셨다. 나의 마음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니 도리어 고맙게 생각하라고. 우물청소를 하려고 해도 저아래 암금까지 저어 깨끗이 퍼내야 맑은 우물이 되듯이 내 속에 있는 앙금을 저어내는 역할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라고.

하지만 원망과 미움만 잔뜩 쌓여있던 내게는 당시 그러한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과 형님을 낳아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존경심이 생기다가도 그 마음은 잠시뿐…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한동안 그렇게 살았다.

내가 진실로 불교에 관심을 갖고 귀의하게 된 것은 지난 해 여름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날, 형님과 함께 춘천 청평사를 참배하고 나서부터이다.

폭우가 700mm도 더 온 날 청평사 가는 길에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내생전 처음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다는 무서우면서도 극명한 순간을 체험해 보게 되었다.

전날 울산에서 서울로 출발할 때만 해도 그렇게 좋았던 날씨가 서울에 도착해보니 엄청난 폭우로 변했다. 도저히 청평사로 참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떠나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떠나지 하며 무심히 말씀하시는 거였다. 나는 형님의 그 멋있는(?) 말 한마디만 믿고 청량리역에서 첫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창밖을 보니 비가 심해졌다. 점점 상각해지는 상황에 속으로는 겁이 났지만 형님과 같이 사찰순례를 떠나는 것이 그저 좋았다.

춘천에 도착한 후 청평사로 연락해 보니 산사태가 나서 위험하니 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형님과 나는 무작정 택시를 타고 갔다. 산 입구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다리 앞에 산사태가 나서 복구 중이었다. 이윽고 공사가 끝나고 형님이 건너시고 내가 건너려고 왼발을 디디고 막 오른발을 내딛는 순간 오른쪽 다리가 벌속으로 빠져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형님이 내 손을 잡아주어 어떻게 다리위로 올라왔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다리위로 잡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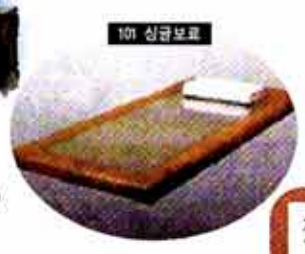
'아… 죽음이란 이렇게도 다가오는구나'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그래도 우리는 청평사를 향해 올라갔다. 길 왼쪽 산에는 흙탕물이 철철, 오른쪽 계곡은 무서운 연기같은 모습의 폭우가 끝없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산장의 아주머니는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라고 말하며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고 산 곳곳의 민박집에는 비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계속〉

서희순〈울산광역시 동구 전하 3동〉

좋은 잠자리의 참이 보약입니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 는 자연입니다

옥단 902

청담 201
▶ 쿵쿵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전자파 자체 제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찐드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화조

101 심금보료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 줍니다.
♦초장파 외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침대의 名家 氣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리빙스톤® (옥스톤)
Living Stone Bed
☎ 02)424-9427/2203-7821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특수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
돌판은 원석인지, 그리고 수입석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수 있습니다.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3,300관 대범종 타종
■ 재 질
· 동 13톤
· 주석 2.5톤
· 금 50냥
· 은 7kg
· 인 45kg
(전기로 합금)

鐘 宗 社 ☎ 02)725-0878